vol. 6

하늘나래

하늘인, 모두의 이야기

꿈 그리고 열정



꿈을 향한 비상

세상을 움직이는 열정

도전을 즐기는 배움터

Contents

06 / 교장선생님 인사말

07 / 감사 인사

08 / 세계시민교육

10 / 연구방법론

12 / 통일교육

14 / 항공교육

16 / 창체동아리 미슐랭 가이드

24 /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

28 / 무한상상과정 (IIP)

30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탐구 프로젝트

32 / 7대 학생회를 만나다

40 / 체육대회

44 / 수학여행

48 / 꽃동네

56 / 선배...선배?...선배!

66 / 선생님X학생

72 / 하늘고 칠진분류

76 / 하늘고, 그것이 알고 싶다

80 / 하늘고, 음악이 있는 곳

84 / 교감쌤이 들려주는 나의 근현대사 이야기

92 / 하늘고, 전파를 타다

96 / 학술제

102 / 선생님 제2의 직업

106 / 하늘고와 비밀의 방

112 / 하늘고 프로 열일러

122 / 닮은 사람 찾기

128 / 응답하라 2011~2015

136 / 하늘몬 도감

144 / 궁금한 이야기 G(LC)

148 / 선생님 음성지원

150 / 하늘고 교사 알쓸신잡

156 / 소설 言

166 / 학급별 질문

214 / HANEUL CONNECTOR



Less Of Me, More Of Us

교장 김일형 선생님

사람이 성숙하는 데는 3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미국의 Stephen Covey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의존하는 단계로 "YOU"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당신" 없이는 못 한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독립하는 단계로 "I"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자이다.

세 번째 단계로는 서로 상호 협조하는 단계로 "WE"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협동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

인천하늘고 학생 여러분!
남에게 의존하고 스스로 독립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상호 협조하는
나만을 위한 내가 아니라 (Less Of Me), 나와 우리를 위한 내가 (More Of Us)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등학교 7대 학생회장 이민수입니다.
처음 학교를 입학한 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소중한 학교를 만들어 보기 위해 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지난 1년간의 6대 학생회 활동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지로 전교 회장에 당선되어, 좋은 친구들, 좋은 후배들과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교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학생회를 이끌고, 올바른 학교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느덧 한해가 다 지나,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추억과 사랑이 어우러진 하늘나래 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3년이란 인생에서 짧고도 긴 고등학교 생활,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교, 사랑으로 가득 찬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 이민수

기획팀과 사진팀으로 이루어진 교지편집부를 구성하고, 교지의 마지막 장인 'HANEUL CONNECTOR' 페이지를 편집하기까지. 200페이지 남짓한 지면에 하늘고의 1년을 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았던 '선생님 음성지원', '선생님 제2의 직업'을 편집하면서 학생들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와 센스 있는 유머 감각에 감탄하였습니다. '글을 줄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지에 싣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늘나래 6호에는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HANEUL CONNECTOR 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못다 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와 학술제의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래 6호의 부제는 '하늘인, 모두의 기록'입니다. 모두의 기록을 편집하는 데 협조해주신 하늘고의 모든 학생, 선생님,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교지편집부의 기획팀으로 최선을 다해준 다영이와 유리, 사진팀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준 정은이, 정환이, 은규, 주헌이 모두 감사합니다. 교지에 들어갈 영상 편집을 도와준 나민이, 멋진 글을 써준 5월의 기자, 10월의 기자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아이디어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교지제작부의 든든한 기둥 최상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지를 읽는 여러분 모두, '모두의 기록'을 통해 따뜻한 2018년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글 · 엄유선

세계시민교육

10차시의 세계시민교육을 받으면서 평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동화책 번역하기, 외국인 대학생들의 문화 교류, 조창범 대사님의 유엔교육 등 각양각색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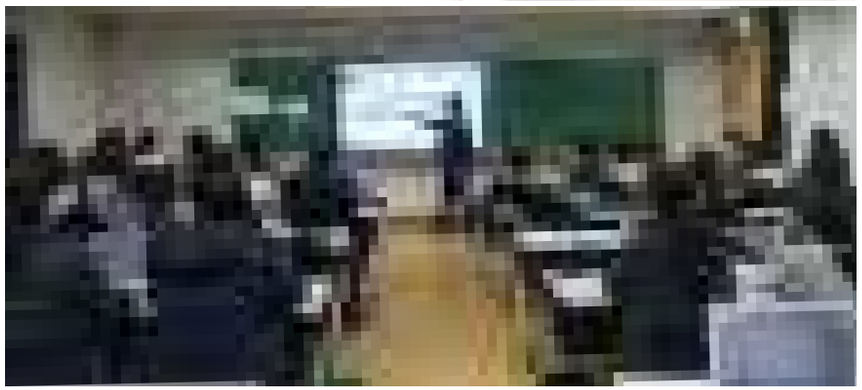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은 나에게 값진 선물, 봉사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종종 우리는 "봉사를 하면 봉사를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까지 저는 위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차시를 거듭할수록 위 말은 저에게 점차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끝내 진정한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내가 미래의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는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세계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관심을 두고 글로벌 리더나 세계시민으로서 나아가고 싶은 모든 학생,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학생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글 · 윤석영











"우리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안의 연민과 지혜를 좀 더 키우고 발휘할 수는 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진작가 리사 크리스틴이 한 말로, 세계시민교육에서 저의 마음을 울렸던 명언입니다. 현재 저는 몇 개월 전보다 세계의 빈곤과 인권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알고,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 그들과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내가 굳이? 나 살기도 바쁜데 · · ·"하면서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운동화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렇게 막연했던 지식을 구체화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을 친구들과 협력하여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배려나 이타심 같은 무뎌졌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었고 꽤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송제우



연구방법론

하늘고등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교양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2학기 수업으로는 연구방법론과 세계시민교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야기 소재로 다룰 것은 바로 연구방법론입니다! 연구방법론은 논문을 쓰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 관찰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방법론을 듣는 친구들이 많다보니 소논문 프로젝트 진행 시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다소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여러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알 수 있어서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논문의 구성요소, 주로 쓰이는 용어, 여러 가지 분석방법 등과 같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내용을 바탕으로 소논문을 쓰기 전 기초를 다지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직접 소논문을 작성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

P.S.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좋은 조언과 피드백을 해주신 히든그레이스 대표 김성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글 · 서지민

방과 후 학교 신청일이 다가올 때 '연방론이 정말 재미있다, 큰 도움이 된다, 무조건 들어라' 라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저를 유혹하던 친구와 함께 1학기 항공교육이 연구방법론인 줄로 착각하고 신청할 정도로 기대하였습니다.

하늘고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끊임없이 작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동아리활동이나 학술제에 논문을 제출할 때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연구방법론에서 제대로 된 논문 작성법을 익혀둔다면 내용에 좀 더 집중하여 만족할만한 논문을 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론에서 논문을 작성하면서 습득한 지식들을 발표를 통해 동급생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한 학기 동안 연구방법론 수업을 들은 제가 감히 보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연구방법론을 포함한 전공 연구 수업들이 하늘고에 입학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고 만족도를 느끼게 해주는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이 글을 9기 후배들이 읽게 된다면 '어떤 방과 후 수업을 들을까?' 라고 고민이 될 때 일단 연구방법론의 수강신청을 먼저 클릭하고 고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글 · 노갑민



통일교육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통일교육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처음 통일교육을 할 때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터라 교육을 받아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저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과 훌륭한 강사진들이 오셔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서독과 동독의 관계와 비교하여 이야기해주시고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남한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등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통일교육을 받다 보니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북한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북한만의 그 문화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많았고 인천하늘고등학교 통일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이 통일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은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이 남북한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글 · 천혜선

분단된 지 70여 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이라는 숙제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통일은 해야만 한다."에서 "통일이 필요할까?"라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늘고의 통일 교육은 우리에게 올바른 통일 가치관을 심어준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별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통일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내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사실 통일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던 저였지만 수업을 거듭할수록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남북 관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 더 진전되어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일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하늘고의 학생들이 한반도 미래의 주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 · 지상혁









항공교육

방과 후 수강신청 날 아침이면 모두가 손이 바쁩니다. 그중 눈에 띄는 강좌, 바로 하늘고만의 특색 있는 교육, 항공교육.

항공교육은 실력 있는 교수님들께서 심화된 항공공학 강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리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종이비행기협회 회장이신 공군 장교님이 종이비행기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주십니다. 특히 이 수업에서는 직접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운동장에서 날리니 정말이지 졸 틈이 없습니다. 항공과 관련된 진로를 가진 친구는 물론, 경제학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친구는 공항 세관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물리학에 관련된 꿈을 가진 친구도 비행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항공보고서 대회를 빼놓고 항공교육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보고서를 보고 내 보고서를 보면 좌절감에 무릎 꿇게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더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고에서 누릴 수 있는 항공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글 · 노희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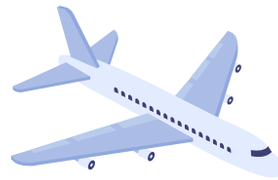






막연히 항공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듣게 된 강좌일 뿐이었으나, 항공교육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기회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지망하는 대학의 교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고, 진로 관련 정보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간 항공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좋았고, 항공의 역사, 항공기의 원리와 변화, 공항의 역사까지 '항공'이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주제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항공의 과학적 원리는 '항공우주학개론'의 내용으로 수업하셨습니다. 수업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결정해 학문적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교육이 있는 월요일 8, 9 교시가 기다려졌고 강의를 들을 때 진로가 유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10주간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기간일 수 있으나, 항공교육을 듣는 10주가 제게는 짧게만 느껴졌던 기간이었습니다. 하늘고에서 항공교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글 · 김예은

2018

창체동아리 미술랭 가이드

in

인천하늘고등학교

최강의 라인업!

남들과는 다르고 누구보다 특별한 그들이 온다!

speaiol thanks to

최성태 선생님



Air

하늘고등학교 설립 이래로 쭉 내려온 9년의 전통, 동아리 AIR는 교내 유일 항공 동아리의 이름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오래된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AIR의 깊은 연구들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책임지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넓고 쾌적한 동아리실로부터 나오는 따끈따끈한 드론 모터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엔 제격이다. AIR에서 SKY의 냄새를 꼭 느껴보시길.



Alchemist

'알케미스트'는 숙련된 셰프 김민경T의 화학 레스토랑이다. 유기, 무기, 분석화학 등을 셰프와 보조 요리사들이 직접 재료를 공수하여 조리하는데, 이러한 정성이 기품 있는 실험을 완성한다. 내년의 식객을 위한 실험들은 이미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싱싱한 약품들은 완비되어 있다. 이국적인 약품의 냄새가 한껏 풍기는 레스토랑 내부는 요리를 위한 최신식 장비들이 자리잡고 있다.



Archi

2기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ARCHI에서는 건축 특유의 맛과 향취를 느껴볼 수 있다. ARCHI는 폭넓은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건축의 장점을 살려 신입생으로 하여금 입맛을 다시게 하며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최근 신선한 우드락과 유기농 도구들의 추가적인 구비로 더욱 멋지고 새로운 활동들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Bio Farm

생물과 관련된 즐거운 실험과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공존하는 바이오팜은 하늘고등학교의 대표 귀요미를 담당하는 이지혜 선생님과 함께한다. 여러 나물들이 형형색색의 색깔로 아름다움과 각각의 맛을 이루는 비빔밥처럼, 바이오팜에 공존하는 최고급 현미경과 실험 도구들은 우리는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





Cielo



하늘고의 품격을 요리하고 있는 Cielo는 다양한 활동 메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처음으로 선보인 메뉴인 '로비 음악회'는 모든 하늘고인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학교 입학 설명회 공연' 또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전통적인 메뉴, '학술제 오프닝' 공연까지 듣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데 백미인 Cielo. 숨은 맛집 중 최고이다.

CipiE

경제가 소화하기 힘들다고 여겨 꺼리는 학생들에게 그 참맛을 선사해 신선한 생기부의 충격을 안겨 줄 CiPiE는 하늘고의 유일무이한 상경 동아리이다. 9년 간 다져진 인문 계열 최상위 상경의 입지,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의 향연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방향성은 확고하지만 스펙트럼 넓은 CiPiE의 영향력, 그 성장은 아무도 끝을 모르는 기하급수로 비견된다.





COSMOS



하늘고에서 유일하게 우주의 풍미를 지닌 동아리로 특히 낭만적인 천체관측 코스가 별미이다. 천체관측 코스에서는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이라는 포크와 나이프로 달은 기본으로 맛 볼 수 있고, 시즌에 따라 목성과 4대 위성, 계절별 별자리, 특수 메뉴로는 안드로메다은하까지 맛 볼 수 있다. 이처럼 눈을 충족시키는 메뉴들로 가득한 코스모스는 주 메뉴가 디너이므로 밤에 오는 걸 추천한다.



GLON

최고의 동아리를 결정짓는 3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멤버, 케미 그리고 꽃피는 사랑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GLON이야말로 하늘고 최고의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다. 교내외 수상 실적마저 버릴 구석 하나 없는 자타공인 '인싸 동아리' 글론.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활동과 속이 꽉 찬 생기부를 맛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갓글론으로 향하라!



HAM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요리에 눈을 떠 개점한 HAM은 은퇴한 헤드셰프가 자주 찾아와 손수 기술을 전해주는 등 현 헤드셰프와의 교류도 활발하여 맛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듯하다. 최근 성공적으로 로봇공학을 전공한 동료 요리사가 분점을 내기도 했다. HAM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맛을 위해 쉬지 않고 공부하며, 그 맛을 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HIM

물리에 굶주렸거나 공부에 대한 가오를 잡고 싶다면 HIM은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뛰어난 실력의 선배들은 기본이며, 담당 선생님이신 아미쌤의 끝없는 후원으로 HIM은 하늘고 최강 동아리로 자리 잡았다. 남녀 성비가 맞지는 않지만(...ㅠ) 그 또한 HIM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과 빵빵한 생기부를 원한다면 HIM은 탁월한 선택이다.





I-COM

하늘고의 전통 있는 문 · 이과 융합 최강동아리 I-COM은 혁신적인 기업형 동아리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부서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I-COM은 2018년 대한민국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 미래지향적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트렌드 리더적 면모를 보인다. 2019년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I-COM은 필수다.



INKling

하늘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저널리즘이라는 창의적인 요리로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잉클링은 다양한 진로를 가진 개인의 취향에 맞춰 기사를 요리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8년 전통의 정성이 느껴지는 월간지는 이미 유명하며, 새롭게 진행 중인 팜플렛 제작 프로젝트는 떠오르는 주 메뉴다. 유일한 하늘고 원어민 셰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열일의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선 You have to reservation.





ISHA

2015 교육과정 통합과학 과목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아이샤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융합과학을 요리한다. 외부 기관과의 전문적인 연계 실험을 통한 우수한 논문은 왜 아이샤가 이과 최강 레스토랑으로 불리는지 증명해준다. 올해의 코스요리는 메인 메뉴인 실험과 논문 작성을 기반으로, 전국 자사고 연합 컨퍼런스와 함께 의료, 환경, 재능기부 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Lawgics



하늘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법을 요리하는 로직스는 속이 꽉 찬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것과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에서 바로 가져온 것만 같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불꽃처럼 강력한 추진력으로 법률 토론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다. 톡톡 튀는 탄산수처럼 활기찬 로직스는 미래가 기대되는 하늘고의 유망 동아리로서 성장하고 있다.



On Air

마성의 맛을 가진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온에어의 코스요리는 입맛을 돋우는 애피타이저 '기획'에 메인 디시 '촬영'으로 산해진미의 맛을 이룬다. 셰프가 직접 현장에서 바로 잡아 불판 위에 올려놓은 '촬영'은 싱싱한 맛이 감탄을 부르고, '편집'이라는 후식은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음식을 맛보기 위한 기본 웨이팅이 8시간에 달한다고 하니 예약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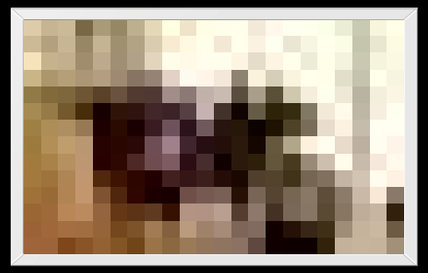
Scholar

단조로운 요리는 가라! 그 어느 동아리보다 톡톡 튀는 다채로운 빛깔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스콜라는 한 접시에서 매우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융합이면 융합, 각각 남다른 활동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는 스콜라는 한번 맛보면 헤어 나오기 어려울 테니, 단골이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길.



Screen

스크린은 영화를 주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구현해내는 레스토랑이다. 메뉴는 너무 너무 많아서 소개가 어려울 정도니 스킵하자. 스크린은 음식의 맛도 훌륭하기로 유명하지만 세련되고 아늑한 분위기 역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들 너무 방문하고 싶겠지만, 스크린은 2018년을 끝으로 전설 속 레스토랑으로 남을 예정이다.



S.O.C

하늘고 유일 광고 홍보 동아리 S.O.C는 학교를 소주제로 요리를 하여 학교 공식 홍보 블로그 운영과 외부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바다 속 물고기의 싱싱함을 이기는 아이디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기획력! 비빔밥처럼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지만 섞으면 하나가 되는 가족 같은 분위기! 어찌 이런 맛집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P.I.P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다른 하늘고 동아리들의 질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신입생들을 훔쳐오는 'P.I.P.' 실속을 생명으로 여기는 초 엘리트 8기 선배들의 활동 구상은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마지막 남은 치킨 닭다리 한 조각만큼 소중한 P.I.P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경험하려면 고민 없이 지원은 필수다.



PRo. Passional

당당하게 대한민국 1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봇 동아리 PRo.Passional. 동아리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동아리로 수상을 할 정도이니 최고의 로봇 동아리라는 칭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축구로봇'의 경우 전국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출될 정도로 큰 히트를 쳤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페이스북의 PRo.Passional 페이지를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UNESCO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진행으로 국제적인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폭 넓은 시야를 가진 셰프들이 대기 중. 교육 분야, 과학 분야,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사람은 다양한 맛을 체험하며 자신의 취향을 찾아나갈 수 있으며, 진로가 정해진 사람들 또한 자신의 진로분야와 다른 분야를 연관지어 융합된 맛을 느낄 수 있다.





VANK

하늘고 제일의 레스토랑인 VANK의 메인 메뉴는 '정치외교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라운드 강의, 시그문 등이 가미된 메뉴들도 맛볼 수 있다. 주방장인 대유잼 7기 기장, 똑부러지는 8기 기장까지! 모두 미슐랭 3스타 출신들이다. 다양한 활동, 빵빵한 생기부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찜은 필수이다.



Volunteacher

교사, 학생, 남녀노소, 문 · 이과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기는 재료인 '교육'을 20명의 셰프들이 요리한다. 그 중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7성급 요리 두드림 학교, 모든 셰프들이 조리한 교봉의 프랜차이즈 메뉴인 시범 강의 등의 메뉴들이 즐비해있다. 모두가 인정한 최고의 교봉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카리타스

뷔페에 온 것처럼 다양한 활동이 넘쳐나는 동아리이다.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유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 학생들의 봉사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봉사를 하는 최강 봉사 동아리이다. 동아리원들의 진로 맞춤 활동들과 꿈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한다.



루미난트

하늘고등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맛을 가진 루미난트는 동아리 부원 간의 끈끈한 우정이 특징인 레스토랑이다. 미식가들이 사랑하는 공간인 루미난트실은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생기부 코칭으로 밴드 동아리라는 틀에 갇혀 생기부를 걱정했던 과거의 제약들을 개선했다. 새로운 8기 정태희 셰프의 요리는 깔끔한 고음, 귀염뽀짝함, 그리고 계절 노래들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R&E)



2018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이번 연구의 주제는 '수원화성의 단점을 극복한 대안적 도시 설계'로, 중국 서안성과 수원 화성의 비교를 통해 화성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적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었어요. 중국 서안과 수원 화성을 직접 답사한 뒤 자연계열 팀은 공학수필을, 인문계열 팀은 열하일기를 모델로 한 기행문을 작성했고, 이 글들은 곧 책으로도 출판될 예정이에요. 올해는 다큐멘터리 제작, 드론을 이용한 수원화성 앱 개발, 대안적 수원화성 모형 제작 등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끝을 맺었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네요.













서안답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서안에서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그런데도 딱 하나의 순간을 뽑아보자면 저는 회족거리에서 보냈던 오후가 떠올라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당시 회족이 어떻게 서안에 보금자리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저는 회족거리를 걸으며 이 작은 민족이 거대한 한족의 터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고유한 공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계속 생각했죠. 이때의 고민을 바탕으로 기행문도 작성했는데, 그저 회족 거리를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수민족의 사회적 문제와 생존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연구를 위해 서안에 왔다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당연하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매년 새로운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고,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꿈열정지원부 선생님들의 사랑 넘치는 지원이 없었더라면,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감사함을 후배들도 경험하셨으면 해요. 생활기록부 기재나 스펙을 떠나서, 저는 제가 하는 활동들이 무모하지 않고 틀리지 않았음을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거든요. 지적으로 심화탐구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교과심화탐구프로젝트'는 제격이겠지만,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 활동에 참여할지를 고민하는 후배들께는 특히나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글 · 박주이, 최인아











무한상상과정
Infinite Imag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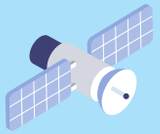
하늘고의 선진화 교육과정 중 하나인 무한상상과정(IIP:Infinite Image Program)은 2016년에 전자의수반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드론반과 자율주행자동차반까지 개설되었고, 이처럼 총 3개의 교육과정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의수반은 IIP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이수해야만 이후의 드론 반과 자율주행 반과 같은 심화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전자회로와 C/C++ 언어의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초를 학습하며, 전자의수 제작을 위한 3D 모델링 및 프린트 과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고급전자의수반도 운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링크 구조를 사용한 새로운 전자의수 모델링과 LCD 모듈과 다이얼을 통한 의수 제어기능을 추가하여 기존의수보다 더욱 발전된 의수를 제작하였습니다.















드론반은 전자의수반 이후로 희망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IIP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주목적으로 하며, 드론의 기본 작동 원리와 피치, 롤 등 드론 비행 용어 등에 대해 배웁니다. IIP 3기까지는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제작해보았고, IIP 4기는 드론에 아두이노와 스프링클러를 활용한 농업용 드론과 같이 이미 제작된 드론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면 직접 드론을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데, 비록 GPS나 통신 오류 때문에 드론이 추락하거나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반은 IIP 과정의 최종 단계이자, IIP 과정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율 주행 반은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율 주행 반에 참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율 주행 반에서는 Open CV와 Python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차선과 신호등을 인식하여 움직이고, LiDAR센서를 통해 앞의 장애물을 인식하여 멈추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율주행 1기 때는 장애물만 인식해 진공청소기와 다를 바가 없었으나, 2기에는 거듭된 발전을 통해 차선과 신호등을 인식하여 트랙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율주행 반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보이며, 자율 주행 반은 기계 분야, 컴퓨터 분야, 자동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인 요소를 지닌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 분야의 관심을 가진 친구라면, 자율 주행 반에 꼭 지원하여 열심히 참여해보길 추천합니다.

글 · 김순호, 김기림, 유진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탐구 프로젝트



명확한 것이 과학의 특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디어스피치 연구팀에서는 이에 의문을 품고, 광우병 관련 과학적 연구 결과를 둘러싸고 그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광우병 촛불 시위의 사례에서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의학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광우병 발병 원인에 관한 과학 강의 및 광우병 논란과 관련된 언론사의 보도 내용 설명 강의를 개발하는 등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미디어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는데 이는 '미디어 텍스트는 어떻게 사람들을 몰입시키는가?' 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의학 드라마의 흥행 요소 분석, 일제 강점기 신문 연재 소설의 흥행 요소 분석 등과 같은 소주제를 두고 뉴스, 예능, 교육, 다큐, 드라마, 스포츠, 라디오, 신문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 과정 및 절차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사이트에 게시하고 각 팀 별 연구 성과 포스터 논문으로 작성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탐구 프로젝트 (과학 저널리즘과 과학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책자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저희의 오랜 연구를 작품화하였습니다.



저는 전부터 항상 언론과 미디어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그러므로 언론 연구 도서를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하거나 언론인의 삶의 모습을 탐구하고 정당한 보도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정도 선에 국한되어 있었고 독단적인 연구 진행에는 무리가 있어, 더욱 전문적인 활동을 바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스피치는 저에게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연구가 쉽지 않았던 만큼 힘든 요소들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열정을 보아 다음 미디어스피치 연구도 멋진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스펙을 쌓으려는 용도가 아닌 진로를 진심으로 탐구하고 지식의 확장을 도모하는 활동으로서 미디어 스피치 연구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 깊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기회일 것입니다.

글 · 서예진



7대 학생회를 만나다.



학생회장단

학생회의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떤가요?

이민수 : 4, 5기 선배님들을 초청해 선배와의 만남을 진행했어요. 김승호 선생님의 지원에 힘입어 하늘컵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간담회도 매 달 진행했습니다. 3주전 연장도 시행했고요.

손예지 : 지폐교환기의 경우 관리비의 문제로 현재는 행정실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바꿔주고 있어요.

노갑민 : 광복절에 공휴일 일요시간표 적용을 시행했고, 이번 개천절처럼 시험기간 중 공휴일은 앞으로도 적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비데는 내년 예산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다음 학생회에게 해 줄 조언이 있다면?

민수 : 갑민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소통'을 내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학생회 안에서의 소통도 중요하고, 학생회와 학생, 학생회와 선생님 간의 소통도 중요하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연합회

자신의 부서에서 내걸었던 공약과, 진행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목소연 : 동아리 일정을 정리한 달력을 만드는 게 공약이었어요. 동아리 일정을 친구들이 잘 몰라서 이동을 못 하는 친구들도 많고, 매번 "이번 주 동아리야?" 하고 물어보는 일도 많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싶어요.

학생회 활동, 안 힘든가요?

경성윤 : 한 번에 업무가 몰려 올 때가 많아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목소연 : 저희 학년에서 제게 동아리와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가끔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정휘수 : 최근 신설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는데, 복도가 추워서…(웃음)

미래의 학생회, 혹은 동아리 연합회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해욱 : 선배들이랑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학생회가 들어왔을 때면 저희가 선배일 텐데… 저희를 많이, 그리고 자주 찾아와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학생활동 지원부

자신의 부서에서 내걸었던 공약과, 진행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조용준 : 자치법정 운영방식과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자치법정실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순탄히 나아가고 있어요.

학생회 활동, 안 힘든가요?

박재연 :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다른 친구들한테 있다는 게 힘들어요. 그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다른 친구들이 학생회에 대해 더 많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준 : 저희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해요. 저희의 영향력이 미치는 대상이 넓다보니 신중한 고민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힘들어요.

미래의 학생회 친구들에게 조언을 한 마디씩 해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재연: 보상을 바라고 학생회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학교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시간관리에 철저한 사람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홍보부

자신의 부서에서 내걸었던 공약과, 진행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종원 : 축제 오프닝 영상 제작, 축제 팜플렛 만들기, 사진전 개최 등을 기획했고, 진행해 오고 있어요.

이다영 : 하늘고 브이로그를 만드는 게 저의 공약이었어요. 내년에 진행해보고 싶어요.

이종원 : 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홍보 영상을 다시 제작하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2학년이 끝나 버렸네요. 현재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 홍보 영상 제작 대회를 폐지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전교가 협업해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대외적으로 트는 학교 홍보 영상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미래의 학생회 친구들에게 조언을 한 마디씩 해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종원 : 평소에 들어가고 싶은 부서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냈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한 내용이나,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했던 내용, 루미난트 홍보지를 제작한 것, 포토샵으로 만든 작업물들을 모두 모아 냈었어요.



학교 안전부

본인의 부서에서 내걸었던 공약과 이행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김재영 : 학생들의 안전의식 신장을 위해서 표어나 글짓기대회를 진행하여 상장이나 봉사시간을 주고자 계획 중입니다. 잔반처리 관련 공약도 있는데요, 다른 학교와 달리 하늘고에서는 급식 여사님들이 잔반을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잔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안전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김재영 :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없는 겁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을 찾아 나가는 편이고요, 다른 부서의 아나바다 행사나 도장 찍기와 같은 노가다 일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학술제의 보물찾기에서도 300~400개 정도의 보물을 수작업으로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홍보부도 만만치 않게 하는 일이 없어요.

김승민 : 하고 싶다는 의지와 열정은 많은데, 절제해야 돼요.

김재영 : 학생회 업무 전부가 저희의 일입니다. 전반적인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문화 체육부

자신의 부서에서 내걸었던 공약과, 공약 이행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남유진 : 체육대회 때 푸드 트럭을 진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여진 : 작년 학술제의 젠더 젠더 체인지(여장남장)를 '니가 알던 하늘인이 아니야!'로 교체하였습니다.

남유진 : 할로윈 행사를 기획해 뽑기와 페이스페인팅을 진행했고, 수능 응원 플래시몹도 진행했습니다.

최여진 : '너는 가수다'도 저희가 진행했어요. 전체적인 큰 틀은 학교 측에서 잡아 주지만, 참가자 모집이나 행사 진행 및 총괄, 관리 등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해요.

학생회 활동, 안 힘든가요?

최여진 : 많이 힘들어요. 학교 생활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문체부다 보니까 학교 행사에 거의 다 참여를 해서, 다른 부서보다 특히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술제 기간 내내 학생회실에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남유진 : 면학실에 앉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기획재정부

학생회 활동, 안 힘든가요?

신혜원 : 제가 1학년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업무 분담이 저희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는 형경이가 일을 많이 도와줘서 힘들지 않게, 저희 둘 다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형경 : 언니가 할 일을 분배해 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편했어요. 제 할 일만 알아서 하면 일이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언니 덕분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만약 내년에 선배의 도움이 사라진 상태에서 학생회 일을 한다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고 재밌어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학생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혜원 :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고, 급식실 아저씨하고도 친해졌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봉사부

학습 봉사부에서는 보통 어떤 활동을 하나요?

조국호 : 학습 봉사부는 교내에서 학습 관련 이벤트나 학습 관련 시설을 담당해요. 하브루타존(언학실) 관리, 작년부터 실시한 선배들의 아나바다 책 운동, 학술제 논문 발표 등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활동을 맡고 있어요.

다음 학생회에게 할 조언이 있다면?

조국호 : 학생회에 들어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내용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제우 : 학생회 지원 시기가 되면 “학생회 하면 내신 많이 떨어진대” 라는 소문이 꼭 돌아요. 그런데 이건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내신을 잡으면서 생기부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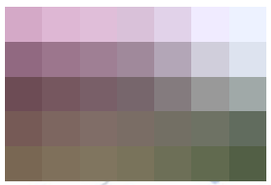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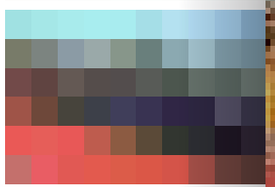


찬란했던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체육대회



“으랏차차” 체육 한마당,
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가 힘쓴 “최고의 하루”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체육대회를 하기 전의 설렘과 떨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 막을 수 없었다. 싱글벙글 웃던 여학생들은 피구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와 함께 공을 던졌고 달아오르는 열기 속에서 1,2학년 농구가 진행되었다. 곧바로 진행된 농구 올스타전 역시 인기 종목이었다. 경기가 끝나자 비가 그쳤고,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도망가기 바빴던 닭싸움과 선생님들의 응원이 돋보였던 줄다리기, 추석특집방송을 보는 것 같았던 씨름이 끝나고 어느덧 체육대회는 후반부로 달려갔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생님들의 열렬한 응원, 최선을 다한 친구들 덕분에 멋진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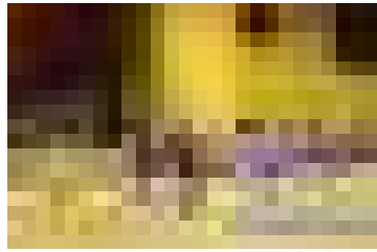
글 · 박서현

체육대회,
오늘은 우리가 어벤져스!

이번 체육대회는 축축한 날씨로 체육관에서 시작했지만, 오후에는 날씨가 맑게 개며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 체육선생님들께서는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캡틴’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다. 스태프들은 더운 날씨와 적은 인원으로 인해 힘들어 했지만, 무거운 물품을 옮길 때는 ‘헐크’처럼 강하고, 경기 심판을 볼 때는 ‘토르’의 카리스마를 선보이는 등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했다. ‘아이언맨’처럼 각종 음향시설을 잘 관리해준 방송부와 사진 담당 학생들, ‘블랙위도우’처럼 맛있는 저녁을 제공해주신 급식 여사님들과 안전에 신경써주신 학부모 도우미분들까지!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서 체육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애쓴 숨은 ‘어벤져스’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글 · 정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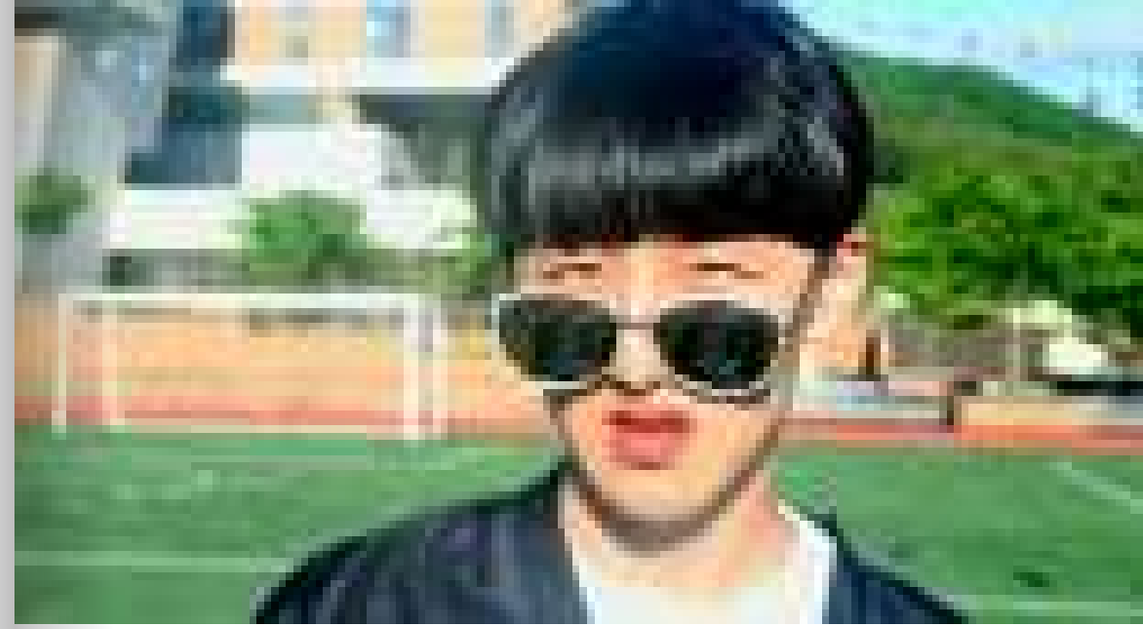

체육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뒤풀이 그 속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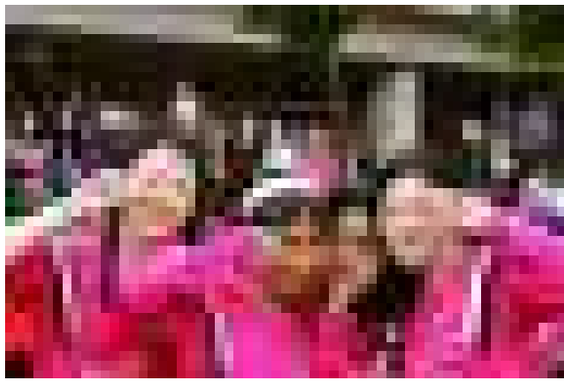
열정 넘치는 경기를 마친 우리는 아쉬운 마음과 더불어 설레는 마음으로 체육대회 뒤풀이를 준비했다. 뒤풀이의 첫 공연으로 힙합동아리가 깜짝 놀랄 만한 랩 실력을 뽐냈다. 이후 최성태 선생님 성대모사와 최상규 선생님 패러디 등 우리들의 숨은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던 장기자랑 시간이 이어졌다. 경품 추첨시간에는 이지현 선생님의 포트폴리오와 최상규 선생님께서 마련해주신 특별선물, 정주원 선생님의 정식당 쿠폰 덕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또한, 마지막 '네 글자 퀴즈'는 반 대항전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했는데, 이로써 체육대회 뒤풀이의 마지막을 알차게 장식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경험이었다.

글 · 천혜선










체육대회
QR코드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제주여, 내내 어여쁘소서.



우리의 변신은 꼭두새벽부터 시작되었다. 고요한 생활관과는 달리, 방에서는 다들 몇 시간 후 펼쳐질 제주를 상상하며 분주했다. 조금은 어색한 사복 차림으로 우리는 수학여행의 출발선에 올랐다.

처음 간 곳은 한식뷔페였다. 문과 친구들은 “아 배고팡!”을 외치며 한국지리식 유머를 뽐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방림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다.













‘포토존은 저기다!’ 모두들 방림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추억을 담았다.

그 다음은 오설록! 아이폰 유저들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뭉쳐서 셔터를 끊임없이 눌렀다. 첫 날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무한리필이었다. 먹을 줄 아는 친구들은 쌈장 넣은 밥을 불판에 눌리고, 떡과 고기를 잘라 넣어 만든 볶음밥까지 클리어했다.















둘째 날은 익스트림 스포츠로 가득 채워졌다. 알파벳 블록 맞추기부터 질주본능을 뽐낼 수 있었던 카트까지! 갑작스런 비와 함께 먹은 닭칼국수는 정말 맛있었다. 빗속을 가르며 탔던 짚라인, 레일바이크, 승마도 참 재밌었고, 비에 젖은 서로를 비웃으며 아쿠아리움에 갔다. 가오리와 찍어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호텔에서의 치킨 파티로 마지막 밤을 즐겼다.











셋째 날! 박물관은 살아있다, 휴애리, 회국수&전복죽 다 좋았지만 바다가 압도적이었다. 함덕 해수욕장으로 갔는데, 제주 바다 is 뭔들! 계속 머무르고 싶었지만, 아쉬운 대로 카메라에 담았다. 어른이 돼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수학여행이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제주여, 내내 어여쁘소서!

글. 이채연

꽃동네 이야기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행복의 꽃을 키운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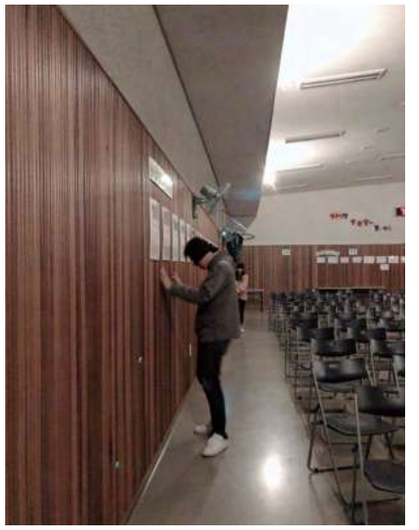
꽃동네는 행복과 사랑을 주제로 “당연지사” 캠프를 진행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워낙 추상적이고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주제라,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물’을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방법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 봉사를 통해 직접 사랑과 행복을 주고받으며 느꼈다.

행복을 주제로 삼았던 첫째 날 활동은 ‘장애 체험’ 이었다. 진행자는 이 활동의 제목인 ‘장애 체험’에 부합하게 청각, 시각, 언어장애를 각각 부여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벽을 짚은 오른손과 장애물 감지를 위해 앞으로 뻗은 왼손의 감각에만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체험이 끝나고 진행자분이 보여주셨던 영상에 나온 오요한씨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고 했던 것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머물러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나는 다리로 어디든 걸어갈 수 있음에 행복하고, 손으로 연필을 쥘 수 있어, 귀로 즐거운 음악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사랑의 꽃을 키운 날



꽃동네 일정 중 가장 중요한 활동, 바로 우리가 직접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 시간이었다. 각자의 봉사구역으로 떠나기 전, 어르신들을 위해 “다시 올게요”라는 말을 섣불리 꺼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봉사원 측의 ‘가족을 향한 세심한 배려’까지 볼 수 있었다. 구원의 집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에서 나는 4인 1조로 세탁실 봉사를 하며 깨끗이 빤 흰 천을 빨랫줄 위에 널어놓고, 다 마른 것들은 개는 역할을 맡았다. 우리가 각을 잰 듯 반듯이 갠 흰 천의 정체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의 소변과 대변을 위해 침대에 펼치는 패드라는 것을 들으니, 없던 힘도 솟아올라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를 지으며 가족분들을 위해 한결 정성스레 갰다. 한편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동무와 따뜻한 손녀가 되고 싶어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내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기쁜 시간이었다.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꽃을 안고 하늘로 돌아오는 날

꽃동네에 온 후 입소식을 하기 전, 담당 선생님께서 “이곳을 떠날 때, ‘꽃동네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하셨던 말이 나에겐 실화가 되었다. 한 시간 한 시간, 낭비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운 17년 인생 중에서 오늘이야말로 잊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타인을 사랑할 용기와 마음을 가득 충전해서 돌아온 듯하다. 이유 없이 우리는 모두 가족이므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수녀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무언가를 나누는 등 남에게 행복과 사랑을 주는 것이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꽃동네에서 짧았지만, 의미 있던 3일 동안 기른 사랑과 행복의 꽃을 가지고 하늘고로 돌아왔지만, 그 꽃은 시들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기회만 된다면 다시 한 번 꽃동네 가족들을 만나러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달려가고 싶다.

글 · 전솔



1
선생님 다섯고개

〈강선이 선생님〉 Cindy 신디



- 이끼누끼 타이무가 있다.
- 나는 이면지를 좋아한다.
- 나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다.
- 나는 샤기컷이다.
- 나는 야후 재팬을 사용한다,

〈김경희 선생님〉 Diana 다이애나



- 나는 대회의실에서 수업준비를 한다.
- 나는 쿨내를 진동시킨다.
- 나는 고오져스~ 하다.
- 나는 경량 조끼 패딩을 애용한다,
- 나는 대지의 여신룩을 추구한다.

〈황혜경 선생님〉 Clara 클라라



- 나는 새가 그려진 카키색 항공점퍼를 입는다.
- 나는 뉴요커다.
- 나는 눈썹미인이다.
- 나는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
- 호와이.

〈김지연 선생님〉 Lisa 리사



- 나는 한 수업에 '그지'를 80번 말한 적 있다.
- 나는 OMR 실수를 극도로 싫어한다.
- 나는 빠름의 대명사다.
- 나는 츤데레다.
- 나는 재홍쌤의 잃어버린 누나이다.

〈천도현 선생님〉 Andy 앤디



- 나는 꾸르달달한 나긋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건들남이다.
- 나는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한다.
- 나는 올해 판서 수업을 처음 했다. '맘조리지' 말고 편하게 수업하면 '됀' 다.
- 나는 모두에게 친절하다.

〈유은환 선생님〉 Scarlett 스카렛



- 나는 동아리 애정 100%이다.
- 나는 5층 여신이다.
- 나는 하늘고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 나는 서울 여자다.
- 나는 최강 츤데레다.

〈조기성 선생님〉 George 조지



- 나는 키티와 닮았다.
- '에..제가 지금 졸리네요..' (얼굴 쓰담쓰담)
- 나는 "얘→들↗아→↘"라고 말한다.
- 나는 반쯤 감긴 눈의 짙은 쌍꺼풀이 매력적이다.
- 나는 영도에서 온 순박한 청년이다.

〈김민연 선생님〉 Charlotte 샬롯



- '믿습니까~?!
- 나는 자신감이 폭발한다.
- 나의 각성제는 오로나민 C이다.
- 나는 큰 손이다.
- 나는 웃을 때 신민아를 닮았다.

〈김현수 선생님〉 Luna 루나



- 나는 항상 반묶음을 한다.
- 나는 가끔 시원한 단어 선택으로 반전 매력을 뽐낸다.
- 나는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를 닮았다,
- 나는 자습시간마다 수학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나는 1분도 놓치지 않는 진도 여신이다.



〈김혜민 선생님〉 Margaret 마거렛



- 나는 '뚱상, 뚱하'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나는 머리를 귀 뒤로 쓱 넘기며 멋쩍은 듯 웃는 것을 잘 한다.
- 나는 7교시 종료 후 3초 안에 종례를 시작하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이다.
-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속도를 갖고 있다.
- 나는 건강식품을 좋아한다.

〈김민경 선생님〉 Elizabeth 엘리자베스



- 나는 〈진도와의 전쟁〉에서 매번 승리한다.
- 나는 어쩌다보니 결혼했습니다.
- 나는 원래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 나는 본교무실에서 가장 인싸입니다.
- 나는 종치기 2분 전 한 단원 진도쯤은 끝낼 수 있습니다.

〈이중언 선생님〉 Arnold 아놀드



- 나는 모든 동물을 키우는 능력이 있다.
- 나는 전국에 3명 뿐인 절권도 사범 중 한 명이다.
- 나는 비문학 지문 생성기입니다.
- 나는 항상 카리스마 넘치게 옷의 깃을 세우고 다닙니다.
- 나는 예전에는 하얀 피부와 수영으로 다져진 마른 몸매의 소유자였습니다.



Planman 곽선진

Q1. 매우 계획적이라고 들었는데, planman으로 보내는 하늘고 꿀팁이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하늘고에서는 거의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제가 짠 계획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 동안에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집중력을 높이는 거예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했던 첫 번째 시도는 상상 연습이에요. 뭘 상상했냐면, 제 머리를 네모상자로 감싸고 있는 장면인데요.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측면의 시각을 포기한 거죠.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는 청각을 버리는 연습을 했어요. 괜히 예민해져서 친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무뎌지는 게 더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연습들을 통해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는 집중 유도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 이후로는, 책상에 앉자마자 1분 이내로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 연습을 통해 버리는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한 두 개의 계획을 더 달성할 수 있게 된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보다 두 개 정도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흘려보내는 아까운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는 거로 생각해요.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것의 보람을 느낀다면 planman으로 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Q2. Planman으로 하늘고 생활을 하면서 계획이 깨졌는데 좋은 쪽으로 흘러갔던 적이 있나요?

계획이 깨져서 좋은 쪽으로 흘러갔던 일은 생각이 안 나지만 좋은 일이 생겨서 계획이 깨졌던 일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저라고 매일매일 차질 없이 계획을 지켰겠어요ㅎㅎ. 조금씩 흐트러지는 계획 속에서도, 연장이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바로 꿀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만들어 나간 저의 3년이 좋은 쪽으로 끝난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 아닐까요?

토론의 달인 조성현

Q1. 토론을 잘한다면 평소 말씀도 잘하실 것 같은데 자신의 특기를 살려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다소 성의 없는 답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첫 토론대회였던 '인권/평화 토론대회'부터 마지막 대회였던 '독서논술토론대회'까지. 모든 크고 작은 활동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혹 친구들과 외부 대회를 함께 준비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말에 공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승한 대회도, 떨어진 대회도, 그 과정 자체는 잊히려야 잊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대회 준비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이었으니까요.

Q2. 3학년이 되면 공부하기에도 많이 벅찰 텐데 그런데도 토론대회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대회에 나가고 토론준비를 하는 과정이 저에게 의무로 여겨졌다면, 혹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했다면, 아마 잘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그런 대회들이 '입시'에 결정적인 활동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냥 토론을 준비하고, 대회에 참여하고, 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냥 대회 준비가 주는 바쁜 일상이, 그리고 그 바쁜 일상을 소화하는 하루하루가 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결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가장 큰 메리트는 아무거나 도전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춤대며 도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다른 기회들을 놓쳤음에 아쉬울 뿐입니다.

더불어, 어떤 토론대회나 외부 스펙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려고 든다면, 아마 수상에 대한 부담으로 도전을 즐길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과정 자체에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편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다른 사람 스펙 수나 상장 개수보다 몇 개가 적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니까요. 모든 건,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구요.

바름의 정석 김예인

Q1. 바름의 정석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바른 분이라고 들었는데 자신만의 철학(좌우명)이 있나요?



우선 '바름의 정석'이라는 타이틀이 제게 다소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그동안의 노력을 많은 친구와 선생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결과라는 생각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바름'이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힘의 논리 혹은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 올바른 신념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바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어요. 둘째, 옳다고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마음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름'이라고 생각해요.

Q2. 평소에 많이 웃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고민도 있을 테고, 친구들과의 관계, 성적 등에서도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극복하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힘든 일이 닥쳐도 긍정적인 태도로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그런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간혹 있었어요. 특히 지난 고3 생활은 더더욱 심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순전히 고통과 시련의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 선생님, 혹은 친구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변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는 훈련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매일 면학 1타임 시작 전, 노트에 기도 내용을 적었어요. 너무 힘들고 마음 상했던 일들부터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들까지 모두 적었어요. 그리고 매일 선후배들과 함께 기

도하며 큰 위로를 받았어요. 힘들다고 느낄 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나를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유의 정석 정지성

Q1. freeman으로 갖고 있는 철학과 최고의 일탈은?



나는 내가 일탈의 아이콘이 된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일탈을 하지 않았다. 내 기준에서 맞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오히려 나보다는 학교와 사회가 더 일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목적인 학교에서 교육보다는 빠른 시간에 정답을 찾는 기술에, 교육체계는 서열 나누기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이 오히려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사회의 잣대에 맞추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심이 없다. 융통성 없이 그냥 그 행동이 본인들 관점에서 일탈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나한테 질문에서 말하는 '일탈'은 '일상'이 되어서 최고의 일탈을 고르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하나 고르자면 3년 동안 통학을 한 게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방과 후에 공부 안 하고 책 읽는다고 꾸짖는 면학실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접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었다. 매일 운동하고, 주말에 라크로스 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 맞는 친구랑 밤새 시간을 보내면서 진로, 가족, 행복 등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고민하는 과정은 결코 기쁘지 않았다. 밖에 있는 만큼 학교보다 다양한 것들이 나를 괴롭게 했고 신경써야 할 것도 그만큼 많았다. 너무 힘들었다. 후회도 많이 했다. 하늘고에 온 거, 오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들, 하늘고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다. 모두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후회되지 않는다. 값진 시간이었다. 고민한 만큼 나에 대해 알았고 진로도 확고해졌고,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도 생기고, 너무 좋은 선생님들도 만났다. 그만큼 단단해진 나 덕분에 그 뒤로 오는 힘든 일들을 견디는 자세가 달라졌다. 고민하는 과정은 힘든 일이지만 진지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봐야한다. 그게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아가는 중이었다.

한 놈만 팬다. 임채민

Q1. 한 놈만 패려면 어떤 꿀팁이 필요한가요?



저는 처음부터 '자소서에 이런 스토리를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생활기록부를 정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소서 쓸 때 제가 했던 활동들이 연관되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모든 교과를 진로와 연관시키려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과나 연관시킬 수 있는 교과 과세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나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로가 1학년 때부터 확실했기 때문에 활동들도 많이 하기보다는 진로와 연관되는 활동 위주로 했고, 되도록 공부에 집중하려 했어요.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특히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고 걱정될 때가 많겠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요!

Q2. 모두 의대로 지원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우려가 컸을 텐데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켰나요?

저는 사실 주변의 우려보다는 누구나 의대를 쓰는 데에서 붙을 거라는 확신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 것과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좋게 평가해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 6개 모두 의대로 지원할 수 있었어요. 또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의사라는 꿈에 대한 저의 확신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좋은 대학의 다른 학과를 간다고 해도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신념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시 공부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수능으로 대학을 가지는 않았지만, 수능을 잘 봐 놓으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 수능 공부는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맥왕 배경민

Q1. 하늘고 핵인싸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맥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많이 넓은 편이에요. 제가 좀 낙천적이어서 서로의 이름, 얼굴을 알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대부분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절 편하게 생각할 거라는 착각도 있고요. ㅋㅋㅋㅋ

어느 정도까지 인맥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기수는 말할 것 없이 모두 친하고(제 착각일수도…. 하하….) 1기부터 8기까지 선후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교감 선생님과 있는 것 같은데, 교감 선생님 말투 들어보면 조금은 특이하죠? 이영종 교감 선생님과 저의 공통점을 찾자면 부산에서 왔다는 것!!! 이런 공통점 덕분에 여러 활동을 하며 교감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진 것 같네요.

Q2. 인맥이 넓어서 좋은 점이나 이득이 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멀어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입학식에서도 저 혼자 있었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처럼 힘든 일을 할 때도 혼자였죠.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순간들이 분명 있었지만, 그 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의 어머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셨기 덕분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더 집 같기도 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가족 같기도 해요.

이렇게 감사한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많은 장점들을 가져다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이고, 또 서로의 존재 자체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기에 제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이득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해요.

박동주

Q1. 하늘고에서 박동주 하면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많은데, 자신이 가장 자부하는 얘기나 활동이 있나요?



사실 저는 아직 부족하기에 과거에 안주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들은 대개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론 그런 단편적인 평가에 자만하진 않을까, 그래서 나 자신보다 그런 평가들이 더 빛나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세상 만물에 '양면성'의 원리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성취의 이면은 허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더 많이 배우며 성장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좀 더디더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삶에 대해 고민한다는 건, '삶과 사회와 인류'에 대한 철학을 쌓는 첫 단계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꿈이기도 하고요. 이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부할 만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도, 삶을 온전히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있다는 것과, '나'를 초월하여 사회와 인류로 뻗어 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

Q2. 학생들 사이에서 '철학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본인의 인생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비록 철학을 잘 알진 못하지만, 음악과 미술, 문학 같은 것들이 하나의 예술로서 누군가의 인생을 아우르듯 제 삶을 이루는 예술이 있다면 그것이 철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동안 나름대로 문학을 한다 하며 예술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재능의 장벽을 직시하고 회의감에 빠지곤 했어요. 그 실의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던 건 철학도 예술이 될 수 있단 깨달음(?)이었고, 어쩌면 유독 생각이 많고 또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성질이 그렇게 타고난 것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직 철학 또한 인생의 거대한 물음표지만 그 '무규정'이라는 속성 덕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지의 정도는 없으니, 남은 시간동안 저만의 답을 찾아나가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박기빈

Q1. 유림쌤+3학년 쌤들 피셜 학교생활 하면서 연골이 많이 아팠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적뿐 아니라 생긴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갔나요?



중간고사 3주 전부터 의사 선생님도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아팠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데, 공부는 해야 하니, 정말 매일을 울면서 정신부여잡고 공부했어요. 아파서 잠을 못 자 불면증도 걸리고, 약 부작용, 물리치료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주어진 시간조차 활용할 수 없어 성적이 크게 떨어졌었어요.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허벅지 근육을 키워서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게끔 해야 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꾸준히 노력했고, 견디면서 천천히 나았어요. 제가 한 노력도 물론 있지만,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휠체어를 끌어준다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고, 머리 감는 것도 룸메가 의자에 앉혀서 도와주다가 워터파크 만들고…. 정말 친구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렇게 친구들 도움과 제 노력으로 극복해나갔던 것 같아요.

Q2. 역경을 극복해낸 후 생긴 자신만의 장점, 비법이 있나요?

필사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 끈기가 가장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상황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활동이나 선택에 있어서도 유리한 전략을 짜는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프고 난 뒤에 장점이나 비법이 생겼다기보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을 때 '금방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가만히 놔뒀다가 병이 커져 심각해진 거거든요. 진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세요!! 마지막으로 아픈 거 방치하지 말고 좀 이상하면 꼭 병원 가서 빠르게 해결하세요!!! 공부하는데 정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문학 이즈 마이 라이프 김유진

Q1. 문학소녀라 해서 책을 읽으신 것뿐만 아니라 작품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작품을 만드실 때 주로 어떤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셨나요?



우리의 빨간 심장은 뛴다고 느껴질 때보다 멈추어 있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으며 그 붉은 정지를 부수고 생성되는 새파란 박동이 늘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 것은 사랑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가 많은데 저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내적 갈등에 얽힌 이야기들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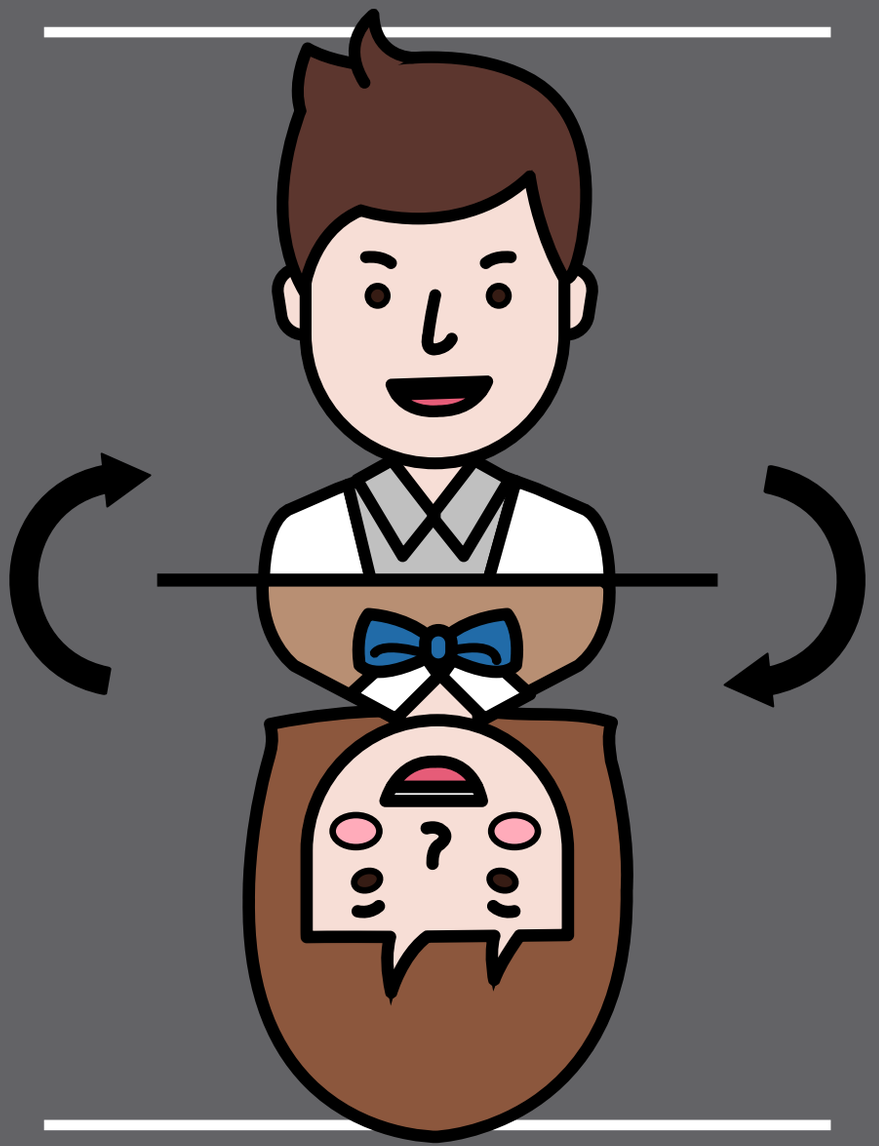
그런 이야기를 쓰고 나면 난해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 아직은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목소리라 그렇습니다. 저도 창작 초기에는 제가 왜 그렇게 언어를 꼬지 못해 안달인지 몰랐으나 생각해 보니 스스로의 목소리 앞에 떳떳하지 못한 까닭인 것 같아요. 원관념을 몇 겹으로 꽁꽁 숨겨서 쓰니까 독자 입장에선 읽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 해석해주었으면 하면서도 해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Q2. 작품 활동하신 것 중에 후배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소개하고 싶은 글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 급기야는 책장에 꽂혀 있던 창문 문집을 뒤적이다가 '카시오페이아'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학년 때 쓴 시입니다. 나른하게 미쳐가는 하루 끝에 기숙사로 돌아온 열여덟 살의 저는 왜인지 몰라도 옛날 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 돌연 멈춥니다. 그 페이지에는 친구네 집에서 외박하던 겨울날, 옥상에 담요 하나 깔고 누워서 밤하늘에 잔뜩 뜬 별들을 구경했다는 내용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신 돌아갈 수 없는 밤하늘과 별들과 목소리와 평화와 평안이 있었어요. 따뜻한 추위가 있었어요. 그 순간의 내가 부러워서 죽고 싶었는데 진짜 죽을 수는 없으니(ㅋㅋ) 대신 시를 썼고요. 오로지 그 순간만을 추억하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 중 기억나는 건 전부 시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카시오페이아자리 찾아봐" 이거였어요.

제가 왜 이 시를 소개하기로 했는지는 친구들이 직접 시 전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현재 부크크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시집 '창문'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ㅋ

학생 X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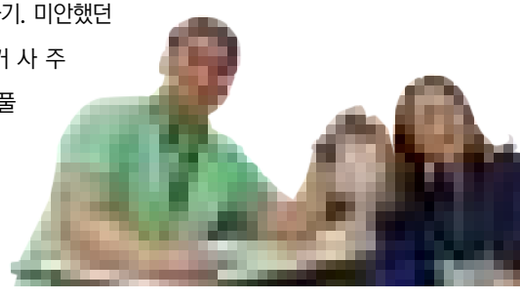
곽선진 x 이중언 선생님
& 이다영(2) x 천도현 선생님

서로의 몸이 바뀐다면?

이중언 선생님 선진이가 SM기질이 있어요. Small Mind.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찾아낸 다음, 본인이라 못했던 것들 지르기.

천도현 선생님 현재 다영이가 신청한 각종 대회들이나 활동들을 다 조사하고 경중을 따져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취소하기. 미안했던 친구들 매점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 주기, 불편한 관계였던 친구들과 풀어주기, 그리고 안 풀리면 때려치우기.

이다영(2) 저만 볼 수 있는 덕질용 애교 영상 만들기.



조성현, 박동주, 이중언쌤이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할 것인가?

곽선진 아주 간단하죠. 중언쌤께서 왕년에 수영선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엔 박동주, 오른쪽엔 조성현을 끼고 중언쌤을 타고 나오겠습니다.

이중언 선생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다 여차하면 내가 빠트려 버릴 수 있다?

학생 자랑 해 주세요.

이중언 선생님 보통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답을 다 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받고 싶거나, 그냥 같은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거나. 그래서 돌아가도 잘 바뀌지 않는데, 선진이는 잘 듣고 변화나 개선을 해요. 메타인지가 뛰어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곽선진 투자 펀드를 하겠습니다.

학생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천도현 선생님 건강, 특히 스트레스. 건들여왕으로 유명한데, 나랑 중언쌤도 이것저것 건드리고 다니는 건들남이라 겉으론 티 안 내도 속 으로는 막 곪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내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걱정되기도 해요.



이다영(1) x 정주원 선생님

서로의 매력 포인트는?

정주원 선생님 순수함.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굳이 잔머리를 안 쓰는 거. 사람을 딱 그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냐 아니냐에 관심 없는 거.

이다영(1) 츤데레. 첫 번째 정식당 하던 날에 제 친구랑 같이 쌤한테 애교 부리면서 달라고 했는데 쌤이 "싫어" 하시고 문을 쾅 닫으셨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쌤이 문을 여시고 떡볶이 한 그릇 담아서 주셨을 때 느꼈어요.

정주원 선생님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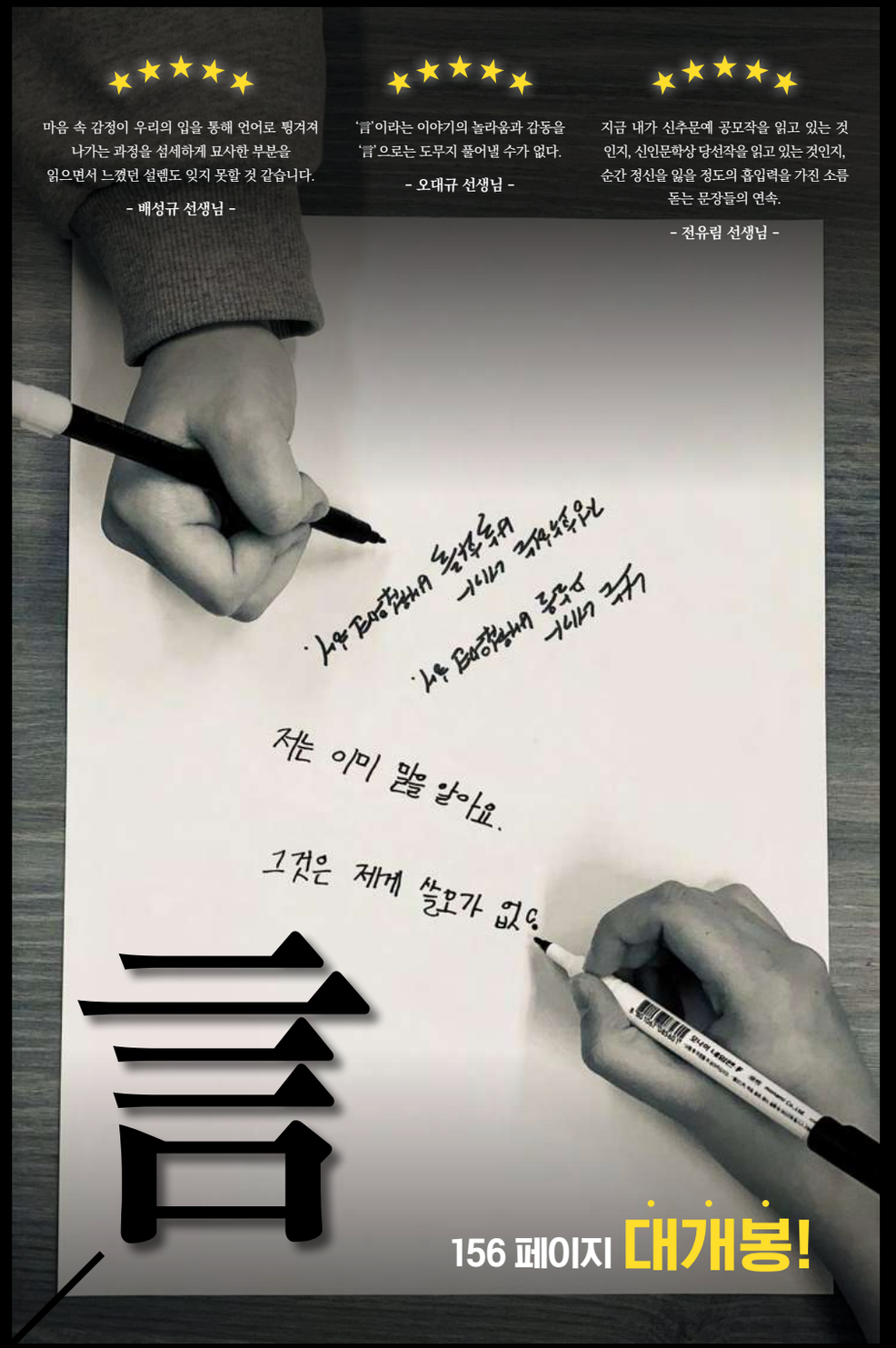
이다영(1) 화장을 많이 줄여서 아침에 잠을 더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화장하는데 원래 20~30분 걸리거든요.

덕후가 되길 제일 잘했다 싶은 때가 있다면?

이다영(1) 나름 수학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정주원 선생님 뿌듯했어.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싶어서.





2
선생님 다섯고개

〈임혜연 선생님〉 Isabel 이사벨



- 나는 1+1=2 라고 확신하는 이과 여자이다.
- 나는 차가운 핫초코이다.
- 나는 이과의 어머니다.
- 나는 츤데레 여왕이다.
- 나는 단발머리다.

〈이강붕 선생님〉 Logan 로건



- 나는 춤과 음악을 좋아한다.
- 나는 '천재' 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린다.
- 연관 검색어 : 뽕뽕이, 붕붕(김하온), 붕어빵
- 나는 전자랜드 선수들 사이에 껴 있어도 위화감이 0이다.
- 나는 전자칠판 필기 시 형형색색의 펜을 이용한다.

〈이지혜 선생님〉 Victoria 빅토리아



- 나는 애교덩어리입니다.
- 나는 항상 하이텐션인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 나는 전인교육부에서 제일 예쁘다.
- 나는 세균을 잘 그린다.
- 나는 꽃반지파의 꽃이다.

〈배준범 선생님〉 Henry 헨리



- 나는 달리기가 빠르다.
- 나는 하늘고 체육 짱이다.
- 나의 패션 감각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 나는 배드민턴 스포아츠를 담당한다.
- 나는 마루운동을 아주 잘 한다.

〈김승호 선생님〉 Steven 스티븐



- 나는 다양한 와이셔츠 색깔을 갖고 있다.
- 나는 내시(후궁) 연기 장인이다.
- 나는 학창 시절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 나는 하늘 디스패치 기자이다.
- 나는 한때 wow 랭커이다.

〈이상미 선생님〉 Hijab 히잡



- 나는 수업을 영어로 한다.
- 나는 앞머리를 넘기고 다닌다.
- 나는 위아래 특이한 옷이 많은데, 신기하게 매칭이 잘 된다.
- 나는 첼로 수제자이다. (FEAT. S ORCHESTRA)
- '부좡님~'

〈이형주 선생님〉 Aiden 에이든



- 주리를 틀어라!
- 나는 고문장인이다.
- 나는 한의사급으로 맥을 잘 짚는다.
- 나는 SK를 싫어한다,
- 나는 포켓몬 뮤츠를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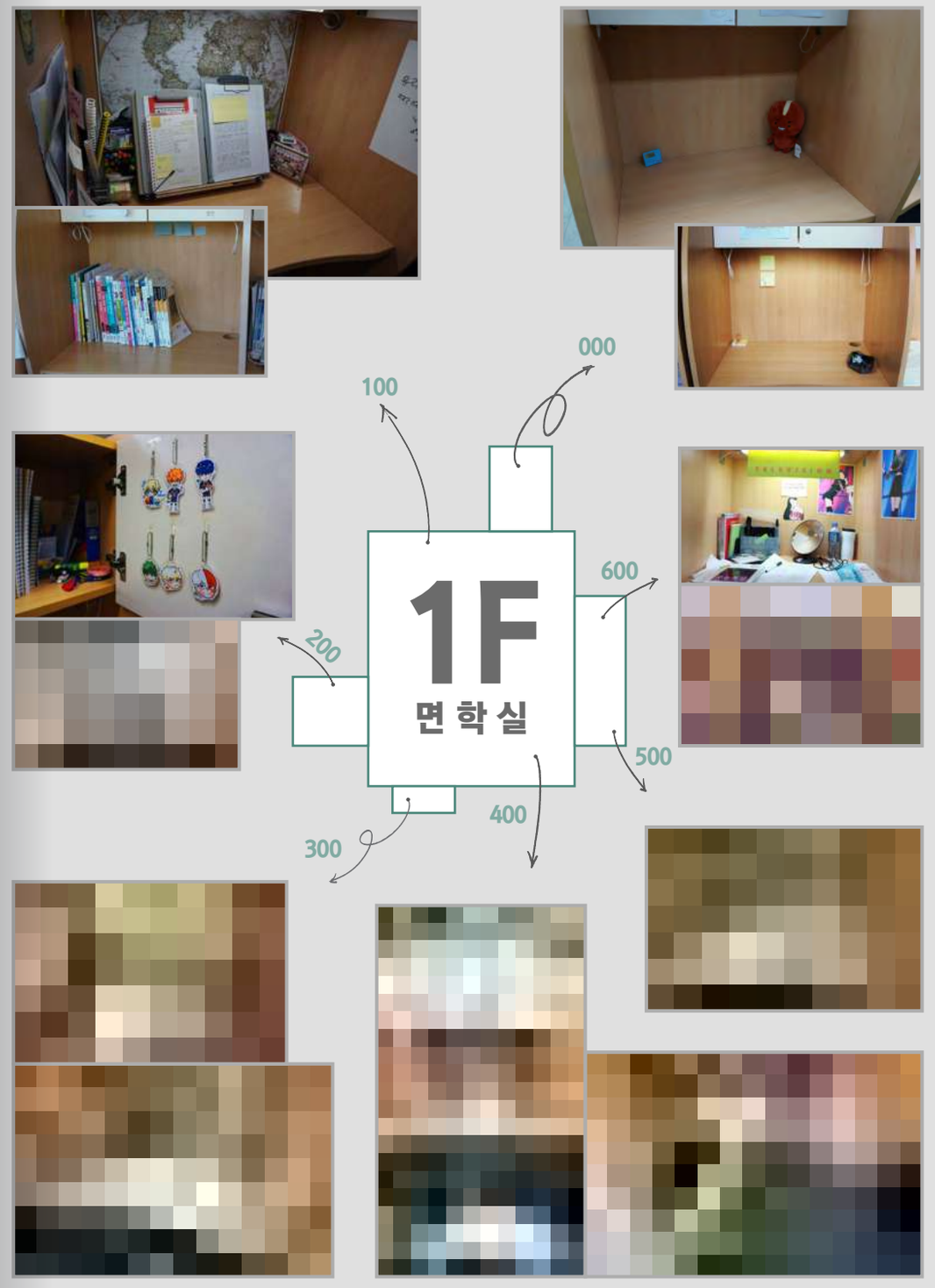
하늘고 칠진분류법

하늘나래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다양한 종류의 면학실, 홈베이스, 선생님 책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장소를 보다 빠르게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도서관에서는 '칠진분류표'를 만들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1층에서는 공석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책상부터 세상 모든 것의 집합소를 표방한 자리까지 다채로운 면학실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2층은 홈베이스의 공간입니다. 홈베이스와 면학실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제2의 냉장고로 불리는 홈베이스부터 책과 파일이 너무 많아 문조차 닫히지 않는 용량 초과 홈베이스까지, 학생들의 개성 넘치는 공간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3층에는 선생님의 책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고의 라이언, 김승호 선생님의 풍부한 카카오 책상, 건강식품으로 가득 찬 남영쌤의 책상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면학실, 홈베이스, 선생님 책상을 하늘나래 도서관에서 확인하십시오.

글 · 엄유선

〈하늘나래 도서관 칠진분류표〉

코드 번호	내용
000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100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200	덕후들의 성지, 덕질을 위한 공간
300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공간
400	The LOVE(더 럽)...♥
500	제 2의 냉장고
600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공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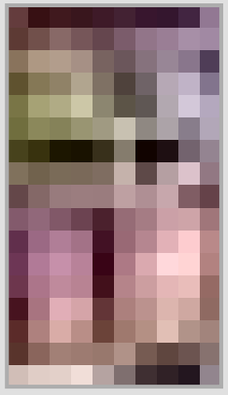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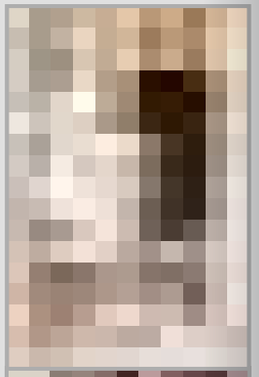
2F
홈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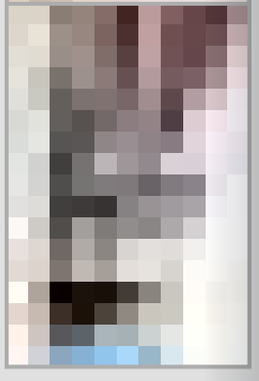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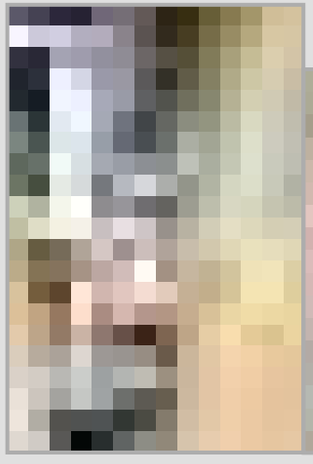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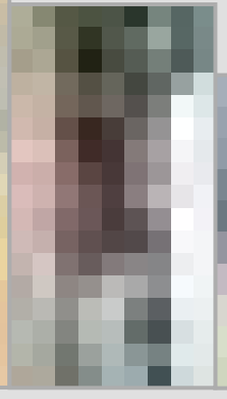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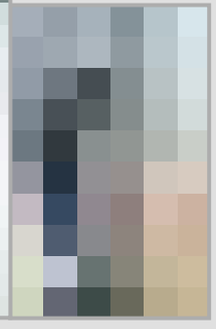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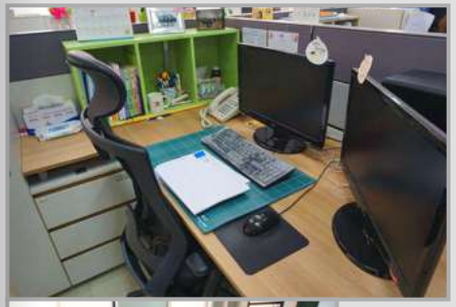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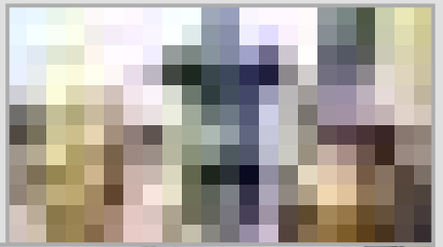


















100

200

3F
선생님 책상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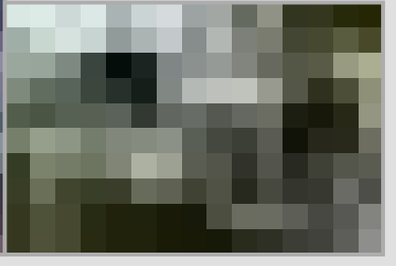
40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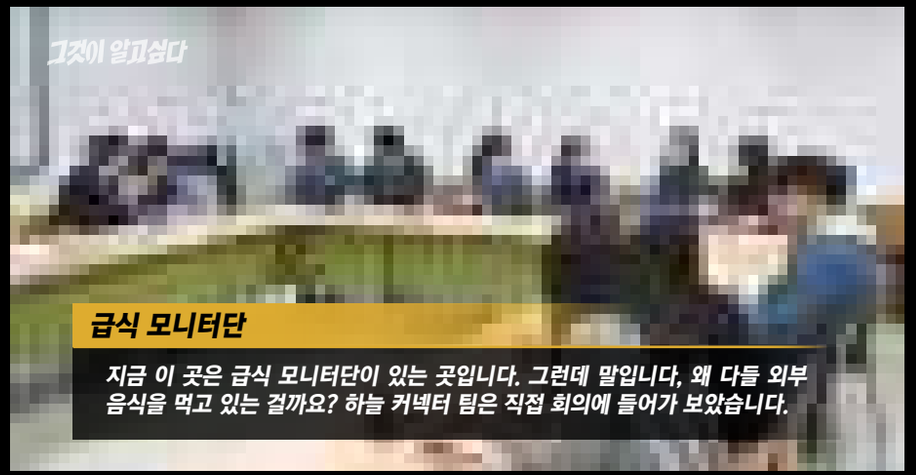


그것이 알고싶다

하늘고, 그것이 알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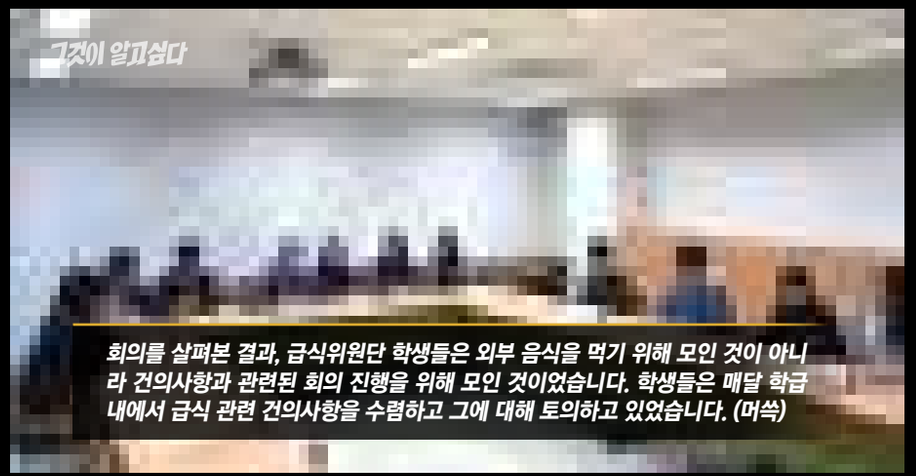
"하늘 고등학교 내에는 다양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수많은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말 일을 하고 있을까요?"

글 · 장유리



급식 모니터단

지금 이 곳은 급식 모니터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다들 외부 음식을 먹고 있는 걸까요? 하늘 커넥터 팀은 직접 회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회의를 살펴본 결과, 급식위원단 학생들은 외부 음식을 먹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과 관련된 회의 진행을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매달 학급 내에서 급식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그에 대해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머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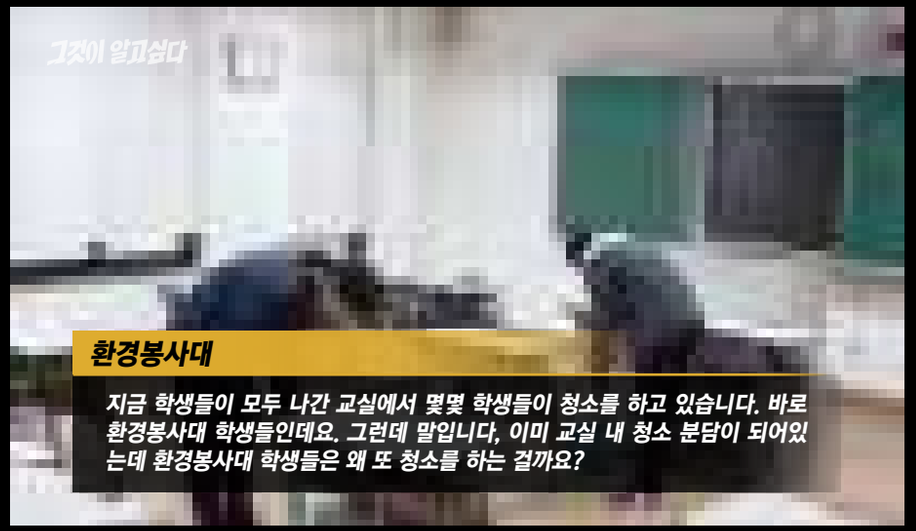


저희는 오랜 수소문 끝에 사법 위원 학생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식실에서 급식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사법위원 학생들이 급식지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의문이 든 하늘 커넥터 팀은 사법위원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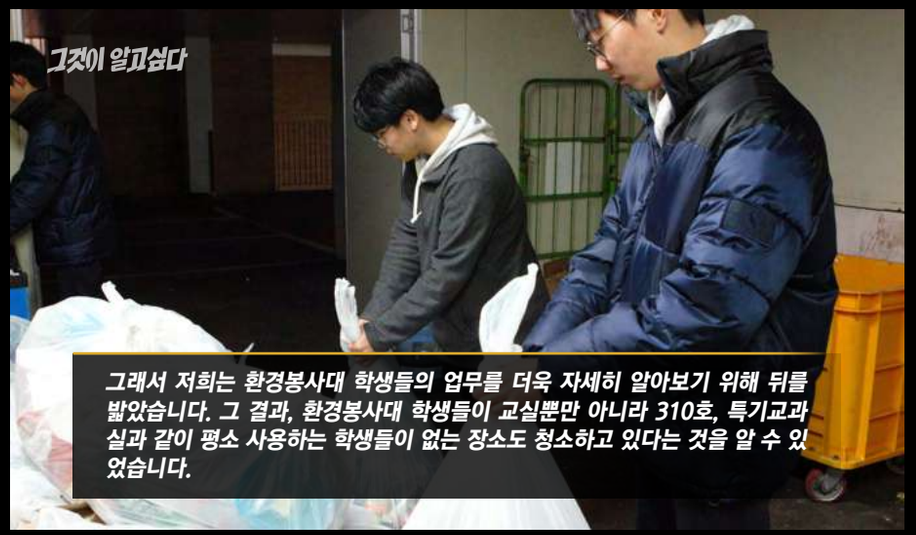
사법 지도

안녕하세요, 사법 위원회 학생입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을 위한 잔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잔반 캠페인이 학생들의 선도활동 중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늘 자치법정의 경우도 저희 사법 위원회에서 중심을 이루어 진행한 활동입니다.



환경봉사대

지금 학생들이 모두 나간 교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봉사대 학생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교실 내 청소 분담이 되어있는데 환경봉사대 학생들은 왜 또 청소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봉사대 학생들의 업무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뒤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환경봉사대 학생들이 교실뿐만 아니라 310호, 특기교과실과 같이 평소 사용하는 학생들이 없는 장소도 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만 같았던 위원회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더더욱 멋진 활동을 해내길 기대하며,
오늘의 <하늘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마치겠습니다.

개인 광고면입니다.

하늘고
저스틴 비버,,★

내가 JUSTIN 이다!!!!!

붕~붕~ 소리가 나면,
JUSTIN의 쌍절곤이
리듬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대 바닥에
JUSTIN이 누우면 그의
노래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SEASIDE PARK에 바람이 불면
JUSTIN의 SKATEBOARD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버리기 아까워서..



하늘고,
음악이 있는 곳

엘레강스 하늘고
S Orchestra

하늘고 공식 열정남 김지훈 선생님(feat. 독일 유학파)과 함께하는 S Orchestra 부원 모집 홍보를 할 당시, 사실 기대감보단 걱정이 더 컸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S Orchestra에 관심을 가져 주었고, 최종적으로 약 50여명의 부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순수하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우리는 토요일 스포아츠를 마친 후, 2시까지 김지훈 선생님의 지휘 아래 연습을 진행했다. 악기를 처음 잡는 친구부터 오랫동안 악기를 배운 친구까지 실력은 제각각이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 그 열정 덕분인지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과 하늘인에게 극찬을 받은 로비 음악회부터 학교 입학 설명회 공연, 학술제 공연 등 여러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글 · 박신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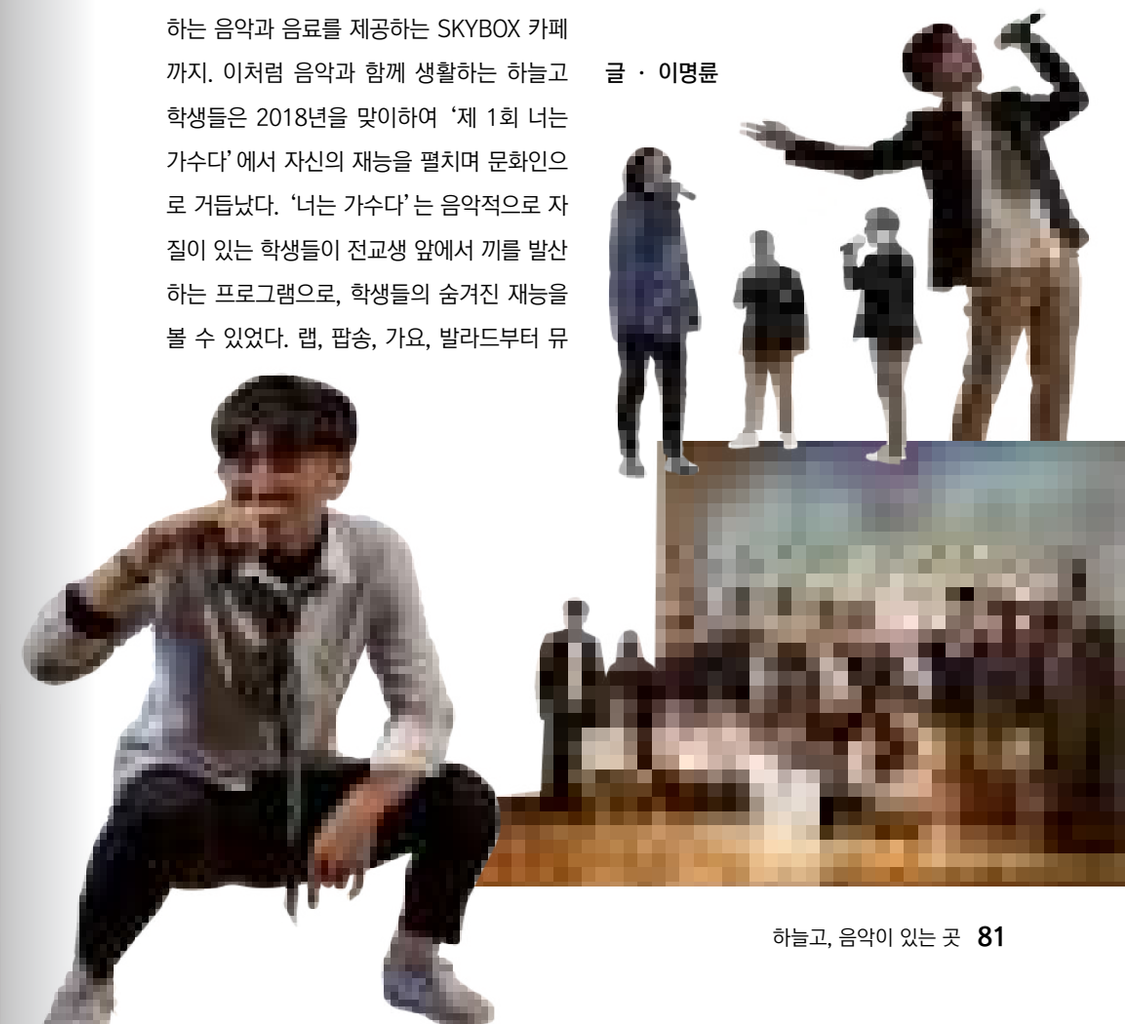




하늘고,
영원히 칸타빌레

칸타빌레 [cantabile]. 사전용어로 '노래하듯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하늘고 학생들의 모습과 닮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기상송부터 점심시간 이후 학생들이 원하는 음악과 음료를 제공하는 SKYBOX 카페까지. 이처럼 음악과 함께 생활하는 하늘고 학생들은 2018년을 맞이하여 '제 1회 너는 가수다'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문화인으로 거듭났다. '너는 가수다'는 음악적으로 자질이 있는 학생들이 전교생 앞에서 끼를 발산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볼 수 있었다. 랩, 팝송, 가요, 발라드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노래하며 학생들과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울고 웃는 시간이었다. 음악이 있는 곳 하늘고, 영원히 칸타빌레!

글 · 이명륜










하늘인들의 힐링 공간 “SKYBOX”



김지훈 선생님 인터뷰

SKYBOX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지훈 선생님 : 학교에 학생들이 쉴 곳이 없어서, 점심시간에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올 때 가장 뿌듯해요.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얼마 정도인가요?

김지훈 선생님 :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매일 50명은 훌쩍 넘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용을 자주 하시나요?

김지훈 선생님 : 네, 그럼요. 교장, 교감선생님도 오셨고, 경훈쌤, 상미쌤 등 많은 선생님께서 이용하고 계세요. 아까도 다녀가셨어요. 승우쌤께서도 옆에서 협력 중이십니다.

김승우 선생님 인터뷰

본인의 역할을 말씀해주세요.

김승우 선생님 : 음악쌤과 함께 SKYBOX를 운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웃음)

옆에서 지켜보니 커피를 굉장히 잘 만드시던데, 혹시 우려내는 거 배우신건가요?

김승우 선생님 : 네. 원래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에 있는 커피 내리는 장비들도 다 제 거구요. 작년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리스타 연수가 있어서, 호텔에서 직접 연수 받으면서 배웠죠.



교감쌤의 현대사 한 토막

『10 • 26에서 5 • 18까지』

"박정희대통령각하께서 유고이십니다..."

1979년 10월 27일 아침. 평소처럼 아버지가 켜 놓으신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잠을 깼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아버지, 유고가 무슨 말입니꺼?"

"사고가 났단 말 아이가. 사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는 '서거'로 바뀌었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께서 복도에 삼삼오오 둘러서서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계셨다. 잠시 후 교무주임 선생님께서 침통한 어조로 교내 방송을 하셨다.

"어린이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박정희대통령각하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도록 합시다."

교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정희대통령각하!

태어나서 국민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대통령은 박정희라는 이름밖에 없었다. 마치 세종대왕과 같은 존재였다.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지으신 것처럼 박정희대통령은 '새마을 노래'와 '나의 조국'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 나랏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는 이미 열흘 전부터 감지되었다. 내가 살던 부산에서는 10월 16일 발생한 대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18일 새벽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사회 시간에 얼핏 들


東亞日報
朴正熙대통령 逝去
전국에 非
大統領權限대행
어제저녁7시50분
車警護室長등 5명
國民동요 없도록
青春保険
대한생명


東亞日報
光州데모사태 닷새째
總理署理에 朴忠勳
11部長官更迭 轉任 8部
인접市郡번져

었던 비상계엄이라는 말은 어린 우리에게 무장한 군인들이 시장통과 거리를 장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평소 12시였던 통행금지 시간이 10시로 앞당겨졌다. 당시 나는 친한 친구 5명이랑 같이 친구의 대학생 형으로부터 과외를 받고 있었다. 우리는 형에게 물었다. "와 대학생들은 데모를 해서 시끄럽게 하는 겁니꺼. 이러다가 북한놈들이 쳐들어오면 우짤라꼬 그랍니꺼?" 그때 그 형의 대답은 충격이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개악당이다."

대통령 장례식 이후 세상은 급속히 바뀌어갔다. 그때까지 교과서에서 최고의 헌법이라 배웠던 유신 헌법을 바꿀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다음 대통령은 3김씨(김영삼,김대중, 김종필) 중에서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해가 바뀌고 3월에 난 중학생이 되었다. 빡빡머리에 검정색 제복을 입었다. 국민학교와는 너무 달랐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지도부' 완장을 찬 선배들의 폭언과 폭력이 횡행했



중1. 교모 쓰고 체육복 입고 봄소풍을 갔다

다. 군대같이 질서가 꽉 잡힌 학교와는 달리 사회는 매우 어수선했다. 신문 방송에는 대학생, 노동자들의 데모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던 5월 어느 날 아침 또 한 번 충격적인 뉴스가 들렸다.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던 3김씨 중에 두 사람이 모두 계엄사령부에 잡혀갔다고 했다. 그 중에 특히 김대중 씨가 학생들을 선동해서 내란을 일으키려했다는 계엄사의 발표는 어린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대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대학생들의 시위는 잠잠해졌다.

그 무렵 과외하러 갔던 친구 집에서 충격적인 TV 영상을 보았다. 친구의 형과 같은 대학생인 형의 친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일본 방송 뉴스였다. 당시 부산에서는 안테나만 잘 설치하면 일본 방송이 어렵잖게 잡혔다. 무장한 군인들이 타고 온 트럭에서 뛰어 내리는 모습, 머리에 피가 어지럽게 흘러내리는 채로 군인에게 잡혀 끌려가는 남자의 모습, 골목길 한쪽 벽에 피 흘리며 벽을 집고 고개 숙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 "형님, 이기 뭡니꺼? 일본입니꺼?" 라고 묻는 나에게 형은 독기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저기 지금 우리나라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나쁜 놈의 새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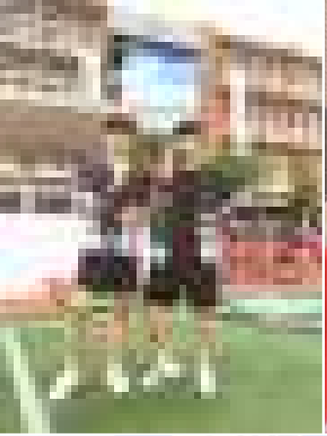
모든 게 심각하게만 느껴지던 대학교 1학년. 고적 답사 중 윤봉길의사 기념탑 앞에 앉아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삶에 대해 생각했다.

5월말이 다 되어서야 나는 그날 그 모습이 당시 용어로 '광주사태'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대학교 1학년이 된 1986년 5월. 학생회관 한켠에서 상영된 광주비디오를 보며 6년 전 그 날의 참상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그렇게 광주는 우리 역사 속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로 자리 잡았다.

글 · 이영종 선생님




















3
선생님 다섯고개

〈이지현 선생님〉 Antonio 안토니오



- 나는 롯데월드에서 버스를 놓쳐 버려졌다.
- 나는 선인장남이다.
- 나는 지리는 남자이다.
- 나는 수능보다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
-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적어 두어야 한다.

〈정주원 선생님〉 Uncle Sam 엉클 샘



- '야 이럴 거면 자퇴해.'
- 나는 포카칩을 사랑한다.
- 라면 하면 나다.
- 상담 받고 대학 가자.
- 최고보다 최선을.

〈배성규 선생님〉 Oscar 오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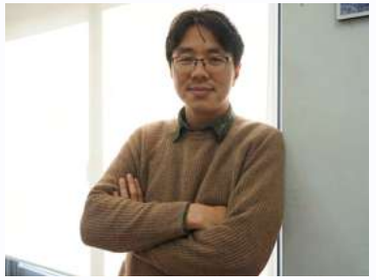
-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 알기 힘든 필기체와 오른쪽 칠판에만 판서
- '동의하니?'
- '선생님이 좀 화가 나요.'
- 나는 썰공장이다.

〈김승우 선생님〉 Thomas 토마스



- 나는 지훈쌤이랑 베프다.
- 나는 SKY BOX 사장님이다.
- 절뚝절뚝(집사람이 다시는 축구하지 말래요..)
- DX시인과 나.ttf 애용
- 나는 당황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눈을 크게 뜬다.

〈최상규 선생님〉 Nicolas 니껄라스



- 나는 교무실의 혼자만의 라이벌이 있다.
- 나는 앞자리 학생의 먹을 것을 항상 뺏어 먹는다.
- '듣고 있냐?'
- 나는 아들의 성대모사를 잘한다.
- 나는 학생들이 교무실에 오면 뭐 보다 걸린 것처럼 '뭐, 왜?' 라고 한다.

〈이영종 선생님〉 Edward 에드워드



- 나는 하늘고 대표 페북러이다.
- 나는 세련된 중년미의 대명사이다.
- 나는 꼬부기를 닮았다.
- 나는 인자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 나는 매력 넘치는 사투리를 구사한다.

〈송남영 선생님〉 Ammy 에이미



- 나는 상규 쌤과 콤비갑이다.
- 나는 하늘고 문채원이다.
- 마무리는 항상 '그렇죠? 네~' 이다.
- 수업시간에 만담 토크녀지만 방과후에는 빡세게 달린다.
- 나는 교무실의 숨은 1인자이다.









하늘고 전파를 타다

EBS 장학퀴즈

지난 10월. 하늘고등학교 학생 약 150여명은 EBS 장학퀴즈 촬영을 위해 일산 EBS 사옥으로 향했다. 촬영 초반부터 펼쳐진 조병교 학생의 비트박스와 전찬웅 학생의 뮤지컬 공연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최진혁 학생의 재치 있는 입담은 이후 전파를 타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결승전에 진출한 박재연 학생과 조국호 학생의 선의의 경쟁을 볼 수 있었고, 최종 승리를 거머쥔 조국호 학생은 왕중왕전에서 전국 1등으로 당당히 올라섰다. 도라지 오남매 팀 또한 전국 3등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거두었다. 학생들의 숨겨진 끼와 능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자, 꿈과 열정으로 빛나는 우리 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던, 하늘고등학교의 EBS 장학퀴즈 출연이었다.

나는 '도라지 오남매'라는 팀명으로 장학퀴즈에 출연하게 되었다. 방송 당일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화랑도'라는 주제 하나였고, 심지어 스타워즈로 가면서는 '순우리말'처럼 더욱 주제가 난감해졌다. 사실 객관식 중에는 찍어서 맞춘 문제도 몇 문제 있었지만, 주관식을 맞추면서 약간의 스릴도 존재하였고, 특히 마지막 문제를 풀 때는 재미있기도 했다.

장학퀴즈라는 큰 이벤트는 나의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것이고, 함께 준비했던 친구들 역시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것이다. 역사 분야의 문제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신 승호쌤, 머나먼 대전까지 함께 와준 7대 학생회 친구들과 이하늘 친구, 함께 와주신 조기성 쌤과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교감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글 · 조국호, 김수현

법원 골든벨

나는 도전 골든벨 913회(18.09.09방송)에 '33번' 번호를 달고, '초록색 모자'를 쓰고 출연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거의 11시간을 내리 촬영했는데, 방송 이면의 길고 복잡한 과정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지칠 때까지 문제를 풀었고, 문제마다 제시되는 엄청난 힌트 덕에 답을 몰랐던 문제조차 자신 있게 적을 수 있었다. 나는 35번 문제에서 결국 탈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도전 골든벨〉 방송에 출연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 같다.

글 · 이다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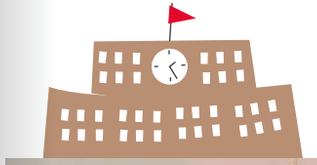


















학술제

8팔한 청춘의 꿈, 너만의 색으로 7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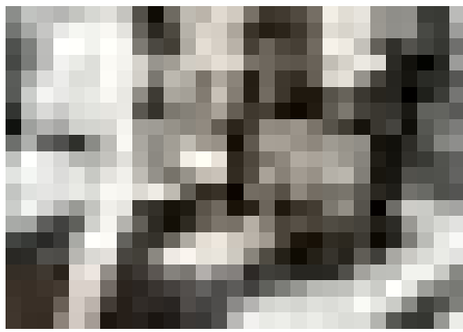
학술제 첫째 날, 즐겁지 않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간.

모두가 기대하던 하늘고의 학술제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학술제의 첫째 날에는 최우수 논문 발표 및 TEDx HANEUL, 그리고 동아리 부스가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진행된 'S Orchestra' 단원들의 아름다운 연주는 학생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하늘고 내의 소문의 특성'을 연구한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다. 하늘고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에 지루함 없이 들을 수 있었다.

'Re-' 를 주제로 한 'TED x HANEUL' 강연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우등생 1학년 김윤서 학생, Lawgics의 기장 엄유선 선배님, 그리고 우리의 한문 선생님이신 최상규 선생님이 강연을 했다. 모두 유명한 강연자 못지않게 완벽한 강연을 펼쳤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난 뒤, 학술제의 하이라이트! 동아리 부스. 'Bio-Farm의 방탈출', 'I-COM의 드론 레이싱' 뿐만 아니라 약 20개의 동아리들이 준비한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글. 경성윤

학술제 둘째 날, 하늘人의 청춘을 한 편의 화폭에 담아내다.

하늘人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려왔을 학술제 둘째 날이 밝았다. 오전에 이루어진 논문 발표에서는 왜 '학술제'인지를 증명하는 듯 수준 높은 논문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개인부스에서는 3-1 선배들의 부스(박동酒막)까지 함께한 덕에 여기저기서 하늘머니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다양한 악기들과 보컬까지 총 출동해 선보인 스포아츠 공연과 '쌤의 목소리가 보여' 코너는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이어진 무대는 '니가 알던 하늘人이 아냐!', 반별 코스프레 무대였다. 셀럽파이브, 선녀와 나무꾼 등 엄청난 완성도를 보인 1학년들의 무대, 프레디 율민Lee의 보헤미안 랩소디, 하늘고 가요제 대상에 빛나는 영종(도)의 딸 이여원 학생을 앞세운 2학년 3반의 무대에 우리의 배꼽은 갈 곳을 잃었다.

저녁식사 이후 '전국! 하늘자랑!'이 진행되었다. 1년간 다들 학술제 준비만 했는지, 넘치는 끼를 주체할 수 없는 듯 했다. 뮤지컬 배우 전찬웅 학생을 비롯해, 댄동&힙동&밴드부 등 수많은 무대 덕에 눈, 귀, 그리고 온 몸이 춤을 췄다.



글. 이율민















별다줄

우리 인천하늘고에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바로 별걸 다 줄여 말하는 습성, 줄여서 '별다줄'이다. 필자는 이를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려 한다.

#1 면학 1타임 시작 2분 전…….

A :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헉헉…… 오늘 *유출이냐? **일출이냐?

B : 오늘 ***노출ㅋㅋㅋㅋ

***유출** : 유출은 용출쌤 있는 날의 줄임말이다. 이는 '有'와 '용출쌤'의 합성어로 용출쌤가 직접 면학실에 올라와 감독하는 날이며 위협이 매우 커지는 날이다.

****일출** : 일출이란 일하는 '일'(work)과 '용출쌤'의 합성어로 용출쌤이 생활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날을 말한다. 용출쌤께서 면학실에 올 수 있는 위협이 적으나 언제 어떻게 위협이 도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면학하는 날이다.

*****노출** : 노출은 용출쌤 없는 날의 줄임말이다. 이 단어는 'NO'와 '용출쌤'의 합성어로 용출쌤께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딸과 푸 욱 쉬는 날이다. 그러니 편한 면학 시간과 범법행위를 할 때 덜 쫄릴 것이다. 하지만 호실에서 노트북과 라면을 걸렸다가는 기본벌점과 용출쌤의 개별점 벌점을 따블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교사지시 불이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5점;;;)

#2 점심 시간

A : 오늘 찜닭 몇뚝??

B : 오늘 *1뚝

A : 아 걸러

B : 오늘 점심 안 먹어. **매점에서 라면먹고 ***카뽑으로 ****아몰내ㄱ?

***n뚝** : {n | n=1,2,3}, {뚝 | 뚝=뚝빼기} 1,2,3학년 뚝빼기를 줄인 말로 주로 점심시간에 출몰한다.

****미스** : 각 교과동 모든 층에 분포하는 미디어 스페이스의 줄임말로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카뽑** : 카드 뽑기의 줄임말로 하늘고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도박이다. 매점 아주머니께서 직접 카드를 뽑아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남의 손에 맡겨지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자칫하면 돈이 와장창 깨져 버릴 수 있다는 건 함정)

"도박,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 -공익광고 협의회-

******아몰내** : 아이스크림 몰아내기의 줄임말로 보통 카뽑과 함께 출몰한다.

"선생님 제 2의 직업"



심주석 t

한의사 :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 독차지♡

김민희 t

파티플래너, 다이소 점장, 디즈니 공주

김승호 t

사극배우,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황혜경 t

H백화점 MD, 홈쇼핑 쇼호스트, 구연 동화가

김민철 t

킹스맨 , 해수욕장~

이상미 t

국선변호사, 사파리 직원

류대곤 t

- 목사님
- 양봉업자 : 푸를 닮으셔서 꿀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지혜 t

보험 설계사, 대기업 이사직

김민연 t

- 투자자, 쇼핑 호스트, 공인중개사,
- 동대문에서 바지 파는 사람

김일형 t

- 생명 공학자 : 해피 바이러스의 대가
- 동물원 관리인 : 사랑이

천도현 t

평론가, 드라마 작가, 여행 가이드, 라디오 Bj

오대규 t

작가(판타지 x 시o 소설 o), 연봉 억대 먹방 Bj

김지연 t

- 지휘자 : 미간을 찌푸리고 매서운 눈으로 연주자들을 바라보다가도 원하는 음악이 흐르면 씨익 웃으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
- 의사 : 긴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수술도 빨리빨리하실것같다.

이강붕 t

- 서편제에 나오는 고수
(가끔 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장인의 포스가 느껴진다.)
- 전국 노래자랑 MC : 전구욱~ 노래자랑!! 잘 하실 듯ㅋ

배성규 t

- 태권도장 관장님, 배관공
- 센과 치히로의 행방 불명에 나오는 할머니네 도깨비 3명 : 약간 목소리도 정말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다. 색깔은 다르다.

김경훈 t

- 롤러장 주인
- 영어 선생님 : 스케이트 보드 강사 겸 가수 치곤 영어를 너무 잘함.

전민호 t

- 할리우드 영화감독 : 선글라스 끼고 대본을 말아 쥔 모습이 잘 어울림.
- 항공기 기장, 소림사 사부님

최정우 t

사무직 회사원, 에버랜드 알바
"안전바 올라가열~^^"

김현수 t

피팅모델, 쇼핑몰모델
한달에 1억씩 버는 쇼핑 호스트

최성태 t

전업주부, 프로그램 진품명품 MC

이지현 t

- 마약장수 : 빛에 비친 회색 눈동자의 색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는 얼굴과 매치되어 마약장수같아요.

임혜연 t

경찰 or 군인 : 걸크러쉬, 멋있고, 그냥 최고. 딱 보면 딱 잘 어울림! 목소리의 최적화 ♡

강선이 t

- 현대무용가
- 성우 : 일본 애니메이션 성우 역할을 매우 잘 소화해 내실 것 같음 (헤에~?)

유은환 t

아프리카 tv Bj, 동물원 얼룩말 가이드

김혜민 t

- 물관장(국립생태박물관) : 꼼꼼하시고 플랜을 잘 세우심
- ASMR 유튜버 : 조곤조곤 나긋나긋하게 불면증 구독자들을 모두 완치해주실 듯

Cowie t

- 스테이크 전문 요리사
- 맥도날드 알바생 : 현지인
- 이태원 선지 해장국 알바(서빙)

정아미 t

대학생, 고등학생 전교 회장

이중언 t

쉑쉑버거 점장, 휴대폰 매장 곰돌이 탈 알바

김경희 t

심리상담가 ,유치원 선생님

박은지 t

갤럭시s보이스, 아이폰 시리 음성녹음

김민수 t

건물주

이현영 t

조직 폭력배, 용역, 주식 사기단 단장

이현주 t

- 강성태 (같이 쓴소리하는 공부천재)
- 유학파 요가선생님

이주호 t

- 카레이서 : 어딘가 잘 어울리심.
- 인도 경비원, 인도모델, 인도 개그맨, 간디교 교주

김민경 t

르네상스 시대 왕비

한재홍 t

타코야키 사장, 중언t와 함께 휴대폰 매장 곰돌이 알바 (동글'동글)

이영종 t

환경미화원, 대통령

이형주 t

기계공학자 or 컴퓨터 공학자, 치킨집 사장님

김지훈 t

셰프 : 미슐랭 쓰리스타 정도는 거뜬히 따내실 관상이심

조기성 t

- 발라드 가수, 형사
- 홈쇼핑에서 가끔 비춰주는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 : 홈쇼핑 중에서도 갈치 먹는 그런 장면 *현수쌤이 하는 홈쇼핑에 나올 거 같음.

정주원 t

pc방 사장님, 세제 광고 모델

김창재 t

성우 (...도라에몽...), 부녀회장

김원석 t

- 변호사
- 심리 상담사 : 내려간 눈썹으로 위로

송남영 t

뷰티 유튜버, 헬스장 트레이너

최상규 t

약장수, 설비사

서연희 t

강남 네일샵 원장님 : 네일에 굉장히 신경 쓰시고 웃는 모습이 딱 강남 네일샵 원장님 같다.

전유림 t

- 경찰관 : 닉♡주디 주디유림
- 롯데월드 알바생 : 선생님의 흥과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딱 어울리신 것 같아요.

최승주 t

어피치탈알바, 요정

김승우 t

- 목사님 : HOLY하신 승우쌤 수업하시는 느낌이 설교임ㅋㅋㅋ 헌금 횡령은 안 하실 듯함!



개인 광고면입니다.



제 22대
대통령후보

"월 2회 주 4일제 실시 : 수요일 선택적 휴업-교육과정 외 활동의 날" "교실 천장 스크린을 통해 누워서 학습하는 교실 환경 구축 : 뇌파 감지를 통해 졸거나 자는 학생 발생시 스프링쿨러에서 뜨거운 물 쏟아짐" "덴마크, 스웨덴 수준으로의 국회 의원 연봉 조정 : 이로부터 확보되는 예산은 미세먼지 감축 및 보호 대책으로 전환 - 주당 2회 마스크 무상 분배 등"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발생 미세먼지 감축 : 1. 유엔총회 안건 상정을 통하여 중국 동부 해안 굴뚝들에 미세먼지 필터 의무 설치(필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사용. 중국산 안 됨-이를 위해 지금의 하늘고 학생들은 미세먼지 필터 개발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있을 것 + 국제회의기구 참여자가 되어 있을 것) "10시 등교, 수업 시수 감축 : 일일 6교시 이내로 제한, 자율 면학은 말 그대로 자율에 의한 것. 공부할 학생들만 면학실 및 도서관에 남아 있으면 됨. 단, 면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퇴실 및 정학 조치되며 복학 후 1년 간 면학실 및 도서관 사용이 금지됨.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갈 것." "어린이집 설립 및 확대 추진 : 어린이집 소속 근무자에 대한 세금 감면, 교통비 지원, 연가보상금 200퍼센트 지급. 어린이집 운영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운영 시간은 08시 등원 부터 16시 퇴원까지로 함. 운영 시간 외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사비를 지불해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에게 배꼽인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어린이집은 행정구역 단위와 만7세 이하 인구를 파악하여 차등 설치. 유아 인구에 따라 증설 및 해체 가능. 아동 학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거열형에 처함(사형제도 전면 실시 추진). 학부모 동의하에 아동에게 체벌 가능(단, 전치 1주 이상의 상해를 입힐 경우 정직,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인 경우 파직 조치하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아동이 어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어른은 연간 1회의 죽빵권을 사용할 수 있음(말 그대로 죽빵을 날리는 거임. 1대만 가능.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의 절반은 국가에서 지원함)." "바른 청소년 보호법 도입 : 고성, 욕설, 음주, 흡연, 기물 파손, 상해, 절도, 무단이탈,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온갖 무개념 행위에 대해 적발되거나 신고되는 경우 죄질에 따라 태형 3대~30대에 처하며(태형 집행인은 매년 태릉 선수촌에서 역도 및 유도, 레슬링 선수를 대상으로 선발함), 1년 간 정화조 사회 봉사, '명심보감', '정의란 무엇인가' 원문 및 국문 필사 각10회 및 독후감(규정 서식으로 20매 이상) 제출의 과제가 부여됨(과제는 태형 10대 또는 정화조 봉사 6개월로 대체 가능)" "열정페이 금지법 도입 추진 :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임금 인상 협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연간 순이익의 5할을 국가에서 징수하며, 남은 5할은 사업체 구성원에게 균등 분배함. 고용 계약을 위반하거나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태형 30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얼굴에 먹칠을 한 채 '나는 구라쟁이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여의도 광장에서 일주일 간 10시~15시까지 서 있도록 함.



기호 5 오대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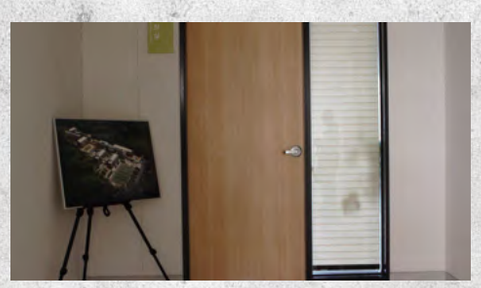
인천하늘고등학교

하늘고와 비밀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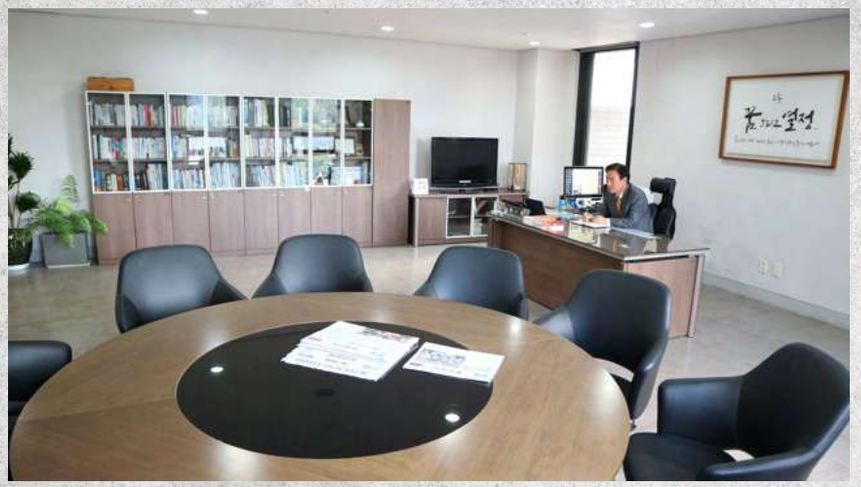
하늘고와 비밀의 방

"고등학교야, 대학교야?" 디자인부터 구성까지 완벽하고 거대한 하늘고에는 비밀스러운 공간들이 있다. 모두가 궁금해 할 비밀 장소를 찾아 떠나 보자!

교장실



하늘고의 해피 바이러스가 계신 교장실을 방문해보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교장실! 교장실에서는 사방의 유리창을 통해 운동장의 경치와 우리의 이웃인 과학고와 국제고를 볼 수 있다. 교장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책상과 그 옆의 커다란 책장은 교장 선생님의 지적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 교장 선생님의 멋진 말씀은 모두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옥상



우리 학교의 가장 꼭대기 층인 5층. 그 곳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있다. 그러나 센서로 잠겨 있어 아마 나가본 학생은 두 손 안에 꼽힐 것으로 예상된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열어보면 우리 학교의 전경을 볼 수 있다. 운동장은 물론, 신도시의 모습도 언뜻 보인다. 화재경보가 울릴 때 열린다는 소문도 있는 이 옥상! 경치가 좋더라도 호기심에 드나드려는 시도는 금지!





샤워실

베일에 싸여져 있는 공간 중 빼놓을 수 없는 곳, 샤워실. 현재 여자 샤워실의 경우, 청소여사님들의 휴게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사용빈도는 줄었지만 가끔씩 선생님들이 샤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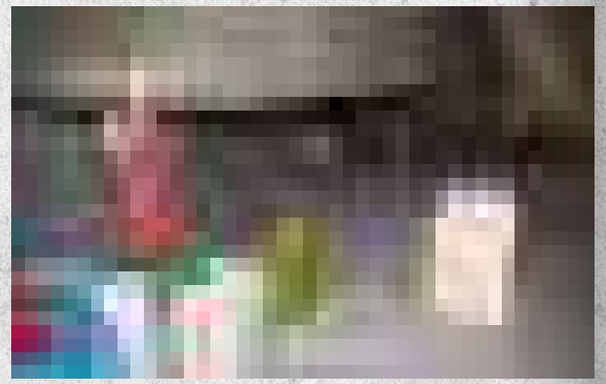






매점 앞 주작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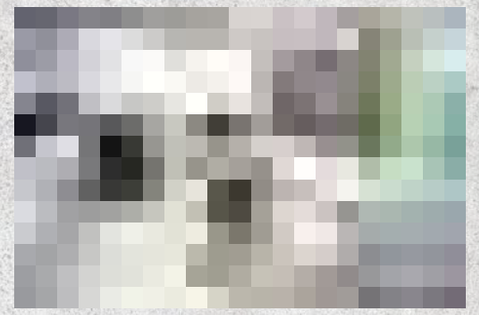
매점 앞 주작대로를 유심히 봤다면, 계단 아래 공간을 눈치 챘을 것이다. 기숙사와 급식실을 수도 없이 다니며 한 번쯤 보았을 저 작은 문!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청소도구 쯤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매점 아주머니 말에 따르면, 다량의 매점 재고가 들어 있다. 저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아주머니의 말씀과는 달리 촬영당시엔 청소도구가 더 많았다.)

인쇄실

가까우면서도 먼 곳, 인쇄실이다. 종이와 프린터로만 가득 채워진 이곳에서는 잉크냄새와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여름에 이곳은 정말로 덥고 후끈후끈한 곳이다. 우리의 소중한 프린트 한 장, 한 장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자.







제어실

제어실, 그곳이야말로 학교를 지배하는 곳, 학교의 심장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은 바깥 부분이 전부. 그러나 뒷문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규모의 지하공간이 있다. 냉난방 시 사용되는 뜨겁고 차가운 공기,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 소방 경보가 울리면 작동되는 소방호스의 물까지 모두 이곳에서 출발한다. '비밀의 방' 하면 빠질 수 없는 지하통로까지 갖추고 있다. 이 지하통로는 하늘고 내에서 못 가는 곳이 없다고 한다. 진정한 비밀의 방, 그곳은 바로 제어실이었다.

글 · 이은규, 함주헌













하늘고 프로 열일러!

어둠과 맞서 하늘고를 안전히 지킨다! 경비실

업무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 평일과 주말·공휴일이 구분되는데, 평일에는 저녁 5시에 출근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곳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생활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본관과 교과동을 소등하고, 외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한 후 휴식을 취해. 주말에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까지 일하지. 학생들이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초소에서 근무를 하니까 주말에는 다소 많은 근무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일이나, 업무 중 힘드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

: 나이가 먹어가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면은 있는데, 그런 면은 정신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어요. 내가 하늘고등학교에 근무한 지가 5년차인데, 학생들이 발전되어가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그러나 학교장님께서 강조하는 하늘고등학교 학생이 품격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조금만 더 잘 따라줬으면 합니다.

(평일) 오후 5시 출근
본관, 교과동 소등
외부 출입문 잠금상태 확인
(주말) 오전 08시 출근 ~
오전 12시 퇴근











하늘의 배고픔은 내가 해결한다! 급식실

업무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 영양사 2명, 조리사 3명, 나머지 조리원 여사님들까지 총 18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간식까지 해야 해서, 제일 먼저 출근하시는 분들은 5시 20분에 학교에 오시고, 제일 늦게 가시는 분들은 10시 20분에 학교를 나서시죠.

영양사 2명
조리사 3명
조리원 13명 (총18명)
오전 5시 20분 출근
오후 10시 20분 퇴근

배식량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 1인 양을 맞춘 다음, 그 1인 양에 맞게 조리를 해서 배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삼겹살 볶음이 9바트가 나오면 3학년, 2학년, 1학년 3바트씩 나눈 후 학생 줄이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음식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해서 배식량을 조절해요. 부족할 것 같은 음식이나 남을 것 같은 음식은 양을 조절해서 최대한 안 남게 해요.

급식실에서 일하시며 힘드신 점이나,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 여기가 여름에는 정말 덥고 겨울에는 정말 추워요. 특히 주방 환경이라는 게, 여름에 정말 덥잖아요. 그리고 여사님들이 이건 꼭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레일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빨대나 요거트 껍질 등을 잔반통에 버리면 꺼내기가 힘들어요. 학생들이 잔반통에 국그릇이나 수저를 다 버리는 것도 힘들고요. 또, 학생들이 배식을 받을 때 식판을 앞으로 안 내면 여사님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셔서 배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정말 아프시대요. 그래서 급식판을 조금 앞으로 하고, 식판을 돌려주면…. 그런 사소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뽀득뽀득 클린~한 옷은 우리가 책임질게! 세탁실

업무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 9시 20분에 출근해서, 오전에 학생들이 내놓은 수건을 먼저 해. 그 다음에는 학년별로 매일 내는 세탁가방을 분류하지. 양말, 속옷, 생활복을 따로 분리 작업하고, 그러고 나면 쭉 세탁을 하는 거야. 오후에는 건조되어 나온 걸 가방에 넣고 티 개고, 퇴근은 6시 20분에 해. 그리고 한 분은 늦게 출근하셔서 7시까지 있지.



오전 9시 20분 출근
수건정리, 세탁가방 분류, 세탁물 분류, 세탁, 건조된 세탁물 정리
오후 6시 20분 퇴근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나, 업무 중 힘드신 점은 무엇인가요?

: 자기 옷을 본인 세탁가방에 내면 되는데 남의 것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 일단 우리가 기록은 해두지만, 주인 찾아 주는 게 힘들어. 남의 걸 여러 장 내는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분류작업을 하면서 주머니를 뒤진 다고 뒤지긴 하는데, 주머니 달린 옷이 많잖아.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생겨. 오늘은 립스틱이 나왔어. 뚜껑이 안 열리면 상관이 없는데, 세탁기가 크니까 물살이 세서 열리면서 다 묻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세제를 만들어서 손빨래를 해야 돼. 이게 힘들지.

그 외에는… 여름이 되면 업무량이 늘어. 티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다 개서 줘야 되니까. 여기 세탁실 내에서는 기기가 6대가 다 돌아가면 청력을 다 잃지. (웃음) 부탁하고 싶은 건, 낼 때 주머니 확인하는 거랑 의뢰서 꼭 써주는 거. 우리가 누락될까봐 정말 여러 번 확인해. 그리고 속옷망에 넣을 건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



하늘고의 숨은 심장! 전산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 하늘고의 정식 명칭으로는 통신기사입니다. 업무는 크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PC, 녹음, 네트워크, 방송, 출입자 관리를 합니다.

정식 명칭 → 통신기사
PC, 녹음, 네트워크, 방송, 출입자 관리

전산실의 업무나 존재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과 소통 또는 접촉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보통 NAC설치로 많이 만나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나 기기고장 때문에 많이 와요. 특히 노트북이 고장 나면 급한 경우에는 제가 노트북을 한 번씩 봐주죠. 주로 저는 동아리 친구들하고 접촉해요. 방송반이나 컴퓨터 동아리, 하임과 같은 종교 동아리 등 주로 서로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이 만나죠.





학교에서 일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 힘들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경우가 더 많아요. 전산실이 규모 자체는 큰 편인데 아무래도 이걸 혼자서 관리하니까…. 지금은 공익요원이 와서 보조해 주고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 수가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에 모두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데 충분히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행정실 쪽으로 얘기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해주신 선생님

이제원 선생님 (인사 업무, 학모 시설 관리)
이선아 선생님 (교복, 방과후, 생활관 업무 담당)
이승주 선생님 (스포아츠 운영, 기숙을 관리)
추선희 선생님 (수련활동, 학생증)



#5 하늘 의 일상생활을 책임진다! 행정실

업무 중 제일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원 선생님 : 엘리베이터 사용카드 반납을 안 해.
이선아 선생님 : 무작정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힘들어. 교복, 방과후에 대해 항의할 때 업무 담당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이승주 선생님 : 스포아츠를 관리하다보면 자는 학생이 너무 많아. 너희가 더 즐겼으면 좋겠어. 건의사항은 현실성 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
추선희 선생님 : 나는 학생증.
이제원 선생님 : 분실 엄청 많지.
선생님들 : (웃음)
추선희 선생님 : 한 달에 20명 정도가 재발급을 받으러 와.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면 은행에서도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하고, 등록하는 게 힘들어. 한 달에 20명 정도면 엄청 많잖아? 절대 분실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재발급까지 들어갔는데 학생증을 찾는 학생들이 있어. 신청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간혹 우편주소를 잘못 써서 다른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아. 우편물, 택배 주소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 학생증만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학생들에게 부탁이 있다면요?

추선희 선생님 : 들어와서 밝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
이선아 선생님 : 행정실에서는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 행정실에 오면 컬러프린트를 해 준다고 오는데, 우리도 최대한 해 주려고는 하지만 무례하게 무작정 해달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제원 선생님 : 부모님을 통한 민원이 아니라, 본인이 와서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좋겠어.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풀려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 다 이해는 되는데, 학생들 스스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승주 선생님 : 악기를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파손, 훼손된 악기는 나한테 와서 이야기 해 줘. 악기가 너무 많아서 파손이 된 게 있더라도 내가 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거든.

| 하늘고를 깨끗하게! 미화여사님 & 기사님

업무 일정과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는 남자 2명 여자 10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모두 면학실과 기숙사를 청소하고 있어. 체육관, 헬스장, 토끼장, 밭도 청소하고. 교실 왁스칠도 우리가 하고 있어.





남자 2명
여자 10명 (총12명)
(월~금) 면학실, 기숙사 청소
(그 외에도 하는일) 체육관, 헬스장, 토끼장, 밭 청소, 교실 왁스칠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체육관 화장실 옆 여자 샤워실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예전에는 여자 선생님들 샤워실이었는데 사용을 많이 안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학생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나면 화장실 안에 휴지가 바닥에 마구 어질러져 있거나, 휴지를 뭉쳐서 천장에 붙인 모습을 보면 많이 힘들지. 그리고 가래침은 굳으면 닦아도 잘 안 지워지는데, 거울이나 바닥에 붙어 있으면 특히 힘들어. 생활관을 청소할 때에는, 쓰레기를 치울 때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것이 책상 위에 있으면 치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해. 쓰레기는 학생들이 바닥에 버려줬으면 해. 그리고 분실물의 경우는 우리가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번외) 교무실 중에서 제일 청소하기 힘든 곳은 어딘가요?

교과 A동 4층 교무실(=1학년 교무실)이 제일 힘들지. 힘들다기보다는 탕비실에서 해 드시는 게 많아서 버릴 것이 너무 많아. (웃음) 그래도 4층 교무실 선생님들이 잘해주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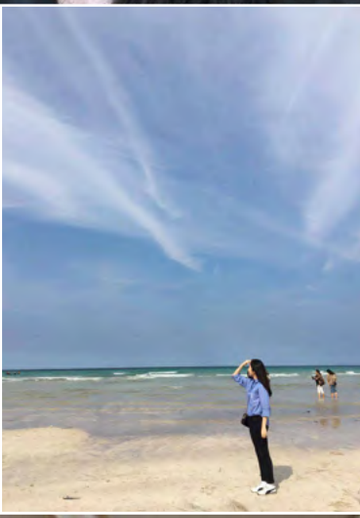

















4
선생님 다섯고개

〈정율이 선생님〉 Ella 엘라



- 나는 종치기 시작부터 끝까지 달린다.
- 나는 자칭 '국민 학교' 출신이다.
- 나는 대박적인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다.
-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시니까요.'
- '~한다요'

〈김민수 선생님〉 Tom 톰



- 나는 기하학적 무늬의 옷을 좋아한다.
- 나는 화나면 입바람으로 앞머리를 분다.
- 심플 자이 저자이자 바이블 집필 제의를 거절했다.
- '내가 몇 년 전이었으면 너네 울고도 남았어.'
- 나는 5월 필수과정은 비오는 날 팔짱 끼고 갬성 타다가 첫사랑 얘기하는 것이다.

〈박은지 선생님〉 Angela 안젤라



- 나는 하늘고의 황민현이다.
- 나는 먼지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
- 나는 연두 요정이다.
- '이녀석들.'
-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최성태 선생님〉 Charles 찰스



- '아시겠습니까?'
- 나는 흥분하면 총총 뛴다. (feat.특유의 바운스)
- '오늘 점심 뭐죠?' (닭이면 한숨)
- '학교는 넘버one만 추구하죠. 여러분은 세상의 only one이 되길 바랍니다.'
- '이것이 바로 편협적인 민족주의 시각입니다.'

〈전유림 선생님〉 Cathy 캐씨



- 나는 분홍색 섀도우를 애용한다.
- 나는 멀대잠이다. (머리만 대면 잠듦.)
- 나는 주토피아 주디를 닮았다.
- 나는 암벽 등반을 한다.
- '휴우~~~~~' (공기반 소리반)

〈전민호 선생님〉 David 데이비드



- 나는 슬픈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미남이다.
- 나는 영화 애호가이다.
- 나는 자칭 30대 이다.
- 나는 코쟁이를 싫어한다.
- 나는 비오는 날을 좋아한다.

〈김일형 선생님〉 Grant 그랜트



- 나는 사랑이 주인이다.
- 나는 동네 이장님같은 친근함의 소유자이다.
- 'NO PAIN NO GAIN'
- 나는 해바다.
- 나한테 말을 걸면 종종 영어로 답변한다.

닮은 꼴 찾기



주변 사람들이 닮았다고 말하기 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나요?

정한나 : 작년 3월, 첫 수업을 들어오셨는데, 바로 '어, 나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미쌤 : 남자 반 들어가니까 애들이 선생님이랑 똑같은 애 있다고, (작년 1학년) 7반에 누구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아니라고 했는데.

(아미쌤에게) 한나를 보면 자신의 학창시절이 생각나나요?

아미쌤 : 아뇨. 머리는 짧긴 했는데…. 한나가 좀 더 활기차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학창시절엔 엄청 조용했거든. 그래서 한나 보면, '저렇게 살 걸, 살아 볼 걸.'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텔레파시

1) 지구과학 vs 화학
정한나 : 화학
아미 쌤 : 화학

2) 문과 남자 vs 이과 남자
정한나 : 문과 남자
아미 쌤 : 문과 남자

3) 단발 vs 장발
정한나 : 단발
아미 쌤 : 단발

(하이파이브)





두 분이 서로 부자지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생활관장님 : 저는 좋은데, 준명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최준명 : 굳이 해명할 필요가 있나…. 사실이죠.

(최준명에게) 관장님 옆에서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드문데, 이번 기회에 생활관 규정을 어겼던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 고해성사 타임!

최준명 : 방에 별로 친한 애들이 많이 없어서 호실이동을 많이 해요. 제가 원래 좀, 동네방네 뛰어다녀서…. 걸릴까봐 늘 쫄리는데,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준명이가 잘 씻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최준명 : 정말 루머구요. 백퍼센트 거짓말입니다.

생활관장님 : 천재성 있는 사람은 조금 잘 안 씻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명이 학생은 피부가 건강한 피부니까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만 하면 괜찮죠. 워낙 잘생겼으니까.



김범수 x 권수민

Q. 서로가 닮아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권수민 :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붙임성이 좋은 선배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범수선배 친구가 절 범수선배로 착각하신 거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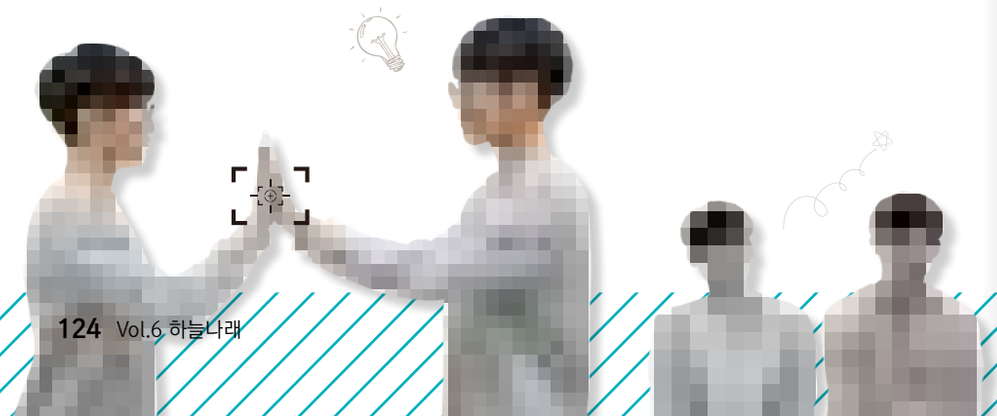
Q.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세요.

권수민 : 닮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걱정했던 게, 저는 1학년 후배고 선배님과 성별도 달라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했던 거였어요.

김범수 : 저는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좀 미안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1년만 버텨라.

++ 비하인드 스토리

섭외를 위해 김범수의 교실인 2-4에 찾아간 인터뷰 진행자. 김범수의 행방을 4반 친구에게 묻자, 저 멀리 복도에서 그는 "누과~ 놜~ 불렀숴~~~~!"를 외치며 다가왔다. 진행자는 그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에 조심스럽게 한 손을 들며 "내가… 불렀는데…?"라고 했고, 그의 성격이 매우 쾌활할 것이라 예상하며 인터뷰의 분위기를 걱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어색함이 가득했던 교지편집부실. 알고 보니, 낯을 심하게 가려서 그런 것이라고….



최승완 x 지상혁

Q. 주변 사람들이 닮았다고 말하기 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나요?

최승완 : 네, 인식하고 있었어요. 축구할 때에도 만나서 같이 물 뜨러 가면서 친해졌고요.

지상혁 : 품격교육 때 친구들이 자꾸 인사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Q. 둘이 같은 동아리 I-co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승완이 지상혁의 면접을 볼 때 뭔가 느낌이 왔나요?

최승완 : 사실 제가 면접을 본 건 아니지만, 총괄 역할을 맡았어요. 상혁이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동아리 활동도 잘 하고요.

Q. 솔직히 서로의 닮기 싫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승완 : 딱히 없어요.

지상혁 : 혼밥하기는 싫어요. (웃음)



이유빈 × 카니쵸니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예요?

이유빈 : 전 과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좋아한다기 보다… 요새 재미 들린 게 카니쵸니 옷 입히기여서.

칸쵸는 거의 안 드시죠?

이유빈 : 네. 옷 입히기만 하고 먹지는 않아요.

++ 비하인드 스토리

조기성쌤 수업시간, 이유빈은 칸쵸를 먹다가 걸렸다. 선생님께서 이유빈의 칸쵸 먹는 소리에 놀라 "수업시간에 칸쵸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다." 라고 하셨다. 이유빈 칸쵸 엄청 많이 먹는다.

카니쵸니에게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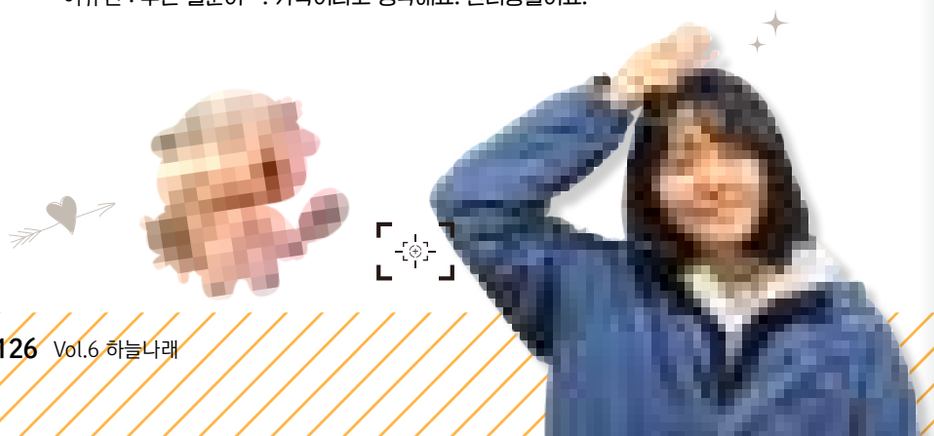
이유빈 : 맛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칸쵸 먹을 때 죄책감은 안 드나요? 칸쵸 중에서 카니쵸니 얼굴이 그려진 것도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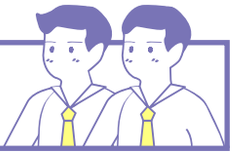
이유빈 : 아, 그냥…. 귀엽게 생겼다,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칸쵸를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남남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빈 : 무슨 질문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이요.



유승원 × 교장선생님



(유승원에게) 교장 선생님은 '해피 바이러스' 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별명 같은 것이 있나요?

유승원 : 별명은 딱히 없고, 말을 느리게 해서 느리다는 말을 듣긴 하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께) 승원이를 보면 자신의 학창 시절이 생각나나요?

교장선생님 : 첫 만남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강한 추진력이나 목표의식, 욕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원에게) 오늘 교장 쌤이랑 인터뷰 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유승원 : 선생님께서 오늘 저와 처음 만나셨는데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교장선생님께서 연설하셨던 것 중, 사과 속 씨앗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도 씨앗에서 사과가 몇 개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지편집부원 친구들에게도 감사해요. 닮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 우리 좀 비슷해.



응답하라 2011~2015

1기 한정호



안녕하세요. 교생으로 얼굴을 비쳤던 하늘고 1기 졸업생 한정호입니다.쇼미에서 마미손은 말했습니다. “복면을 쓴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똘끼를 발산할 수 있다.” 학교에 적응한 친구들은 모두 마미손이었습니다. 이게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스로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고 신선한 인간 스펙트럼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죠. 그땐 학교에서 국물이 없는 컵라면만을 판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들을 시도하는 요리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치즈볶이와 스파게티를 섞어먹으면 진짜 스파게티 맛이 난답니다. 라면의 시대가 열리자 뜨거운 물이 부족해져 다양한 해결법들이 나왔죠. 원시적인 친구들은 ‘뜨거운 물은 다 같은 물’이라며 샤워기의 온수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들도 숨겨진 모습들을 잘 발견해서 개성이 톡톡 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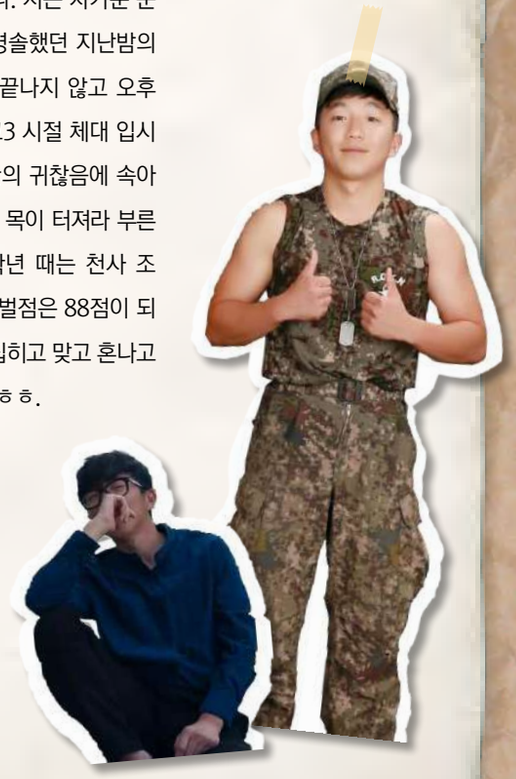
가장 좋았던 것은 친구들과 말도 안 되는 음악을 만든 일입니다. 친구 3명이 모여 저녁마다 기타와 멜로디언으로 아침운동 늦어서 벌점 받는 노래, 저녁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는 친구를 위한 대변 노래, 선생님이 이것저것 챙겨줬지만 6월 모평 성적이 그 모양이라 죄송하다는 노래 등을 만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KAIST 원서에 이 내용을 쓰기도 했답니다. 사실 이런 게 진짜 자기주도적인 활동이죠.

하늘고에서 어떤 사람은 매일을 괴롭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즐거운 생활을 해요. 하늘고에서의 생활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창의성을 깨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뻔하게 살아가지 말고 자기 색깔을 찾는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등급이나 대학보다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2기 민경훈

이형주 선생님은 제 12년 학교생활 중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입학 전 선수학습 때부터 학교에 꼭 한명씩 있는 호랑이 선생님이신 형주쌤께서 1학년 담임을 맡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발 저 선생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좌지우지 되는 반배정 날, 맙소사! “민경훈~ 1반(형주쌤)~” 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웃음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형주쌤은 생각보다 아주 유쾌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첫사랑의 이별 통보로 마음 아파하던 제 반항심은 벌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형주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점을 받은 날이면 1교시 쉬는시간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1학년 1반 민경훈 교무실로 오세요~” 그러면 2,3,4반 친구들이 모두 복도로 나와 박수를 치며 힘내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의 형주쌤 옆에 엎드려 1분 1초의 소중함과 경솔했던 지난밤의 취식과 호실이동을 반성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오후 7시 반에 체육관에서 체력단련을 받았습니다. 고3 시절 체대 입시 준비 때도 흘려보지 못한 양의 땀을 흘리며 순간의 귀찮음에 속아 나가지 않은 아침체조, 가수를 꿈꾸지도 않으면서 목이 터져라 부른 걸그룹 노래를 가슴속 깊이 후회했습니다. 2학년 때는 천사 조기성 선생님을 만나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었고 벌점은 88점이 되었습니다. ㅎㅎ 고3 때 다시 형주쌤을 만났고, 꼬집히고 맞고 혼나고 벌을 받으면서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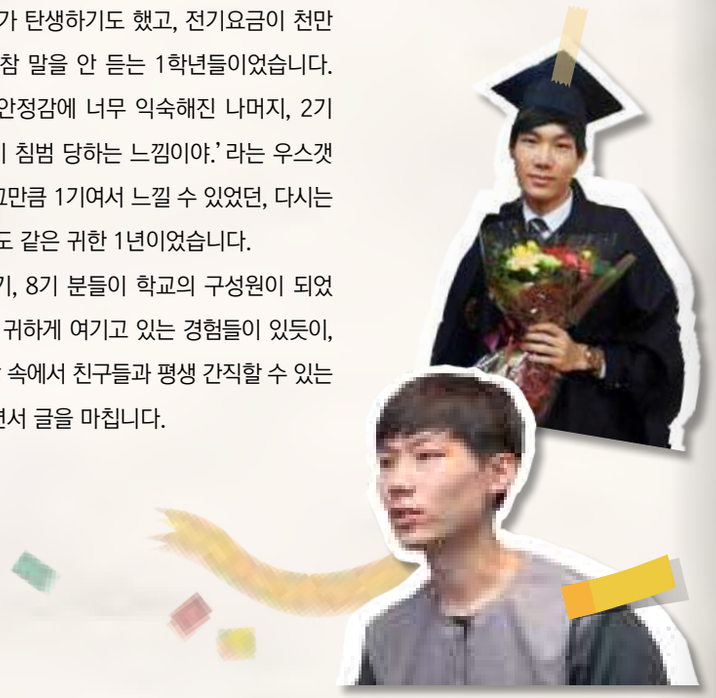


1기 박견주

제가 하늘고에 합격했던 2010년 말은 아직 학교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때문에 1기들과, 함께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기억하는 특별한 추억들이 조금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1기로서 경험했던 하늘고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011년 3월 6일 일요일. 막막함 반, 설렘 반으로 찾아간 학교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푯말을 본 충격이 쉽게 가시질 않아 아직도 날짜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미완성이어서 천막으로 덮여있고, 가는 길마다 철골이 보이는 등 공사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 밤의 학교는 굉장히 어둡고 고요해서 이곳저곳을 누비고 싶은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연애금지 학교의 남자, 여자가 분리된 교과동을 잇는 4층 다리에서 공개 고백을 해 오작교가 탄생하기도 했고, 전기요금이 천만원이 나오는 등,돌이켜보면 참 말을 안 듣는 1학년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들'만 있는 안정감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2기들이 입학할 때 '우리 영역이 침범 당하는 느낌이야.'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1기여서 느낄 수 있었던, 다시는 느낄 수 없을 하나의 특권과도 같은 귀한 1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6기, 7기, 8기 분들이 학교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1기들이 지금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경험들이 있듯이, 재학생 분들도 하늘고의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추억들을 만들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김민수 선생님

Q. 1기부터 8기를 다 봐오셨는데 기수 사이의 변화라던가 특징이 있나요?

A. (웃음)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점점 공부를 못한다는 것…. 3기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점점…. 1기는 드세고 거친 느낌. 진짜 야생마 같은 놈들이 많았어. (웃음) 학교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하고, 첫 기수라 선배도 없어서 아주 안하무인이었지. 3기 애들이 제일 활발했던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3기 따라가는 것 같아.

Q. 선생님만의 하늘고 에피소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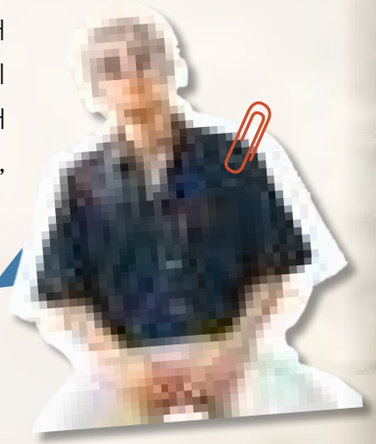
A. 나는 이제… 이 학교 부임하기 전에 학교 구경하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진짜로 크게 나서 폐차될 정도로. 저 세상으로 가서 학교를 못 볼 뻔했어. (웃음) 첫 해 때는 라면을 먹을 수 없어서 항상 외출을 나가서 라면을 사왔는데, 1기에 김선재라는 애가 있었어. 내가 별명을 붙여준 게 '거상'. 천 원짜리 라면을 사오면, 그걸 만원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 걔가 공급체. (웃음) 항상 중간 상인이 있고, 그걸 공급하는 거지. 그리고 6기 이과 남자애들. 남학생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줬어. 첫 시간부터 마치 몇 년을 봐온 느낌을 주는…. 보통 처음에는 어색하잖아. 근데 걔네는 그런 느낌이 없는 애들이지.

5기 오성민

성민이의 우렁찬 학교생활 '면학실'.
- 슬피 울던 한 남자 -



고3 때, 사실 면학실에서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PMP에 용량이 없어서 인강을 다운받지 못할 정도…. 청소년 주제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많이 봤고, 친구들 사이에서 예능을 공유하곤 했죠. 한번은 정말 슬픈 영화를 봤어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인데 제목을 〈여신 손예진〉으로 바꿔야 할 만큼 손예진의 아름다운 미모가 강조되는 영화였어요. 그 작품은 끝나기 약 40분 전부터 슬픔이 쉴 새 없이 몰아쳐요. 주말 점심시간에 그걸 보다가 끝나기 약 40분 전에 면학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영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우는 소리 시끄럽다고 밖에 나가서 다 울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ㅋㅋㅋㅋㅋ 밖에 나가서 세수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화를 계속 보는데 점점 더 슬픈 장면이 나와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학부모 감독관님이 출석체크 하러 오시는 걸 곁눈질로 힐끔 보고 PMP 화면 잠금만 해두었어요. 이어폰 속에서는 슬픈 장면의 대사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장면들은 더욱 슬펐기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학부모 감독관님이 다가와서 "학생, 무슨 일 있어…?"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도 공부해야 되는 제 처지가 너무 슬퍼요ㅜㅜ" 수험생활을 힘들어하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조용히 박카스 하나를 건네 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본 친구들은 옆에서 계속 웃었고, 저는 박카스를 먹으면서 남은 영화 잘 봤습니다.





5
선생님 다섯고개

〈김민철 선생님〉 Sebastian 세바스찬



- 나는 내가 나온 영상을 틀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 나는 장난을 좋아한다.
- '어쩌라고.'
- 나는 도시남이다.
- 나는 검도를 잘 한다.

〈정아미 선생님〉 Amy 아미



- 나는 하늘고 최강 귀요미다.
- 나는 츤츤하다.
- 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천재다.
- 나는 환한 미소로 팩폭을 때려 날리는 현타 생성가다.
- 나는 2학년부의 모든 기계를 고치는 만능이다.

〈JOHN COWIE 선생님〉 이덕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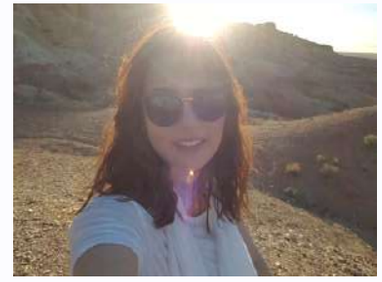
- 나는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 나는 알몸 마라톤에 참가할 뻔한 적이 있다.
- 나는 당근 케이크 장인이다.
- 나는 최근에 갤럭시로 갈아탔다.
- 나는 급식실의 깻잎냄새를 본교무실에서 맡을 수 있다.

〈한재홍 선생님〉 Jay 제이



- 나는 수업시간에 2개의 자아가 있다.
- 나는 평온하게 고음이 올라가는 사람을 싫어한다.
- 나는 대학교 때 치어리딩을 한 경험이 있다.
- 나는 하늘고 핵인싸다.
- 나는 사실 혼자 살지 않는다.

〈서연희 선생님〉 Betty 베티



- 나는 근황토크 장인이다.
- 나는 판서 여왕이다.
- 나는 조카 바보이다.
-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 나는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다.

〈오대규 선생님〉 Arthur 아더



- 나는 '하게체' 창시자다.
- 나는 팩폭 못하는 척하는 것을 잘 한다.
- 나는 대한민국 제 25대 대통령 후보다.
- 나는 신선 부채를 가지고 다닌다.
- 나는 케로로 중사 친구다.

하늘몬 도감 !?



모티브 포켓몬 : 캐터피

〈특징〉 매우 마르고 몸이 허약하나(뇌수막염, 비염, 중이염, 안구질환 등) 공격성이 있다. 자주 아파서 병원 네트워크가 활발하다. 스킬1. 외출 프리패스 몸이 자주 아픈 것을 핑계 삼아 외출 · 박을 끊을 수 있다. 결코 그 누구도 외출 사유에 대해 의심할 수 없게 만든다. 스킬2. 의사랑 친구하기 잦은 병원 방문으로 영종도 내 웬만한 병원의 의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스킬3. 골골 쉴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몸이 너무 허약해 때렸다가는 뼈라도 부서질 것 같기 때문이다. 골골몬의 가장 강력한 스킬.

골골몬 (에피소드)

-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수막염에 걸림. 군인들이 잘 걸리는 병. 뇌수막이라고 하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열이 많이 나고 어지럼증이 있음. 그래서 조퇴 하고 1주간 입원을 함. 증상 초기라서, 입원만 해도 치료되었음.
- 위가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됨. 뭘 먹어도 다 토함. 먹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하늘고에 와서 스트레스성 장염이 생겨서 조금 매운 것을 먹거나 많이 먹으면 장염에 걸림. 한 달에 1, 2번 장염. 학동도 자주 빠지게 되었고, 축제날에는 병원에 감.
- 초등학생 때 애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등짝을 쳤는데 손가락에 금이 감.
- 1학년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됨. (심각한 중증 환자.)
- 샤워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감.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먹해서 병원에 감. 코가 비염 때문에 안 좋아졌는데 귀까지 안 좋아짐.
- 하늘고와서 면역력이 떨어짐.
- 간식시간에 운동하려고 헬스장 10분 뛰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에 걸림.
- 초등학생 때 줄넘기를 많이 함. 머리가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이상무. 줄넘기와 같은 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함. 따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함.
- 2학년 초반 여름에 올록볼록하게 이상한 게 다리에 생김. 피부도 안 좋아서 잘 트는데, 그게 점점 커짐. 피부과에서 피부에 나는 곰팡이 비슷한 거라는 진단을 받음.
- 너무 자주 가서 온누리 내과 의사가 잘 암.

따수미 (에피소드)

원래 겨울 시즌마다 목도리를 뜸. 주로 부모님께 선물함. 올해도 별 생각없이 목도리를 뜨고 있었음. 그 때, 청소해주시는 김성기 기사님께서 추운 날씨에 지저분한 면학실을 항상 힘들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김. 그래서 올해에는 목도리를 김성기 기사님께 드리기로 결심. 목도리만 드리기에는 허전한 것 같아 편지를 씀. 편지와 함께 목도리를 선물했는데 김성기 기사님께서 당황. 덩달아 본인도 당황. 포장되어 있던 목도리를 풀고서 직접 보여드림. 김성기 기사님 당황 & 놀람. 본인은 처음에 그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끝날 줄 알았으나 예상치 못한 기사님의 반응에 감동. 나아가 목도리를 매는 방법도 알려드림. 목도리를 완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4~5일.



모티브 포켓몬 : 꼬지모

〈특징〉 남을 배려하며 마음이 따뜻하다. 보고 있으면 나도 착해지는 기분에 휩싸인다.

스킬1.화염방사 뜨듯한 마음으로 평소 선행을 많이 실천하며, 선행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듯하게 해준다.

스킬2.목도리 뜨기 매년 목도리를 떠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한다. 올해의 경우 매일 아침 쓰레기를 치우시는 김성기 선생님을 위해 목도리를 떠드렸다. 따수미가 뜨는 목도리는 목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듯하게 해준다고 한다.

#따수미의_전설 목도리 뜨기가 취미였던 따수미는 올해도 어김없이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날씨에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시는 김성기 기사님을 보고 결심한다. '기사님께 목도리를 떠 드려야지!' 이후 4~5일 만에 목도리를 완성시킨 따수미는 진심 어린 편지와 함께 기사님께 선물해드렸다. 기사님께서는 처음에 당황스러워하셨지만 따수미에게 정말 고마워하셨다. 이에 따수미는 더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한다.



잠만보 (에피소드)

최근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 이후부터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 자 봄.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많을 때 사각지대에 요가 매트를 깔고 잤다가 아무도 안 깨워서 밥을 안 먹음. 8,9 교시 때 땡땡이를 치고 교실에서 잠. 전민호T가 깨움. (주말인 듯) 기숙사에 가서 12시 반~1시 사이에 잠. 7시에 일어나고, 7시 반에 일어남(?) 8,9 교시, 저녁시간, 면학1타임, 간식시간까지 자 봄. 먹는 것보다 자는 것. 어디서든 누워서 자는 걸 선호. 잘 때는 침대를 만들어서 잠. 한 번은 면학 1타임 때 침대를 만들어 자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자신을 찾으러 헤매심. 컨퍼 때 17시간까지 자 봄. 일요일 1시에 자서 1시에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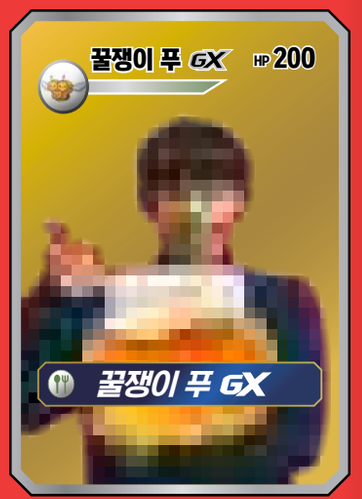
모티브 포켓몬 : 잠만보

〈특징〉 우연히 고개를 돌려도, 자리를 지나가다 보아도 늘 잔다. 반드시 누워서.

스킬1 침대 만들기 잠만보가 잠을 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침대.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주위의 물건들을 활용해 침대를 만들 수 있다.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요가 매트. 스킬2 은신술 자신만의 침대 속에서 잠을 자는데 아무도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 한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계속 찾아다니게 만드는 치명적 스킬. 스킬3 수면제 잠을 자는 잠만보를 보는 사람들마저 졸리게 만드는 스킬. 잠만보가 얼마나 잘 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스킬.

꿀쟁이몬

목 아프면 꿀 먹이고, 몸이 아프면 꿀 먹고, 나상준





매점몬

포켓몬 모티브: 꼴깍몬

〈특징〉 매점에서 자주 출몰하는 포켓몬. 한 달에 70만원까지 사용했다는 소문이 있다.

스킬 1 매점 카운터 차지하기

매점 아주머니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포켓몬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공하면 아주머니와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스킬 2 찐빵 얻어내기

매점에 지속적으로 출몰해야 하며, 끈기 있게 특정 찐빵만을 공략해야하는 치밀함까지 필요한 고급 스킬이다.

스킬 3 본인 취향 퍼뜨리기

매점몬이 주로 이용했던 먹거리는 다음과 같다. 스파게티+치즈, 포테이토칩, 야채호빵. 1교시 쉬는 시간에는 라면+삼각김밥+햄버거를 섭취했다고 한다.

칼출몬

모티브 포켓몬 : 스왈로

〈특징〉 항상 우애 깊은 모습을 보이며 대체로 그들의 언어는 이해할 수 없다. 종종 한국말을 하기도 한다.

스킬 1 광속 출근

운서역에서 만난 둘은 함께 출근한다. 고속 출근의 성공률은 100%에 가까우며 고속 출근에 성공하면 "모닝커플"스킬을 시전한다.

스킬 2 모닝커플

아침 7시 10분부터 7시 반까지 급식실 특정자리에서 이루어지며, 뜨거운 아이컨택과 함께 행복한 아침식사를 한다.

스킬 3 광속 퇴근

언제나 본교무실 출근 1등을 하는 그들만이 시전할 수 있는 스킬이다. 이를 떳떳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는 매우 드물다.



6
선생님 다섯고개

〈이주호 선생님〉 Billy 빌리



- 나는 얇다.
- 나는 하늘고 태권도 양대산맥 중 하나이다.
- 나는 차를 잘 고장낸다.
- 나는 잠을 거의 안 잔다.
- 나의 직업은 셀 수 없다. (다재다능)

〈김창재 선생님〉 Gilbert 길버트



- 나는 목소리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 “어~~OO이 왔어?”
- “니들이 사람이야?”
- 나는 원석쌤 짝꿍이다.
- 나는 금연의 롤모델이다.

〈최승주 선생님〉 Elena 엘레나



- 나는 수업에서 ‘그치’를 10회 이상 한 적이 있다.
- 나는 하늘고계 유노윤호이자 열정퀸이다. (feat. 복도에서 애들 질문 받기)
- 나는 인간 어피치다.
- 나는 모닝 베스트 드라이버이다.
- 나는 소녀 감성이다. (유리구슬 눈물)(따뜻한 포토카드)

〈이현주 선생님〉 Erica 에리카



- 나는 인스턴트 절대 안 먹는다.
- 나는 뽀얀 피부의 소유자다.
- 나는 요가를 좋아한다.
- 나는 학생들이 아침을 먹는지 늘 체크한다.
- 나는 자타공인 ‘엄마’다.

〈김원석 선생님〉 Paul 폴



- 나는 실컷 자랑을 하신 후 일부러 그런 척 한다..ㅎㅎ
- (/_\)
- 나는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날 출근한다. (새벽에도..!)
- 나는 웰시코기 같은 귀여운 걸음걸이와 시선강탈 달리기폼을 소유하고 있다.
- 하지만, 농구공은 싫어한다. (“너네는 농구공 반경 10M안에 있으면 혼난다.”)

〈심주석 선생님〉 Simon 사이몬



- 계란 후라이는 한번 먹을 때 10장 정도는 먹는다.
- 겨울에 빨간 후드가 보인다면… 나다.
- 화려한 칠판 판서가 특징이다.
- 가끔은 화려한 칠판보다 더 화려한 형광색 옷을 입는다.
- 학생들이 쓰는 표현을 배워서 여러 시도를 한다.

〈김민희 선생님〉 Carol 캐롤



- 나는 365일 중 360일 치마를 입는다.
- 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서류에 똥을 싸는지 알려줄 수 있다.
- 나는 이영자급 맛집 리스트 보유하고 있다.
- 악력 최소 100. 공포의 마사지를 선물한다.
- 수업시간이면 그 반 웃음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린다.

〈김경훈 선생님〉 Justin 저스틴



- 나는 언어유희의 대가다.
- 나는 미성의 소유자다.
- 나는 다크서클의 대표주자다.
- 나는 하늘고 대표 가수이다.
- 내 인스타에는 보드 관련 게시물이 가득하다.

〈이현영 선생님〉 Gonzales 곤잘레스



- 나는 운동을 무척 좋아하고 무척 잘한다.
-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 나는 ABC클럽 명예회원이다.
- 나의 주 종목은 배드민턴과 축구이다.
- 나는 체육관에 가면 거의 항상 볼 수 있다.

〈류대곤 선생님〉 Bruce 브루스



- 나는 목소리가 무지무지 크다.
- 나는 편지를 좋아한다.
- 나는 문작토 창시자다.
- 나는 요리를 잘 한다.
- 나는 철저하다.

〈최정우 선생님〉 Philip 필립



- 나는 라따뚜이다.
- 나는 트와이스를 좋아한다.
- 나는 PPT의 제왕이다.
- 나는 너무 귀엽다.
- 나는 헤쏘와 데쏘 창시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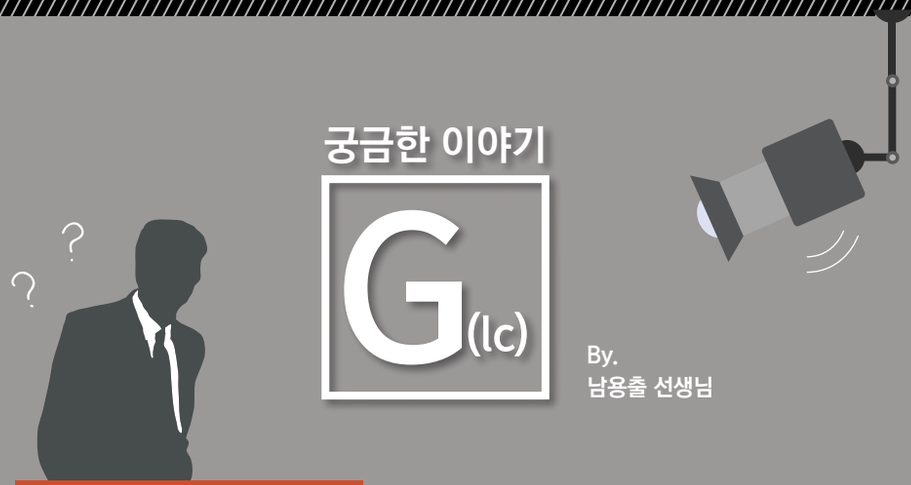
〈김지훈 선생님〉 Daniel 데니엘



- 나는 검정색이 잘 어울린다.
- 나는 Cielo의 대장이다.
- 나는 이 시대의 스윗남이다.
- 나는 '★지휘멋짐폭발★'이다.
- 나는 하늘고 음악의 기둥을 세웠다.



궁금한 이야기 G(lc)



By.
남용출 선생님

1. 뺏긴 음식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처분합니다. 학생들이 혹여나 쓰레기통에서 가져가 먹으면 탈이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지를 뜯고, 탈탈 털어서 버립니다….

2. 어두운 생활관을 도는 게 무섭지 않은가요?

엄청 무섭습니다. 몰래 숨어있는 학생들 때문에 거품 물 뻔 한 적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3.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도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보고 퇴사하신 선생님도 있습니다. (ㅎㅎ)





4. 생활관 교사 면접 볼 때 벌레잡기 시험을 보시나요?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살다보면 벌레가 친숙해집니다.

5. 미래의 생활관 교사 꿈나무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생활관 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일단 용출쌤에게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시면 생활관에 연락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6. 이벤트 기획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최소 3주전부터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획안을 검토 받습니다. 완성된 계획안과 예산을 결제 받고, 이벤트 품목을 구매 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실시된 결과보고서 작성 후 다음 이벤트 시 수정 보안 합니다.

7. 남용출 선생님, '유출, 노출'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처음 듣자마자 저의 새로운 별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고 학생들 앞에선 크게 웃지 않았지만 혼자 방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크게 웃었습니다 ㅎㅎㅎ

P.S. 유출, 노출 외에 일출(남용출 사무실근무)도 있답니다^^








8. 낮밤이 바뀐 게 힘드시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한두 달 지나고서는 선생님들 모두 뱀파이어가 되신다는...ㅋㅋㅋ

9.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

생활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 즉,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일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어긋난 생활을 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활관에 규정을 잘 지켜주셔서 서로 웃는 화목한 생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별 선생님 음성지원

1학년

1. 전유림 선생님- 수업시간, 자고 있으면 "아시끼들" "너네 미쳤니/?" "눈을 떼! 눈을!!" 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도리도리와 함께"절레절레"와 "쯧쯧"을 들을 수 있다."

2. 이지현 선생님- 언제나 말의 높낮이가 없고 목소리가 중저음에 힘이 없으시다. 완결된 문장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석유는 주로(쉬고) 배사구조에서…."+선생님도 인정

3. 최상규 선생님- "(쉬고)어."는 매 수업시간마다 다르게 쓰인다. 대답의 의미(but 혼자 말하심) 강조의 의미, 귀찮음의 의미가 있고 50%는 아무의미 없이 사용하실 때가 많다.

4. 송남영 선생님- 8,9교시에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상규네 반, 유림이네 반 앉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신다. +선생님들의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신다.(제스처까지 완벽하심.)

5. 박은지 선생님- 말투가 정말 자로 잰 듯 일정하시다. ("애-들-아-, 안-녕-").+ 아침 자습시간에 자고 있으면 깨우시고는 손 모양을 ㅇㅇ자로 만든 후 "의-욕-"이라고 하신다고 한다.

6. 김지연 선생님- 수학교재를 면학실에 두고 오면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재. 빠르게 갔다온나.", "빠르~게 가져와라"를 연달아 말씀하신다.

7. 전민호 선생님- "왓/?", "접쇽샤", 등 귀에 박히는 영어 설명. 설명 중 틀린 대답을 하면 "이러면 내년에 다시 오세요~"라고 말씀하신다.+외국인은 항상 코쟁이로 말씀하신다.

8. 배성규 선생님-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실 때 "선생님도 잘 몰라요~라고 하신다. 그리고 문법은 항상 "디스팅티브 피쳐"를 기억하자.+어물쩡 넘어갈 때에는 "그런,가봐~"

9. 이상미 선생님- 발랄한 말투로 상큼하게 "영어부좡님~??"라고 말씀하신다. 전자칠판 피피티 넘길 때에는 "랄랄라~/"와 함께 두 손가락 으로 화살표를 그리신다.

10. 최성태 선생님- 앞머리를 찰랑거리시며 "혹시, 아시는 분…?"라고 질문하신다.(이때 키포인트는 수줍게 내미는 두 손.) 수업 때 흥분하시면 까치발로 뛰시면서 열분을 토해내신 다.

11. 존 카위 선생님- 학생들의 이름을 잘 외우시지만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셔서 그런지 특이하게 부르신다.

12. 이지혜 선생님- 생명과학 수업과 음식을 엮는 대단한 재주를 가지셨다. 이 과정에서 효과음인 "츄릅"도 항상 같이 내신다.

13. 김승호 선생님- 나레이터를 떠올리게 하는 마이크와 특이한 물통을 들고 오신다.+ 마이크로 의도치 않은 ASMR을 들을 수 있다.(예를들어 물마시는 소리..)

14. 이형주 선생님- 수업시간에 예를 들 때 항상 한지민을 넣으신다.(예를 들어 "한지민과 내가 100미터 달리기를 하면~,한지민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등등)

15. 조기성 선생님- 경상도 사투리와 매력있는 모기 목소리로 경제를 수업하신다. 쉽게

설명해주시는데 목소리가 한 몫 한다("이런/ 갈등으을~")

16. 정율이 선생님- 교실에 들어오실때는 항상 "안녕하십니까~"로 인사하신다. 대답을 하면 "아주 똑.똑.이.들이에요~"라는 특급 칭찬을 들을 수 있다.

17. 김민철 선생님- 학생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폭행을 즐겨하신다.("너네 어차피 무거워서 못 해")

18. 이주호 선생님- 말씀하실 때 항상 손 제스처를 취하신다. (상규쌤 급으로 많으시다. 막상막하일 듯..)

19. 김지훈 선생님- "자, 인~웅얼웅얼~다.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로 김지훈 선생님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다.

2학년

임혜연- 원래부터 수학을 잘하셨냐는 물음에.. '저는 수학이 어려워본적이 없어요. (이과 $WAG)' 답변하는 학생의 민망함을 덜어주기 위해 쓰는 표현! '아...혹시 그거! (광대 승천)'

이강붕- 강붕쌤의 시그니처. '안!녕하심꽈아--' '아르, 에누' (r, n의 강붕식 발음)

김지연- 지연쌤의 시그니처 '재빠르게에~/' '그지. 너도 민→망/하지.' (눈을 작게 뜨시며)

이중언-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 학급을 휩쓸고 난 이후... '별거 아니죠?(눈을 동그랗게 뜨며)'

전민호- '이거 안나오면 내가 너네 동생한다.' 서양사↑람=코쟁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방법. '웁↑스!'

서연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실 땐 말:웃음 =1:1 비율로 말투에 웃음이 섞여 있다. '우리 조카가 말이얗ㅎㅎ 흐흥 ㅎㅎㅎ' '빨간색 좋아한다고 아줌마래는거얗ㅎㅎ흐흫'

정아미- '쩌거쩌거!' (적어적어인데, 저거저거인줄 안 학생이 많다.) '뭐래↑는거야~' '공부를하는거야 마는거야~'

김민경- '질문을 안하는걸 보니, 중간고사가 또 기대되네요~ㅁ'

이지혜- 수업 도중 갑작스러운 궁극의 애교 발사! '그랬쪙.(새침)' 애교에 모두가 넋을 잃어버린 탓에 반응이 없으면, '너네 이러기야?(서운, 입술삐쭉)'

김혜민- 영혼이 빠져나간 채 대답하는 껍데기들에게.. '생각 하고 대답하자~' '이번 시험 땐 보여줄 수 있지?' 쇼미더 성적!!!!!

천도현- 하늘고 대표 스윗남, 늘 나긋~나긋~하게 "얘들아 ㅎㅎㅎ오늘은 뭐할래ㅎㅎ?"

김현수- "이거 어렵니?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 모르지?" "얘들아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바보야, 바보"라고 하시지만, 늘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일상..

김민연- 조회시간에 학생들이 자고 있으면 "얘들아→→이러면 안↘ 되/지→ 창문 당.장. 여세요."라고 하신다. 학생의 도리에 어긋나면 늘 "옳지 못해요. 옳지 못한 행동이죠"라고 하신다.

황혜경- "주변에 카오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고쳐주세요. 캐이오스~" 뭔가 달라지면 "오늘 힘 좀 줘 봤어요 흐"라고도 하신다.

존카위- "~~해쒀?" 슈돌의 나은이처럼 한국어 발음에 애교가 가득하당♥

박은지- "아이고", "화장실 가세요." 혹은 "뒤로 가라", "OO이, 사-과-해-라-", "이-것--들-이-", "열심히 한다" 등 유행어 제조기

조기성- 민경쌤 얘기를 꺼내면 엄청 부끄러워하시면서 "몰~랑"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학생들은 기성 쌤의 애교에 아파트를 뽑고 지구를 뿌신다.

김승호- 남우주연 배우 급 연기력을 가졌다. 종종 영화 장면을 따라하시는데, 여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신다. 광해가 대표적 작품이다.

김경희- 학생들이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잠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졸리죠?"라고 하시며 학생들을 떠본다. 학생들이 잘 대답하면 "아직 아닌가."라고 하신다.

오대규- 늘 학생을 "어린양들"이라 부르신다.

하늘고 교사 알쓸신잡

전유림쌤(국어)

오늘 출근하는데, 영종대교에 안개가 너무 자욱했어. 그래서 앞 차와 충돌할 뻔했지 뭐야.



오대규쌤(국어)

괜찮아요. 앞에 있는 차가 중앙선이나 분리대를 타고 넘어와서 역주행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앞차와 충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충돌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마주보고 올 때 생겨나고, 이 세상의 추돌하는 모든 것들은 뒤의 것이 앞의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생겨나거든요.



송남영쌤(영어)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There was no fog in London until Whistler started painting it. 라고 말했습니다. 급작스런 기상이변이 생겨 안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런던의 명물로 안개는 영국인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자연현상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인식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무심히 바라보았던 런던의 일상적인 안개에 특별함을 더한 구절입니다.



서연희쌤(물리)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차가 진행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해. 그런데 제동거리 말고도 운전자가 앞차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반응시간동안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인 공주거리도 고려해야 해. 안개가 자욱해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정지거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안개가 자욱한 날은 주행 속도를 줄이면 정지거리가 짧아져서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어.



김승우쌤(윤리)

안개는 늘 있는 법. 인생도 안개 속이야. 한치 앞을 모르는데 윤리 안 배울래? 그러면 앞차와 충돌할 뻔한 상황에서 쿵푸팬더처럼 innerpeace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노자의 도, 장자의 소요 정도 배우면 그런 경지에 갈 수 있을지도…. 지식으로 알아도 실천이 어렵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 이해하기 바랍니다.



정주원쌤(수학)

영종대교는 아무리 큰 교통사고가 나도 끄떡없지. 왜냐하면 2차함수를 닮은 현수교라 지간과 경간 조합을 지녀 토목 기술의 꽃인데다, 아래는 트러스교 구조로 정삼각형 구조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야.



이지현쌤(지리)

영종대교는(인천대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국토교통부가 2015년에 지정한 안개 많은 도로 19개 구간 중 하나예요.



김승호쌤(역사)

그래, 그 날도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지…. 안개가 자욱한 청산리, 일본의 추격이 시작되었어. 안개 속에 길을 잃어버린 일본군 앞에 그가 나타났단다. 김! 좌! 진!



최상규쌤(한문)

昔人已乘飛車去 옛사랑은 비행기를 타고 가버리니
此地空餘煙霧橋 여기엔 헛되이 안개 낀 다리만 남았구나.
飛車一去不復返 비행기는 한번 가고 돌아올 줄 모르니
煙霧橋上空悠悠 흰 안개만 다리위에 부질없이 흐르는구나.

김민희쌤(국어)

오늘 롯데리아에 가려고, 영종대로 277번 길에서 뛰다가 넘어졌어요.
팔꿈치에서 피가 났는데, 멈추질 않네요.



김민연쌤(수학)

피가 안 멈출 수밖에 없겠네요. 277번 길이잖아요? 277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정의는 다들 아시죠? 소수점 있는 소수 말고.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되어있거든요.
prime number,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소수라고 해요, 약자로 p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의 개수가 무한개예요. p는 계속됩니다!
P는 계속… 멈추지 않아요.



오대규쌤(국어)

저런…. 피가 멈춰야 비로소 모이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추천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읽었어요.



김승호쌤(역사)

원래 역사는 피로 쓰이는 거야. 너의 오늘도 역사 속에 남을 거란다.
그런데 내 모짜새우버거는 어디?



이지현쌤(지리)

영종대로 277번 길이면 '대로'는 폭 40m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의 큰 길인데 홀수이므로 영종대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다는 뜻이니까, 영종대로가 공항신도시에서 하늘도시 방향으로 뻗어있다는 걸 알 수 있겠군요.



김승우쌤(윤리)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치료가 끝난 후 넘어진 원인을 분석하면 아, 스토아학파의 운명이 구나~. 스토아학파의 아파테이아(apatheia). 팔꿈치 많이 아파. 아파테이아(팔꿈치는 아프나 마음에는 정념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떠올려 보자.



정주원쌤(수학)

일반적으로 피가 나면 멈추는데, 팔꿈치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니…. 혈우병인지 의심해봐. 죽을 지도 몰라. 상조회사는 예다함이 최고야.



서연희쌤(물리)

뛰다가 넘어진 건 관성(inertia)때문이야. 네가 달리던 상태였기 때문에 발이 걸려도 바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달리려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넘어진 거지. 앞으로는 뛰지 말고 천천히 다니면 만약 발이 걸리더라도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작아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야.

하늘고 교사 알쓸신잡

박은지쌤(지리)

올해 크리스마스에 뭐하실 건가요?



서연희쌤(물리)

크리스마스에 연인을 만나러 갈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연인을 만나 함께 있을 땐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느껴질 거야. 이것이 바로 시간의 상대성이야.



한재홍쌤(중국어)

크리스마스? 아아 圣诞节[Shèngdànjié]? 중국에서는 성탄절을 따로 챙기지는 않아! 중국은 12월 25일 성탄절 당일보다는 그 전날인 크리스마스이브를 더 챙기는데! 크리스마스이브는 중국어로 平安夜[Píng' ānyè]라고 해! 이 날 중국 사람들은 '사과'를 주고받아!



최정우쌤(영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영문 소설은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찰스 디킨스는 유명한 영국 작가임. 작년 11월에 시행된 수능 기출 영어 장문 독해에서 Charles Dickens used his desperate experience as a child laborer in Victorian England to write David Copperfield. 이런 문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능 영어 재미없어요. 노잼. (아~ 근데 쓰고 보니 이 글도 재미없네요. 재미 돋아야 되는데….)



김승우쌤(윤리)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랑 고산 윤선도의 고택이 있는 녹우당에 간적이 있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다산초당에 가고 싶었으나 시간이 빠듯하여 못 갔어요. 이번에 여수에 갈 때 아내에게 다산초당에 잠깐 들리자고 하면 허락해 줄까요?



정주원쌤(수학)

왜 12월이냐면, 시계가 원형인 것은 해와 달의 원운동을 본뜬 것인데, 원에 같은 각도로 10개의 점을 찍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2개를 찍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2는 신성한 숫자라 생각해서 그래. 그리스 신화의 신도 12명, 인도의 주요 신도 12명, 우리도 12간지를 쓰잖아.
그래서 12+1인 13을 불길한 숫자라 여기고 기독교에서 13번째 제자인 가롯 유다도 배신자로 찍히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둘째 딸 생일이야….
엄마가 낳느라 고생했지….



오대규쌤(국어)

아내가 출근을 해야 해서, 쓸쓸히 집을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출근을 했어야 했는데….
왠지 집 밖보다 집 안이 더 춥다고 생각되는 하루가 될 듯.



김승호쌤(역사)

12월 2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9번째(윤년일 경우 360번째) 날에 해당해. 400년 동안 이 날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58번, 수요일과 목요일에 57번,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56번 왔단다. 하지만, 기억해. 너의 오늘은 역사 속에 단 하루라는 걸~



言

/ 10607 김설지

1

애 말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말해오는 목소리가 떨렸다. 애가 불쌍해서 그래. 선생님은 착하시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맡아주면 안될까? 상대의 말처럼 나는 착하지도 정의감이 있지도 않았다. 부슬부슬 웃는 아주머니의 얼굴, 그러면서도 난처한지 떨리는 목소리, 나는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싸구려 동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남의 사정은 귀신같이 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한선 이상의 참견이 실례라는 걸 알고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행동 한다는 건 그만큼 명분도 타당성도 있다는 뜻이었다.

- 제가요?

- 이런 부탁 번번한 건 아는데 그래도 한 번 해봐야할 것 같아서. 걔만 보면 여기가, 여기가 아파.

아주머니는 고통을 쥐어짜는 얼굴로 가슴을 가리켰다. 근래에는 마땅한 일도 없었다. 게다가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탁받은 일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애를 상대한다는 건 피곤한 일인데다가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자선에 가까웠다. 평생 자선냄비에 지폐 한 장 넣어 본적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흔쾌히 승낙한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우스운 일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생각해볼게요, 하고 넘겼는데 정작 생각을 해보진 않고 내가 받은 유예기간을 허무하게 넘겼다. 그 죄책감인지, 그냥 생각이 없었던 건지 아주머니가 다시 와 어디 생각 좀 해봤느냐 물어봤을 때는 냉큼 승낙 비슷한 대답을 쉽게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승낙이긴 해도 적극성이 결여된 어투였는데 그것이라도 다행이었는지 아주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말 모르는 애를 공짜로 가르쳐주라는 부탁을 받아들일 정도로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유로운 사람이 못되었다. 평범한 학교의 평범한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기간제 강사를 전전했다. 임용을 칠만큼의 열정과 끈기는 없었고 정착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이 글자고 말이라 업무 중 정당하게 문학책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지망했을 뿐이었다. 뭐든 일로 하면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내가 그 부탁을 받은 건 그 애정마저 죽어가던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흥미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써줄 사람도 없는 단란한 인생. 그나마 인생에서 '관계성'이라는 게 있던 건 어쩌다 알게 된 그 아주머니 하나였다. 아주머니는 늘 어떤 종류의 슬픔에 젖어 처연한 눈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개 그 사정은 이웃의 이야기였다. 보기 드문 인간상에 정감을 느껴 열심히 예, 그렇지요 대답을 한 업보는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왔다. 이런 부탁을 받고도 거절하지 못한 걸 보면.

부탁받은 아이는 무려 16살짜리였다. 말을 가르쳐달라기에 네다섯, 많아봤자 초등학교 언저리인줄 알았더니 이건 아이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다. 그냥 벙어리가 아닐까요. 아주머니에게 물었었다. 아니, 소리 정도는 낼 줄 알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이 소리라는 게 간단한 대답정도여서 나도 잘은 모르지만…. 애가 말을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그 나이에 이르도록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고 나쁜 말만 해대는데 지는 말이 하고 싶겠어. 나라도 입 꾹 다물고 말지. 적당히 한 번 타일러주고 따뜻한 말 얹어줘.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 …가족이 없었나요?

- 가족은 무슨.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짧은 평생이라도 그걸 다 혼자 산 애야.

2

날씨가 우울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런 날씨에 우울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 역시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밖으로만 나서야 하는 사명이 있는 몸이었다. 그런 의무감에 결국 뒤척이던 몸을 일으켰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늘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내 발을 이끈 것도 의무감이었다.

학창시절 상담실 문을 떠올리게 하는 낡은 교실 문을 열었다. 안녕. 그 인사를 나는 내뱉자마자 후회했다. 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쓸모가 없었다. 마주 앉아 바라본 그 얼굴은 굳건한 인상이었다. 입가에는 경직이 묻어있고 얼굴색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형형했다. 시원하게 뻗어있는 눈꼬리와 힘 있는 검은 눈동자는 그 시선만으로도 어떠한 긴장감을 부여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눈을 피했다. 차마 마주하기 힘들 정도였다.

- 내가 말하는걸 알아들을 수는 있니.

침묵이 돌아왔다. 나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부터가 난관이었다. 내가 지금껏 만나왔던 것들은 흉할 정도로 언어에 물들어 있어 대하기가 어려운 지물紙物이었다면 마주한 상대방은 그야말로 백지였다. 언어라는 것에 하나도 물들지 못한 정갈한 백지였다. 늘 검은 종이에 낙서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갈한 백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감히 쉽사리 손을 댈까. 나는 상대방의 백지에 처음으로 흔적으로 남길 흑연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중하지 않으면 영영 흉한 흔적을 남길 터였다.

- 알아, 말?

간단해진 문장에도 상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침묵에 나는 그야말로

할 말이 없었다. 아예 문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지, 할 수 있다면 문장을 어디까지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문어文語는 어디까지 알고 구현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던 모든 것들이 그 야트막한 침묵 하나에 막혔다. 이제는 그 형형한 눈빛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명백하게 상대는 나를 책망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한 반기였다.

- 그러면 오늘은 인사만 할래?

혼잣말이나 마찬가지인 말이었다. 잠정적 항복의 표시였다.

3

그런 첫 날 이후 회상할 때마다 따라오는 거부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적대적인 눈동자. 가끔 그런 애들이 있었다. 선생이라는 존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대개 그 아이들은 나에게 배우는 걸 원하지 않았다. 나도 그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 원하지 않은 걸 가르치고 원하지 않은 것을 배우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 진전은 있어? 하루 지나기 무섭게 아주머니가 물었다.

- 사람 말 가르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기다려봐야죠. 날선 대답을 했다.

반포기 상태로 뒤척이던 나에게 그나마 의욕을 불어넣은 것은 책의 일화였다.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였다. 설리번이 처음 가르친 단어는 'water'이라 했다. 물을 직접 가져다가 그 촉감과 특성을 느끼게 해주고는 그 모든 특징을 집약하는 한 단어를 알려준 셈이다.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다. 지난날에 묻었던 언어에 대한 동경, 직접 사물을 인지시키고 그걸 망라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에 나는 매료되었다. 원래 벤치마킹은 정당하고 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어야 했다. 그런걸 보면 평생 선생은 못할 팔자다 생각하면서 물병에 물을 챙겨두었다. 그리고 다시 나갈 때 그 물병을 챙겨 들었다.

4

두 번째로 만난 아이의 눈빛은 저번보다 온순하게 느껴졌다. 거절의 의도가 뚜렷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러온 이에 대한 거부감과 결단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막연한 감정과 결심이 불과 한 번의 만남만에 읽혔다. 이토록 노골적이고 투명한 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나름대로 놀라운 점이었다.

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해야 했다. 내 손을 한 번 들어 흔들고는 주는 것을 받는 시늉을 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림짐작은 할 수 있는지 아이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아이의 손등을 잡아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 물을 묻힌 손끝으로 그 위에 글씨를 썼다.

물

아이는 이에 놀란 듯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손바닥을 한참동안 주시했다. 나의 눈을 한 번 보고, 물기가 어려 있는 자신의 손바닥을 보더니 주먹을 움켜쥐었다. 나는 턱을 괴고 눈을 맞췄다. 무언으로 물었다.

어떠니.

아이가 주먹을 피자 나는 그 위에 한 번 더 글자를 써주었다. 아니, 두 번, 혹은 세 번 더였던가. 손바닥을 닦아주고 이번에는 내 손바닥을 내밀었다. 위에 글 쓰는 시늉을 해보이자 아이가 손가락을 천천히 옮겼다. 그 곧고 얇은 손가락으로 음운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나는 내 손바닥에서 선들이 생겨나고 표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ㅁ

ㅜ

ㄹ

명백한 세 개의 음운을 느꼈다. 가슴이 벅차오를 지경이었다. 예상만큼 명석한 아이였다. 적어도 자신이 느낀 걸 제대로 구현할 줄 아는 아이였다. 이 아이가 언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은 순전히 내 설렘이었다. 한 사람이 언어를 체득하는 과정이 경이롭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 경이로움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실감되었다.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안고 상대에게 웃어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 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냐면, 거기다가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는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편협한 문장을.

5

그 후로 나는 그 방식을 즐겨 사용했다. 다른 액체류 뿐만 아니라 사물을 가져다가 만져보게 하고 글을 쓰는 방식을 계속 사용했다. 갈수록 나는 대담해져서 가져가는 사물의 수를 하루가 다르게 늘렸다. 그러다보니 열 번째 무렵에는 대 여섯 개의 사물을 가방에 구겨넣느라 준비 시간이 길어졌다. 벌써 단어를 꽤나 많이 배웠다. 나이가 있는 만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정확하게 표현해냈다. 머지않아 간단한 문장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이

의 진도는 빨랐다. 이미 알고 있는 듯이 한 번만 알려줘도 아이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다.

챙겨갈 사물을 고민하다가 종이가 눈에 띄었다. 발화發話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아이라면 종이나 펜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을 터, 종이뭉치를 집어 들고 펜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촉박한 시간에 걸음을 빨리했다.

낡은 문을 열자 금속성의 소음이 샜다.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그 무뚝뚝한 눈동자나 창백한 얼굴 색, 내가 마주앉으면 나의 눈을 무미건조하게 쳐다보는 것까지. 나는 사람이 눈을 이토록 무미건조하게 마주할 수 있는지 이 아이를 만나고 처음 알았다. 달라진 게 없다는 건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가방을 뒤적였고 어렵지 않게 챙겨온 종이뭉치를 꺼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볼펜을 뭉치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나는 사물의 외관을 아이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다렸다. 만난 후 항상 공존했던 침묵이 내려앉았다. 내가 말을 하기 전,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전 항상 나타나는 이 침묵은 이 아이와 얄팍하게라도 교류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사건과 사건이 맞물리기 전의 전조였고 너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일종의 예의였다. 하지만 이 방식, 혹은 예의의 지속시간은 불규칙 적인 것이어서 이 침묵을 끝낼 시간을 맞추는 것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였다. 조금만 있다가, 햇빛이 좀 더 지나간 후,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침묵을 끊어내려 손을 드려는 찰나 아주 고요하게 아이의 손이 들렸다. 아이는 손을 움직여 펜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종이 뭉치에서 하나를 골라 자신의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고요하고 우아한지 나는 아주 살짝 들린 손이 창피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렸다. 아이의 손이 글씨를 쓰기 위해 펜을 잡았다. 중지와 엄지 사이로 펜의 앞부분을 끼우고 검지를 살짝 올려놓았다. 뭉치에서 빼낸 하나의 종잇장 위에 천천히 손목을 움직여가며 획을 그었다. 종이 위에 글씨가 쓰였다.

애쓰지 않으셔도 되요.

반듯하고 단아한 글씨체였다. 아이가 밑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저는 선생님이 가르치려 하는 것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만큼 창피한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 나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꼼짝하지 못했다. 눈을 들지도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 달 가까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생각이 치고 올라와 목이 먹먹해졌다. 나는 처음으로 글자와 문장에 대해 화가 났다. 종이에 묵묵히 쓰여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검은 선들을 찢어 이 자리를 박차버리고 싶었다. 손이 떨렸다. 멍해진 눈을 묵묵히 들었다. 내가 패배하기를 기다리는 검은 눈이 바로 앞에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도망치듯 문을 열어젖혔다. 내 뒤로 금속성의 소음이 반복됐다.

6

상대가 알고 있음에도 발설하지 않았던 사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 받는 것은 어떤 것 일까. 나는 한 순간에 최악의 선생으로 추락했다.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내밀었던 손이 부끄러웠다. 동시에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던 상대에게 화가 났다. 애쓰지 않으셔도 되요, 하고 반듯이 적힌 문장이 생각났다. 무엇을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 말을 알아듣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밝히지 않았을까. 기만당한 것이다. 집에서 홀로 그 문장을 소리 내어 보았다. 문득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그것 역시 소리 내 보았다. 혹은 기만한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언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날의 명확한 의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나는 그것을 간과했다. 아이는 눈으로써 발설했다.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차렸어야 했다. 알지 못한 것을 싫어할 수는 없다는 것. 말을 하지 않음과 말을 하지 못함의 차이를 알지 못했던 것, 설령 알았더라도 어둑한 곳에 묻어놓고 찾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누군가를 기만했다는 것.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바싹 마른 입술이 비치는 곳으로 손끝을 가져다 댔다.

7

왜 오셨어요.

그렇게 적힌 정갈한 글씨 아래 이번에는 내가 글씨를 썼다.

말은 안 하는 거니, 못 하는 거니.

왜 물으세요.

안 했다면 얼마나 안 한 거니.

왜 그런 게 알고 싶으세요.

언어가 미워?

즉각 글씨를 적어내던 아이의 손이 마지막 물음에서 멈췄다. 이윽고 아이의 손이 움직일 때 나는 그 움직임만으로 아이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항상 반듯하고 단정하게 글자를 써오던 아이의 손이 휘갈기듯 선을 그었다. 네.

어째서?

아이가 망설이다 대답을 적었다.

말이나 언어라는 게 저한테는 쓸모가 없더라고요.

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로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의 손이 다른 종이로 향했다. 더 많은 것들을 적어내기 위해 종이를 붙잡고 볼펜을 고쳐 잡았다. 종이 위로 검은 글씨가 번지듯이 생겨나갔다.

8

선생님에게 언어가 아름다웠거나 따뜻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선생님이 언어를 알고 말하고 저에게 가르친다는 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릿어릿 말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뚜렷이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뚜렷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내 혀가 나타내는 말. 그건 저 뿐만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뱉은 언어는 제게 이롭지 않았어요.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제 목구멍이 잠겨갔을 뿐이었어요. 언어는 늘 쓸모가 없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짓이기는 도구이거나 단절시키는 벽이었고 그들이 나를 타자화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련이 남아서 늘 책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지만 마침내 제 목구멍이 완전히 잠겼을 때 제게 말이란 건 사라진 거예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도 책을 읽다가 실어失語라는 단어를 봤어요. 몇몇 사람들이 나를 부르던 말 중 하나더군요. 거부감이 들어서 다른 단어들을 찾아대다가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함묵含默. 실어는 타인이 내게 붙인 이름표였고 함묵은 스스로가 붙인 이름표였죠. 제가 함묵함으로써 세계와 나를 단절시켰나요 세계와 내가 단절됨으로써 내가 함묵했나요.

그리고 선생님.

세상에 저 혼자 남는다면 과연 그 언어는 쓸모 있는 걸까요.

9

그 말들이 날카로웠다. 단순히 종잇장 위에 글씨인대도 그랬다. 타아에 의해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과 자아로 언어를 잠그는 것 사이 어딘가에 존재했을 것이다. 결국 실어도 함묵도 아니어서, 자신을 정의내리지 못했던 아이가 겪었던 고통은 얼마나 벼져렸을까. 얼마나 쪼개지는 듯 했을까. 나는 아이의 손이 남긴 물음들을 눈으로 오래간 파헤쳤다. 그리고 그 꾹꾹 눌러쓴 물음들 사이에서 그와 비슷한 잔상들을 보았다. 세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단절된 모든 것들, 세상에 혼자 남는 감각에 몸을 움츠리며 살아갔을 모든 것들, 그것들에게 언어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울 것 같았다.

10

나는 네가 말을 배웠으면 해.

저는 이미 말을 알아요.

정확히는 네가 발화發話를 배웠으면 해.

그것은 제게 쓸모가 없어요.

이번에는 나의 손이 다른 종이로 향해야 했다. 똑같이 종이를 붙잡고 볼펜을 고쳐 잡았다. 그 아래로 말을 쓰기 시작했다.

11

언어는 결이야. 생각, 감정, 관념과 신념의 결. 색색으로 물든 실의 집합 같은 것. 미묘하게 다른 색과 질감으로 구성된 실의 결 중 몇 개를 골라 천을 짜는 행위. 질감, 색에 따라 무언가가 생겨나고 무언가가 표현되는 것. 그래서 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실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일 뿐이라서 꼬아내고 모아주지 않으면 형태가 없어. 무능하지. 그니까 발화라는 건 그걸 구체화 해준다는 거야.

…뭐를요?

실이 가진 결. 감정의 결과 생각의 종류.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결국 희노애락 한 마디일 뿐이에요.

감정의 결은 섬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이 깊은 것인지 야트막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건 언어로 구현하는 길 뿐이지. 말함으로써 감정을 구체화하고 공중 사이로 껴 넣는 거야. 내가 알고 네가 알도록. 무엇보다도 너 스스로가 알도록.

잘 모르겠어요.

네가 느끼는 슬픔이 오롯이 혼자인데서 나온 것이라면 너는 그것을 처절하다고 발화하고 진창에 빠진 신발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울하다고 발화해. 그렇게 너는 너를 알게 돼. 가슴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숨겨두고 추상적으로 뭉뚱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어떨 때 얼마나 기쁘고 어떨 때 얼마나 슬픈지를 깨달아 스스로를 기쁘게 만들고 스스로를 슬프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는 가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니.

아이는 펜 든 손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가 몸을 웅크리며 떠는 것이 보였다. 종잇장 위로 물방울이 번져나가고 아이는 흐느꼈다. 눈물의 잔해가 종이 위 얼룩이 되어 잉크가 희미해지고 말들 역시 더불어 흐릿해졌다. 아이는 아주 힘겹게 손을 들어 얼룩진 종이 위

에 글씨를 덧썼다. 그때와 같이 질문을 적어냈다. 항상 묻고 싶었지만 항상 답을 받지 못해 언어를 미워했었다. 질문에 아주 간단한 대답마저 해줄 청자가 없어 외로이 화자로 살아가고 결국 입을 닫았다. 언어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그것은 이 질문을 차마 내뱉지 못해 표면에 내세웠던 것임을 아이는 알고 있다. 그는 늘 이 단 하나를 묻고 싶었다. 제가 살아야 할까요.

12

그 후로 아이는 목구멍에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말 그대로 잠긴 듯 소리가 흘러나올 수 없었던 목구멍은 무언가에 의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는 드디어 목소리라고 칭할 정도가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말도 할 수 있다 생각했으나 언어를 위해 움직인 지 너무 오래된 혓바닥은 발음의 방법을 알지 못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어체계를 아예 다시 세워야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스스로 각종 음운을 발음해 보고 혀의 움직임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가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입 속에 손가락을 넣어 혀의 흐름을 고쳐내고 알려주고, 그 따뜻하고 축축한 입 속에서 혓바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했다. 수많은 음운들의 어감과 형태, 그 음운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단어들. 그렇게 언어가 쌓여가고 말이 만들어졌다.

리을은 흐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실제로 유음이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이 정교함이 매력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을 적으며 쓰게 웃었다.

문어文語와 구어口語 둘 모두를 구사해야하는 이유를 선생님께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문어는 단어들이 정제되어 적힌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의미가 단단하지만 구어는 찰나의 날 것인데도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느꼈어요. 순간 부러웠어요. 온전히 이걸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13

-허락된다면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초여름 천변 흔들리는 커다란 버드나무를 올려다보면서 그 영혼의 주파수에 맞출 내 영혼이 부서졌다는 걸 깨닫던 순간에 대해서 허락된다면 묻고 싶어. 그렇게 부서지고도 나는 살아있고 살갗이 부드럽고 이가 희고 아직 머리털이 검고…

나는 가끔씩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담담한 목소리로 글자들을 발음할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그 저림에 나는 항상 시의 끝부분에 다다라서는 끊어질 듯 위태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14

아이가 첫 말을 했다. 명백한 발화發話였다.

- 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 그건 어떤 사랑인데?
- 그냥 사랑이요.

내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자 아이는 말을 덧붙였다. 처연하다고 느껴요. 동시에 선생님이 언어를 뱉으실 때마다 무언가 진동해요. 심장, 저, 세상, 그 무엇이든. 보면 슬프지만 들으면 가슴 떨려 마음 졸이게 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 왜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 아름답다는 것 때문에요.

그 순간에야 나는 아이가 말하는 것이 정확히는 내가 아님을 알았다.

15

생각해보니 내 이름을 아이에게 가르쳐 준적이 없었다. 그제야 아이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나는 아이의 이름을 아직까지 모른다. 그래서 따지자면 아이가 아님에도 지금까지 항상 아이라고 지칭하고 표현해 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아이' 자체가 이름이 되었다. 사회 속 쓰이는 단어 '아이'와 내가 그 아이를 지칭하는 '아이'는 다른 단어였다. 내가 사용하는 아이는 일종의 고유명사였다.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였다. 아이에게 내 이름은 언어였다. 언어, 말, 단어, 글자, 음운, 혹은 言. 나는 끝까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이가 사랑하는 이름으로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16

어느덧 바람이 선선한 계절이 왔다. 공원 정자는 휴식처로 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앉아 눈을 감고 있다 보니 눈꺼풀에 햇빛이 내렸다. 그리고 그 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가만히.

1학년 1반
김민철 선생님





1학년 1반
하늘고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탈은?

김기찬 : 연애를 하고싶다.

김윤서 : 기숙사에서 매점에서 사온 온작 라면, 과자 펼쳐놓고 노트북으로 영화 보면서 먹기

김채영 : 낮에 옥상 문따고 들어가서 썬텐하고 싶다.. 고3 때 면허 따서 컨퍼 끝나고 자가용 끌고 등교 하고싶다.

나정훈 : 기숙사에서 치킨과 피자를 용출 쌤과 담소를 나누며 맛있게 먹고 뒷정리는 용출쌤이 하셨으면 좋겠다.^^

박건용 : 기숙사에서 호실 이동해서 족발 먹으면서 한결이랑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노트북으로 영화보다가 주호쌤한테 걸리고싶다.

배재원 : 뛰어내리는 우진이 낙하산을 책가방으로 바꾸고 싶다.

변석원 : 운동장에서 치킨 시켜놓고 폭죽놀이 하고싶다.

손수민 : 새벽에 기숙사에서 발라드 노래를 부르고 싶다.

신동원 : 폰을 가져와서 기숙사에서 애들이랑 놀고 싶다.

엄성준 : 애들이 축구할 때 차는 공 다 막아서 별명이 '엄현우!'가 되기

오동교 : 기숙사에서 치킨 먹기

유준상 : 주말에 무단이탈해서 하루종일 나가 있고 싶다.

유지성 : 주말에 백운산 올라가서 선생님들 몰래 집으로 도망가기.

윤주원 : 여름에 운동장에서 피자 시키고 누워서 낮잠자고 싶다.

이병하 : 밤에 학교 옥상에서 텐트 치고 치킨 먹으면서 별 보고 싶다.

이서준 : 일요일에 무단이탈해서 집에 가고싶다.

이우진 : 낙하산 매고 교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태경 : 기숙사에서 폰으로 하스 하고싶다.

이한결 : 일탈은 충분히 했으니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임세화 : 치킨 배달 시켜서 용출쌤께 같이 먹자고 권유드리고 싶다.

장성찬 : 기숙사 안에서 핸드폰으로 용출쌤한테 페메로 영상통화 걸고, 치킨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정예준 : 면학실에서 영화보면서 치킨을 먹고 싶다.

정인수 : 외부음식을 배달 시켜보고 싶다.

최우빈 : 기숙사에서 외부음식을 먹고 싶다.

최진서 : 용출쌤 앞에서 치킨, 피자 등 외부음식을 시켜놓고 먹으면서 권유하고 싶다.

1학년 2반

이지현 선생님







1학년 2반

하루동안 하늘고에 있는 물건으로 변할 수 있다면?

구진모 : 이불.침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김도원 : 지현쌤 컴퓨터. 외출외박 전부 승인해 버리고 싶다.

김용우 : 교무실 컴퓨터. 시험 점수를 바꾸고 싶다.

김준원 : 정주원쌤 킥보드. 볼 때마다 타보고 싶었는데 타볼 기회가 없었다.

김형찬 : 캐리어. 하늘고 안에서 가장 할 짓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남동균 :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 바람에 날려 섬 바깥으로 ~

박도현 : 임해욱 배개. 매일 밤 해욱이의 채취를 맡고 싶다.

박민준 : 전산실 컴퓨터. 성적을 다 조작하고 싶다.

손현준 : 축구화. 하루 종일 공차고 싶다.

송석현 : 가위. 모든 책들을 다 찢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송한솔 : 지우개. 그냥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다.

안재영 : 용준이 지갑. 천문학적 비용으로 세상을 흔들 수 있다.

안지민 : 베개. 침대에서 살고 싶다.

오대한 : 매트리스. 움직이고 싶지 않다.

오준석 : 매점 카드리더기.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ㅋㅋㅋㅋ

윤민석 : 생활관 마이크. 오늘은 아침운동이 없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싶다.

이제현 : 정주원쌤 컴퓨터. 친구들과 단체로 외출, 외박 승인해서 나가 놀고 싶다.

임해욱 : 박도현 노트북. 도현이 노트북 검사 한번 해봐야 된다.

정경석 : 하늘고 쓰레기. 자주 밖에 나갈 수 있다.

정세민 : 주호쌤 스포츠카. 주호쌤의 따스한 손길로 운전해주신다.

정지호 : 지현쌤 머리카락. 선망의 대상과 우월감을 느껴보고 싶다.

조용준 : 우리방 화장실 거울. 매일 아침 내 잘생긴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 : 박민준 가방. 진짜 없는게 없다. (하늘고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 특히 기계 위주.)

최홍서 : OMR측정기계. 시험 끝난 날에 변해서 내 시험지를 만점으로 만들고 싶다.

황상하 : 축구공. 내 맘대로 학교 나갈 수도 있고, 벌도 안 받을 수 있다.

1학년 3반

이상미 선생님







1학년 3반

하늘고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김동윤 : 학교 규정과 모든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기숙사 학교 조성 및 용출법 폐지를 하고싶다.

김민준 : 기숙사를 1인 1실 호텔처럼 꾸미고 싶다.

김민중 : 목욕탕을 설치하고 싶다.

김승민 : PC방을 설치할 것이다.

김예준 : 매점 음식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싶다.

김재민 : 영화 상영 시 팝콘 기계를 설치하고 싶다.

김종학 : 기숙사 1실마다 WIFI를 허용하고 싶다.

김준호 : 주원쌤 라면을 상용화하고 싶다.

나윤성 : 1주일에 1번씩 집을 가도록 하고 싶다.

문형민 : 외부음식을 자율화하고 싶다.

박건우 : 외국인 학교로 만들고 싶다.

박세호 : 9교시 이후 자습을 자율화하고 싶다. (생활관 개방, 면학실 입/퇴실은 정해진 시간)

박수찬 : 핸드폰 반입을 허용하고 싶다.

박정현 : 하늘고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싶다.

신동혁 : 1주일에 한 번씩 귀가했으면 좋겠음.

신원민 : 하늘고를 리조트로 바꾸고싶다.

신중욱 : 75kg 이상 라크로스 의무 가입.

윤동건 : 생각없는 학교를 조성하고싶다. 박건우 있는 학교는 사랑이다.♥

이규화 : 찜질방을 조성하고 벌점과 상점을 비례화시키고 싶다.

이융현 : 생활관을 상시개방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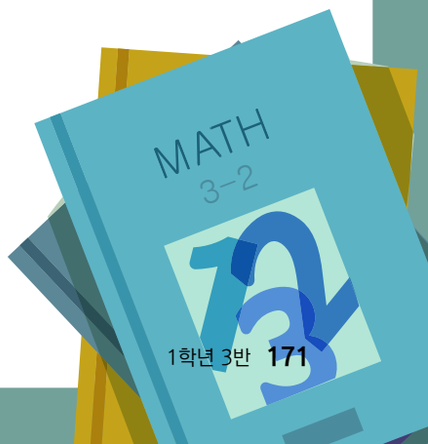
이재현 : 재현's타임을 만들어 수학특강을 하고 수영장을 건설하고 싶다.

장성길 : 옥상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고 싶다.

장해민 : 말로만 품격하지말고 진짜 품격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

채희준 : 힙동(힙합동아리)공연을 1시간하고 싶다. 박건우 있는 학교를 조성하고 싶다.♥

한정우 : 연좌제를 폐지하고 싶다.



1학년 4반

정주원 선생님









1학년 4반

다시 태어난다면?

강경래 : 동규의 귀여움+갑민이의 심선+현국이의 근육+ 경래의 얼굴?!?! (와…완벽해)(

경성윤 : 박주용, 키 크고 옷 잘입고 금수저라서 가진게 많다. ㅎㅎ

김도원 :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애니 무료로 봐도 합법이고 판권 적용도 안 됨.

김성민 : 재벌집 고양이. 편하게 살 수 있고 거울을 봐도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김정환 : 나로 다시 태어나 교지편집부에서 일하고 싶다.

김종헌 :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기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그대로니까 ㅎㅎ

김태형 : 호날두. (나랑 닮아서)

김현국 : 최경호, 이유는 필요없다.

나상준 : 노희찬, 노희찬의 푸근함.

노갑민 : 엄청난 부자로 태어나 돈으로 똥 닦기. 진정한 부자만이 할 수 있고 이번 생에는 시도도 못할 듯.

노희찬 : 하루에 1억씩 들어오는 건물주의 아빠(건물주가 되면 피곤하니까 아빠가 돼야함.)

박주용 : 경성윤, 착하고 귀엽고 잘생겼고 배려심 넘치고 멋있는 사람이다.

박주훈 : 재벌 2세, 공부 안하고 모히또가서 몰디브 한잔♥

변한준 : 다시 태어나도 변한준으로 하늘고에 들어와서 ♥1-4♥ 학생이고 싶다. (지금의 1-4이 너무 좋음.)

송제우 : 다시 안 태어날래. 지금 행복해요.

신 진 : 푸근한 뱃살의 소유자 지상혁.

이동규 : 여자한테 번호 따일 만큼 잘생겨지고 싶다. (물론 지금도 잘생겼지만 ㅎㅎ), 여자가 너무 좋기때문에!

이호준 : 돌…? 아무생각도 안하고 살고싶다.

장우빈 :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바다로 태어나고 싶다.

장현우 : 이지현쌤, 잘생겨지고 싶다.

조민서 : '나'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시험 100점 맞고, 로또번호를 알려주고 싶다.

조현근 : 노갑민, 멋지고 잘생기고, 키 크고, 공부 잘하고, 롤을 잘함.

지상혁 : 주호쌤, 스포츠카 몰고 인기 많고 인생은 주호쌤처럼.

황보은 : 노희찬, 재벌이고 전국 정보올림피아드 18등→상비군 될 뻔한 걸 자신이 거절

김도윤 : 이던, 현아 남친이라서

1학년 5반

최상규 선생님







1학년 5반

다시 태어난다면?

강선우 : 재벌의 혓바닥,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다.

고하연 : 굳이?

김민서 : 나무 늘보, 지금보다 더 '나' 다워지고 싶다.

김민영 : 방주희, 조보아를 닮고 싶다.

김연주 : 우리엄마 딸♥, 다시 태어나도 울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다.

김유민 : (준아가 준) 지현쌤의 네임스티커,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김한아 : 최소민의 입술, 무색투명한 매력을 가져보고 싶다.

목소연 : 아이유 마이크, 아이유의 모든 말과 노래들을 놓치지 않고싶다.♥

박지윤 : 강아지, 고양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방주희 : 이희영, 그녀의 답답함…

서미소 : 우리집 첫째 딸, 언니의 언니가 되고 싶다.^-^

송다영 : 여전히 송다영, 일단 좀 살아보고 생각하고 싶다.

연다은 : 정현희, 다은이가 깨워주는 알람을 매일 듣고 싶다….

유지수 : 구름, 세계여행을 할 것이다.

윤석영 : 우리집 막내, 오빠랑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이다영 : 다시 태어나도 이다영, 세상 아름답고 매력적인 내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다.

이안나 : 메인문 고양이,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산다.

이하린 : 제주도 '관광용' 특돼지. 편해보여서이다.

이현진 : 생활관 침대 위에 있는 긴 베개, 하루종일 누워있고 싶다.

이희영 : 전준아 지갑, 365일 가볍고 싶다.

임다소 : 나의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지현, 전지현의 얼굴과 나의 매력이 합쳐진다면 너무 완벽할 것 같다.

장유선 : 연다은 노트북, 기성쌤의 관심을 받고 싶다. 조기성 쌤 파이팅! 전인부 최고♥

전 솔 : 이스터 섬 모아이 석상 중 하나, ㄹㅇ 무념무상 아무생각 안 하고 살고 싶다.

전준아 : 이지현, 최상규의 시기, 질투를 받고 싶다.

정현희 : 연다은의 알람시계, 나도 주인이 5시 40분에 그냥 눈이 떠져서 일을 안 하고 싶다. 전인부 최고♥

정휘수 : 이 글을 읽고 있는 너, 그냥 그러고 싶다.

조가원 : 하늘고 마스코트 조형구니구니, 조가원이라는 귀여운 동생이 있기 때문이다.)(

조연재 : 차도녀(차가운 영종도의 여자), 더 이상 귀엽고 싶지 않다. 조연재 최고.

조하영 : 올라프.

조하현 : 전준아의 네임 스티커, 파워 인싸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최소민 : 김한아's 양말, 너무 강력해서 모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한아's 양말이 되고 싶다.

한정연 : 고양이, 강아지랑 친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1학년 6반

송남영 선생님





1학년 6반

귀가일 하루 전. 백운산이 무너져 학교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면, 무엇을 할것인가?

강민지 : 잔다.
강유진 : 일단 매점으로 달려가서 과자를 가지고 와서 치아문을 다 같이 정주행 한다!
고근영 : 매점에서 물, 라면, 냉동식품 순으로 털고 싶다. 가능하다면 출구를 찾거나 만들어 탈출해서 집에가 온수매트를 키고 잘거다.ㅎㅎ
고유진 : 어쩔수 없으니 면학실에서 잔다.
김가은 : 고유진 옆에서 잔다.
김명지 : 어떻게든 굴을 뚫어서 학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설지 : 하늘고를 폭파할 폭탄을 제조할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뿐이다.
김수민 : 매점으로 달려가 식량을 확보하고 백운산에 있던 고라니와 셀카를 한컷 찍을 것이다. 찰칵~
김예린 : 그냥 학교에서 사는거지 뭐.
김예은 : 핸드폰이 있는 친구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요청한다.
김유민 : 숨겨왔던 최윤서의 에그를 꺼내 영화를 본다.
김윤지 :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싶다.
김은진 : 창문을 깨고 흙 위로 뛰어내릴 것이다. 내가 집 가서 119에 신고해줄게 !!)_•
박신민 : 노트북으로 영화를 볼것이다. 파뤼~~!
박예나 : 내가 어떻게 알아.
박원경 : 우경이와 기숙사에서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할 것이다.♥
박지은 : 하지은이랑 엽떡을 먹고 방탄 덕질을 할 것이다.♬
서정미 : 불 꺼진 학교에서 납량 특집을 하고 파티를 할 것이다!
송다울 : 숨겨둔 핸드폰을 꺼내둔다.(핸드폰 없습니다. ㅎㅎ)
심유리 : 그냥 길이 뚫리길 기다린다.
우아한 : 울거다.
유소희 : 뭘 할지 생각한다.
윤수민 : 에프킬러를 사수해서 벌레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윤정연 : 면학실에서 모닥불 피워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백운산에서 뛰어다니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수건을 돌리고 싶다.
윤지원 : 우디니와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내고 싶다.
이명륜 : 525호에서 룸메들과 '아가씨'+'닭강정' 파티를 하고 싶다.
이민경 : 매점에서 스윙칩 가져와서 윤지랑 황누루리랑 함께 파티를 하고 싶다.♥
이우경 : 몰래 나와서 그 산을 넘을거임.(feat. 고유진음슴체)
이한나 : 엄마, 아빠한테 헬기를 불러 달라 할 것이다.
천혜선 : 정연이랑 백운산에서 오두막집 짓고 우경이랑 은진이랑 라면을 먹을 것이다.
최윤서 : 노트북으로 공포영화를 볼 것이다.
하지은 : 박지은이랑 엽떡 먹고 기숙사에서 잘 것이다.

1학년 7반

박은지 선생님





1학년 7반

다시 태어난다면?

고은솔 : 뒷번호, 매년 1번은 이제 지겹다. 나도 마지막에 발표 하고 싶다.

곽나현 : 네모네모 스펀지밥, 동글동글한건 이제 지겹다... 나도 각이 필요해...

권가은 : 餘(조금 먹을 소), 조금만 먹고 배부르고 싶다. 사먹는데 돈을 다 쓰는건 지겹다.

권수민 : 나무, 그냥 다 지겹다. 숨만 쉬고 살고 싶다.

김기수 : 타조, 눈 작고 목 짧은 거 이제 지겹다. 나도 눈 크고, 목이 길어지고 싶다.

김민지 : 구운 감자, 스마일 감자는 지겹다! 딱딱해지고 싶다!

김수아 : 백조, 미운 오리새끼도 싫고, 탐관 오리도 싫고, 친구들이 오리라고 그만 놀렸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난 백조다.

박서현 : 모나리자, 진한 눈썹…지겹다…(모나리자 최고)

박지우 : 하얀 눈, 빨간건… 이제 지겹다…

박지원 : 번역기, 0개 국어는 이제 지겹다, 애매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송진효 : 정재영, 섹시한건 지겹다. 나도 아담하고 귀여워지고 싶다.)(

신예원 : 개, 독백은 이제 그만, 개들과 대화하고 싶다.

안규원 : 아이유, 억울한 아이유 소리는 이제 지겹다. 나는 아이유가 아니다.

양지민 : 돌맹이, 이제 그만 울고싶다. 단단해지고 싶다.

유채은 : 유림쌤 폰♥, 유림쌤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이제 지겹다. 쌤의 모든 것을 알고싶다.♥

이형경 : 수린이, 더 이상 째려보고 다닌다는 오해는 싫다. 이제 이런 'ㅂ' 눈을 갖고 싶다.

임수린 : 형경이, 더 이상 이런 'ㅂ'눈은 싫다. 이제 째려본다는 오해를 받고 싶다.

임우진 : 무민, 무민 닮은 꼴은 지겹다…진짜 무민이되고싶다. ㅎㅎㅎ

장유리 : 공기, 관종미 뿜뿜말고 흘러가듯이 좀 살아보고싶다…^^

전가을 : 공자, 나도 그만 찡찡 거리고 싶다. (가또찡)

정세인 : 오뚝이, 넘어지는 거 그만…ㅠㅠ

정재영 : 이강붕 선생님, 아래의 탁한 공기를 맡는 건 이제 지겹다. 나도 맑은 윗 공기를 마시고 싶다.

정태희 : 박은지 쌤, 이제 애 같은 말투는 지겹다.

정현희 : 사슴, 더 이상의 노루는 싫다. 사슴으로 진화하고 싶다.

조다빈 : 노트, 노트필기 지겹다.누가 나한테 써줬으면 좋겠다.

최정은 : 장유리, 나도 패피가 되고싶다. 올 그레이는 지겹다. (a.k.a. 회정은)

한지민 : 사이다, 나도 이제 속 시원하게 알아듣고 싶다. 다시 물어보기 너무 귀찮다.

1학년 8반

전유림 선생님







1학년 8반

하늘고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강성은 : 노!트!북!허!가!, 해먹 설치, 기숙사 내 TV 등 전자기기 설치, 100% 물 침대 (돌침대 인생…)

김민지 : ♥매주 외박되는 학교로 바꾸고 싶다.♥

김예은 : 과자로 만들어진 기숙사,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남유진 :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지니로 바꾸고싶다!

류민주 : 외출, 외박을 언제든지 시켜주는 학교로 바꾸고 싶다. ㅠㅠ

박유하 : 어디로든 문!!, 계단을 걸어다닐 필요가 없답니다.

박채연 : 옷장 안의 숨겨진 냉장고+기숙사까지 닿는 빵빵한 와이파이와 벌점대신 상점 지급,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 사용 허락

서지민 : 학교 옥상에 정원을 가꾸고 싶다.(리틀 과수원)

서한나 : 헨젤과 그레텔 학교로 만들고 싶다. (학교를 과자로…)

신서연 : 대나무 헬리콥터!!, 201 앞에서 날아서 5층까지 갈 수 있답니다.

안민영 : 자율 면학!!!

오영은 : 한 바퀴만 걸어도 밥 먹은 것 소화되며 운동 되는 학교 속 산책 루트가 있는 학교로 바꾸고 싶다!

유경민 : 면학실에서 노트북을 허용하고 싶다!

윤준영 : 교무실을 한 층에 모아두고 싶다.

이나현 :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꾸고 싶다.

이민진 : 맛있는 외부음식과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싶다. ㅎㅎ

이서진 : 화장실 냄새 제거기(방향제 설치), 기숙사 음식물 허용, 노트북 허용

이소현 : 누구나 원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를 탄생시키고 싶다.

이유빈 : 패딩만이라도 사복을 허용하고 싶다.

이한비 : 침대로 변신시킬 수 있는 학교 의자를 만들고 싶다.

임다솜 : 안 자도 안 졸리게 만들고 싶다.

임해연 : 시간 여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이라든가…시험기간이라든가…

조민재 : 주작대로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싶다. ㅎㅎ 꿀잼각

조소민 : 패딩 좀 따듯한 거 입고 싶다, 외출 좀 하고 싶다, 노트북, 폰 좀 하고 싶다.

채윤지 : 기상시간 자율인 학교를 만들고 싶다. 졸리다…

최푸른 : 하늘고를 하늘 청소년 요양센터로 바꿔 늦은 시간에 기상해 201호에서 노트북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맛있는 급식을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

홍예령 : 아침운동 없애고 싶다. 노트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하고 싶다.

홍지수 : 학교의 모든 곳을 GOLD로..!(모든 장소를 금으로 바꾸고 싶다.)아니면 다이아몬드도 괜찮다.^^

송연수 : 매점이 밤새도록 열려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활관에서 음식물 취식이 허용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배고프다 ㅠㅠ

황인서 : 알람시계, 그만 자고싶다…일어나라 제발!

2학년 1반

김승호 선생님







2학년 1반

담임쌤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 소설

권용호 : 승호가 땀을 흘린 채 탕비실에 들어갔어요.

김민준 : “이게 뭐지!?”

김재영 : 그곳엔 현근이가 웃옷을 벗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김재욱 : 앗!!, 사물함 위에 누군가 있어요!! 여자같아요.

김진현 : 여자란 재영이었어요. 재영이도 웃옷을 벗고 땀을 흘리고 있어요!!

김태응 : “이건 또 무슨? 재영아 네가 어떻게...? 너마저.. 이럴수가...”

박나민 : 그때 갑자기 불이 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후 불이 켜졌지만...

박태우 : 불이 켜지고 난 후에는 재영이와 현근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박현근 : 두 친구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박현서 : 그때 현근이가 재영이의 옷을 입혀주고 있었어요. ‘재영아 우리 인형놀이 하자!’

안현태 : 우리가 인형인거지?

유승원 : 현근이가 재영이에게 입히고 있던 옷은 메이드 복이었어요.

윤성재 : 현근이도 메이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민준 : 승호가 재영이와 현근을 찾던 도중, 교실에서 둘을 발견했어요.

이성혁 : ‘누가 사복 입으랬냐, 어?’

이율민 : 둘 다 생기부 버렸냐? 정시 자신있지?

이종원 : “쌤, 저희 둘이 사랑을 막지 말아주세요.”

장재연 : 현근이와 재영이는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정건훈 : 승호를 쫓아내고 밤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정지훈 : 하지만 우리의 승호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요.

조국호 : “너희 생기부 파이고 싶어?”

최태웅 :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승호를 받아들였어요.

하승윤 : 그런데 갑자기 자훈이가 나타났어요!!!!

황인건 : 넷은 사이 좋게 해외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최승완 : 그렇게 2-1에 완자가 생겨났답니다. (2018학년 2학기 경...)

2학년 2반

강선이 선생님







2학년 2반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으로 태어나고 싶다.

권채은 : 천민. 더 이상 공주로 사는 건 지겹다.

김나림 : 빵셔틀. 양아치는 이제 지겹다.

김도희 : 평범한 인간. 요정인 건 지겹다.

김세희 : 스모 선수. 여리여리한 건 이제 지겹다.

김소정 : 백지. 타락한 건 이제 지겹다.

김수현 : 망부석. 탈주하는 건 이제 지겹다.

김주은 : 간디. 짜증은 이제 지겹다.

김지나 : 아돌프 아이히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지겹다.

김한비 :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 별 위의 먼지. 크리스마스가 끝난 겨울을 쓸쓸히 보내는 게 지겹다.

나윤서 : 벤조리스트. 상상만으로 기타 치는 건 이제 지겹다.

박채원 : 김한비. 미동이 없는 건 이제 지겹다.

백다율 : 네모네모 스폰지밥. 동그란 건 이제 지겹다.

송다혜 : 이강붕쌤. 아랫공기는 이제 지겹다.

신서영 : 이과충. 문과 갬성은 이제 지겹다.

신은섭 : 승무원. 헬기는 이제 지겹다.

신혜원 : 아웃사이더. 인싸의 삶은 이제 지겹다. 조용히 좀 살고 싶다.

안예진 : 영앤리치. 하루에 200만원 이하로 쓰는 것은 지겹다.

엄유선 : 스님. 떡진 머리는 이제 지겹다.

유주희 : 하늘고 감자탕.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건 이제 지겹다.

윤무영 : 초대박 부자. 고민하고 돈을 쓰는 게 지겹다.

윤을리 : 민달팽이. 털은 이제 지겹다. 제모하는 것도.

이지혜 : 남태현. 명연기 하는 건 이제 지겹다.

장인아 : 똥손. 그림으로 칭찬 받는 거, 이제 지겹다.

조승혜 : 예쁜 유리병. 숨쉬기 지겹다.

황유나 : 김씨. 생활관 추첨 맨 마지막이랑 시험지 걷기 지겹다.

2학년 3반

김민연 선생님





2학년3반

하늘고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곽나영 : 호실에서 엽떡 좀 먹자.

곽한이 : 푸드코드를 설치하고 싶다.

김다윤 : 기숙사에 인덕션을 설치하고 싶음. (for라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벽난로로 이동하고 싶음. (계단 너무 힘듦.)

김민주 : 도서관을 스터디카페처럼 바꾸고 싶음.

김현지 : 문구점 있었으면 좋겠다.

명성윤 : 생활관을 호텔 형식으로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박세은 : 각 층마다 매점 설치♥ + 이동 취식 허용. 주당 7회 필수 치킨 Time, 면학2 끝나고 매일 간식 제공.

박신애 : 온수매트 허용!!! 그리고 사복 패딩 허용해 줄 듯^^ 수영장도 만들고 싶다. ㅠ

박주이 : 에스컬레이터 좀 ㅠ 삭신이 쑤신다.

서예진 : 휴양지처럼 코코넛 야자수를 좀 심고 운동장을 비롯한 곳곳에 큰 분수대를 설치하겠음.ㅋ

안수연 : 바라는 게 없다.

우하영 : 외부 음식 허락 좀요ㅜ 기숙사 지하 1층을 만들어 매점 설치♡

윤정연 : 매일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다영 : 교무실 출입금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활관에서 굿모닝체크 하는 곳까지 직행 미끄럼틀 설치.

이여원 : 호그와트처럼 기숙사 배정 모자가 성격 맞는 애들끼리 기숙사 그룹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유빈 : 각 기숙사 방에 샌드백 설치 (가능할 듯...?)

이채연 : 당구장 설치 ♡♡♡

전최희 : 화장실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센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움; ㅠ)

정의현 : 기숙사를 호텔로 바꾸고, 스무디킹이 학교에 입점했으면 좋겠다.

정지윤 : 계단 대신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할 것이다. (with 튜브 → 홍수 나도 안전)

조예은 : 매점에 모구모구가 들어와서 더 바랄 게 없다. ♥

조효리 : 노래방 더 만들고 싶다. (노래방 기계랑 마이크 짱 좋은 거로!!!)

최인아 : 호실 내 취식 자유 + 계단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에스컬레이터)

추지원 : (엽떡 등) 외부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함주헌 : 공차 생겼으면.

손예지 : 엽떡 먹을 수 있음 좋겠음.

2학년 4반

이강붕 선생님







2학년 4반

중3, 12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김기림 : 하늘고가 인생의 답은 아니더라 ^^

김범수 : 아빠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말해라.

김병찬 : Imilliun 들어가라.

김순호 : 에버랜드 가기 전에 A형 독감 조심해... ㅠㅠ

김유민 : 올 때 베개 두고 와라.

김준희 : 졸업식 때, 먼저 다가온 그 애를 용기내서 붙잡아...!

김태명 : 시집 많이 읽자.

김태웅 : 진혁이를 붙잡아 프페에 일찍 들어올 것!

김태준 : 아빠가 병원 물려준다 말할 때 녹음해라.

노　설 : 지금아니면 못 논다. 더 많이 놀아라.

류태하 : 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 치고 나갈 수 있어!

박건후 : 우유 많이 마셔라.

박찬혁 : 잠 그만자고 놀아라.

서주연 : 작곡 열심히해서 bighit 연습생 ㄱㄱ

신윤섭 : 모델 제의 거절 말고 받아라.

양재혁 : 수학,과학 선행해라.

유원석 : 밥 골고루 잘 먹어.

유진우 : 하던 게임 3개월 동안 실컷하고 입학 전날 지워라.

윤지웅 :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민재 : 밥 좀 잘 먹자.

이성수 : 검도 일찍 시작해라.

이은규 : 도깨비나 재밌게 봐라, 이 녀석아!

이한국 : 투블럭해라~

이호성 : 세수 좀 해라.

장형운 : 수강신청은 문작토 먼저!

전철우 : 좋은 친구 만나라.

지수한 : 하늘고 빡세게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해라.

최원열 : 어차피 놀 거 제대로 놀아라. 나중에 못 놀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최재웅 : 라크로스 하지 말아라.

최정우 : 좋아하는 거 계속하자!

최준명 : 간식 그만 먹어.

최진혁 : 윤지랑 헤어지지 말 것! 로봇 동아리 창설은 고민해보고...

하준수 : 운동 좀 많이 하자! 어좁 탈출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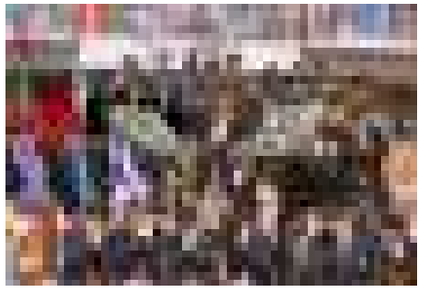
한규완 : 쌍둥이랑 친하게 좀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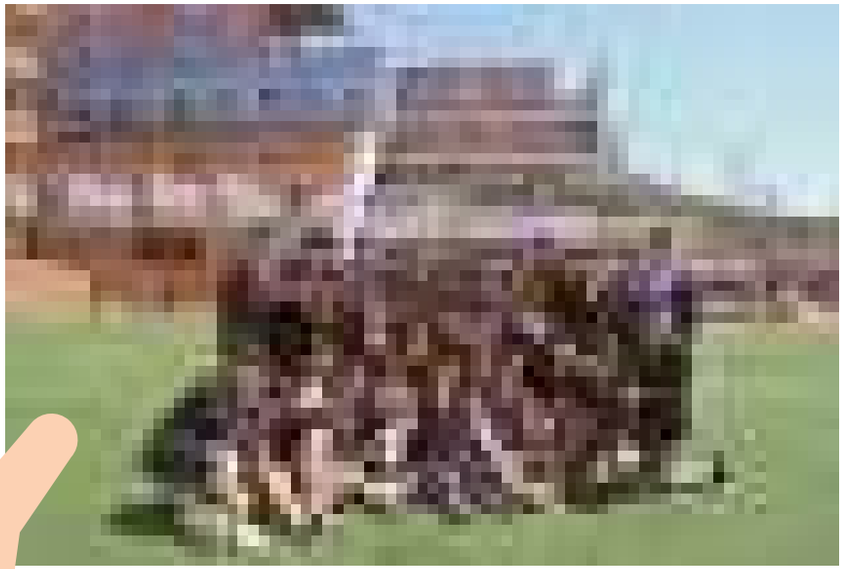
한동엽 : 노예생활 3년 전 마지막 자유를 만끽해라!

2학년 5반

오대규 선생님







2학년 5반

귀가일 하루전, 백운산이 무너져 학교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강동열 :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내가 제일 정상인 듯;;;)

강태영 : 학교가 집이지. 다를 게 뭐 있나?

고정원 : 엄마 사랑해.

권우인 : 무너져 봤자 얼마 안 되니 파고 나갈 거임.

김남준 : 걸어서 가면 됨.

김민후 : 아빠 사랑해.

김상현 : 얘들아 무슨 소리야... 공부해야지 공부 ㅎㅎ

김승구 : 다쳐서라도 학교를 나가야죠.

김재현 : ↑이 친구 못 나가게 말려야죠.ㅎㅎ

김지호 : 대나무 헬리콥터!

문준원 : 어차피 집가도 내 성적 볼 엄마 표정은 좋지 않을 것이다.

박승빈 : 사는 게 다 그렇지...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니? 걍 받아들여야지...

박지호 : 매점 가서 라면 사야져...

봉한성 : 어두컴컴할 테니 그냥 잔다.

송인규 : 굳이 말하지 않는다.

안현준 : 백운산에 있다는 고라니를 관찰한다.

이도엽 : 고작 백운산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없다. 집 가자!!!

이도현 : 내 전용 헬기타고 조주호랑 조상현이랑 같이 탈출할 거다.

이민수 : 무너지면 핫팩 삼아 최우진을 껴안고 버틸 때까지 버틴다.

이형진 : 기숙사에서 기타 치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임재성 : 누구보다 빠르게 매점을 차지한다.

임지환 : 운명이라 생각하고 공부하자 친구들아. 고3이야...

전진택 : 학교에서도 놀 수 있으니 별 상관 없음.

전찬웅 :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꿈과 희망의 귀가 전 날에.....

정규채 : 학교에서 놀려고 마음 먹으면 집에서보다 재밌게 놀 수 있음. 〉.○

정성훈 :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

정준석 : 나의 학우들이 모두 무사한 지 찾아다닐 것 같아요...

제일규 : 면학실이 따뜻할 테니 가서 잔다.

조병교 : 이때다 싶어 치고 나간다. 고3이에요! 여러분 나갈 궁리 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조상현 : 조주호와 함께 이도현 헬기를 타고 나간다.

최우진 : 이민수로부터 탈출하여 이도현 헬기에 매달려 탈출한다.

한규원 : 백운산이 무너진 정도로는 나의 귀가를 막지 못한다.

박성근 : 침착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나갈 방도를 찾는다.

2학년 6반

황혜경 선생님



2학년 6반

하늘고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권선영 : 생활관에서만 머무르고 싶다.

김도연 : 일주일에 한 번 집 가기. + 생활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김재원 : 수영장을 만들고 5층부터 1층까지 미끄럼틀로 내려가고 싶다.

남민정 : 수면실을 만들자.

노승지 : 매점 연중무휴 24시간 운영...ㅋㅋㅋㅋ

박예원 : 시험을 없애고 생활관에서 호텔 라이프를 즐긴다.

박지연 : 기숙사 취식 허용, 오락실, 수영장

배서연 : 등교시간 9시.

성주연 : 핸드폰 허용.

신다영 : 빵&아이스크림 자판기 in 생활관 ♡

안주영 : 외출, 외박 자유롭게 + 생활관 취식 허용 ㅠㅅㅠ

오하빈 : 아침 운동 폐지, 생활관 내 취식 및 배달 음식 허용 ♡3♡

윤가영 : 전원 장학금

윤연수 : 탭 허용..해 주세요 ^^ 히힛

이시원 : 매주 귀가 〉3〈

이지윤 : (소박하게) 10시 입실, 10시 30분 소등, 8시간 수면 보장!!

이현채 : 7교시 없애기.

임도현 : 스트레스 받을 때 엽떡 먹고 싶어요. ㅠ.ㅠ

조미성 : 벌점러에게 기회를... 상점제한 좀 제발 좀...

조성아 : 시험을 없애고, 진정으로 원하는 공부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하늘고 안이라면 시험 없이도 공부할 듯)

지민선 : 외출, 외박 제발 자유롭게 ♡

진하늘 : 8시간 수면 보장..ㅠㅠ

차시윤 : 원할 때마다 통학 가능, 배달 음식 허용!

최여진 : 기숙사 TV 설치, 헬스장 바디프렌드 설치.

2학년 7반

정아미 선생님







2학년 7반
하루 동안 하늘고에 있는 물건으로 변할 수 있다면?

김민지 : 베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제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

김시연 : 행정실 주방 하늘고 마크가 새겨진 머그컵, VIP만 대접한다.

: 매점 호빵 기계, 겨울철에 항상 따뜻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_〈

김유진 : 전 제가 좋아요.)(

김윤아 : 호빵, 따뜻해서..ㅎㅎ

김제이 : 매점 찰떡 아이스, 모든 이의 ♡을 받을 수 있어서. ㅎㅎ

김채연 : 화단에 있는 돌멩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김혜은 : 그린비, 매시간 심심하지 않게 보낼 것 같다.

박재연 : 비타민 C,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송수인 : 생활관 비상구, 아무도 못 건드린다. 편하게 쉴 수 있다.

송현지 : 체육관 태극기, 조회할 때 다리 안 아프니까.

안수빈 : 그린비, 힘들 땐 위로해 주고 기쁜 소식도 가져다 주니까 (+비밀 얘기도 들을 수 있음!!)

오나영 : IIP 자율 주행 자동차, 너를 만들기 보단 내가 자주 차가 되는 게 빠를 것 같아.

유채연 : OMR 리더기, 내 성적을 조작해서 서울대 갈 거야...)0(

이서연 : 기숙사 ACE 침대 커버, 매일 편한 침대에서 수면을 즐길 수 있음.

이인희 : 프린터가 돼서 매일 파업함. ㅋㅋㅋ

임소민 : 교장실 시계, 더울 땐 춥고, 추울 땐 더운 곳 1등! 하늘고 스위트 룸.

임효령 : 사랑이, 관심이 필요해요...

장소영 : 매점 문고리, 밤에도 매점 쓸 수 있게 열어주려고.

정윤아 : 면학실에 있는 요가 매트,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됨. 〉,〈

최민정 : 우리 반에 붙어 있는 무전기, 간간히 일하면 놀 수 있다.

한예민 : 도서관 전공 서적, 조용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곳에서 아무 것도 안 해도 됨. 1년에 한 두 번? 일 하기

한예원 : 교장실 쇼파, 짱 조용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허예진 : 문이 될 겁니다. 바람도 쐬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자동으로 열려서 학생증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래요!

2학년 8반

김혜민 선생님







2학년 8반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으로 태어나고 싶다.

김다인 : 혜민 쌤, 따라쟁이는 지겹다.

김성은 : 피오, 입 작다는 소리 지겹다. ㅠㅠ

김소정 : 정민주, 상큼하다는 소리 지겹다. ㅠㅠ

김시아 : 큰 그루터기 나무, 작단 소리 지겹다.

김유민 : 사람, 돼지인데 사람인 척 하는 거 지겹다. ㅠㅠ

김은아 : 카멜레온, 혀 짧은 건 지겹다. BB

나해윤 : 육상동물, 벨루가는 지겹다.

박세은 : 178cm, 아랫공기 지겹다.

신혜정 : 알린, 눈 두 개는 지겹다. ㅠㅠ

심주영 :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지겹다.

오승연 : 몸치, 댄싱머신은 지겹다.

왕아현 : '신' 아현, 인간 세계의 '왕'은 지겹다.

유태경 : 김성은, 다이어트는 너무 지겹다. ㅠ

이소은 : 우리집 화분에 있는 돌멩이, 움직이는 건 지겹다.

이유진 : 초능력자, 난청소리는 지겹다.

이지은 : 거울공주, 평범한 사람이 지겹다.

이하늘 : 다 부질없다. 난 고3이다.

이희원 : 송가락, 람보르기니 없는 삶은 지겹다.

임우리 : 정민, 예쁘다는 소리도... 지겹다...

장혜림 : 거인, 요정은 지겹다. ㅠㅠ

정　민 : 불면증, 그만 자라는 소리는 정말 정말 지겹다.

정민주 : 김소정, 귀엽다는 소리 지겹다. ㅠ

정한나 : 피터팬, 팅커벨로 사는 것도 지겹다. ㅠㅠ

최　솔 : 심주영, 늦게 일어나는 건 지겹다. ㅠㅠ



3학년 1반 이현영 선생님

1분전 ·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하늘고님 외 658명 댓글 29개 공유 31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3학년 1반

김민선 : 매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몸으로 메탄가스를 내뿜는 #김범준

김민재 : 1-4, 2-1, 3-1. 수학여행 때 뷔페에서 티라미슈를 한통 그대로 가져오던 #박현민의 모습.

김범준 : #한남경 고등학교 1학년 때 복도에서 나루토처럼 달리던 모습.

김재윤 : #박주영 되게 착할 것 같았는데 제일 악마.

김준혁 : #변정환 어마어마한 머리 크기.

김지훈 : 1년 반 동안 이 원수를 잘 보살펴준 #변정환 너나 나나 수고했다.

김진석 : #한남경 처음 만났을 때 닭흉내 내서 갑분싸시킨 것이 잊혀지지 않음.

김찬양 : #김진석 처음 만난 날 하루종일 자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음. 하루의 반은 자는 듯.

김한민 : #박주영 핑크색 일본 만화책을 건드리자 "으악 미쿠짱은 건들지마!"라며 노발대발하던 주영이의 모습.

류승권 : #한남경 전체조회때 애국가를 크게 부르는 남경이의 모습.

박동주 : #3학년 1학기의 성적

박재환 : #라크로스 라크로스 때문에 일본간 것.

박주영 : #동기와 #민기 가끔 나한테 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느껴진다.

박현민 : #이동규 노잼 드립을 치면 어디선가 "현민아?"소리가 들려온다. 거의 스토커.

백지웅 : 언제나 문과 남자반 1등인 #우리반 성적!

변정환 : #6기 문남 반장 말도 안듣고 힘들었지만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사랑해 6기문남.

유동훈 : 한 달간 실시한 #현영쌤과의 아침운동 #민연쌤과의 수학 보충수업

이규헌 : 200호에서 저질렀던 모든 #일탈들

이동규 : #한남경 나고 일어난 후의 모습..

이동우 : 병원외출을 가장한 #프리덤

이지훈 : 나의 룸메들. #도현 #가혁 #창식 #지원 #세윤 #가현 #원규 #지혁 #남경 #민기 #성민 #동기

장세윤 : #고교시절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 #사람들

정지성 : #민연쌤이랑 #라크로스 없었으면 바로 자퇴했을 듯.

정지용 : 6년째 듣는 #김준혁의 드립.

조상현 : #3-1 첫 단합대회 개꿀맛 #삼겹살

최대명 : #민연쌤 후문에서 택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타나 "타"하시는 모습.

한남경 : #우리반 애들이 나에게 참 #관심이 많다는 점.

홍지우 : #한남경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그의 외모.

황경남 : 당연히 #축구!



3학년 2반 김경훈 선생님

1분전 ·

하늘고 인생 최고의 순간은?





하늘고님 외 658명 댓글 31개 공유 32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3학년 2반

가예림 : 노트북이라는 문물을 처음 접했을 때.

강지영 : 나를 존중해 준 사람을 만났을 때.

고은비 : 2학년 때 민희쌤과의 대화. 언제나 민희쌤과 함께한 시간은 최고의 순간.

곽선진 : 말씀의 무게를 깨달은 순간.

김서연 : 미대는 수학을 안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김서진 :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모든 순간.

김수연 : 2학년 때 방학식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가서, 터키행 비행기를 타던 순간.

김영서 : 가장 빛날 순간은 지금 나에게로 빛의 속도로 나가오고 있다.

김윤하 : 난 최고야!

김지수 : 면학실 밖에서의 모든 순간.

김하연 : 1학년 축제날 '두 번째 고백'듣고 BTOB에 입덕한 그 순간.

노유진 : 학교 입학전 입학설명회 왔을 때.

박지혜 : 2학년때 #민연쌤께 빠졌을 때 즈음 매일매일.

박채령 : 지금 이 순간.

방상희 : 수능 D-100에 동생한테 편지받고 싸이버거 먹으면서 울었던 날.

서영주 : 지금 이 순간 수능 보기 1주일 전.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소가현 : 눈이 펑펑 온 겨울방학 일요일 아침 잔류팸끼리 매점 비닐봉지로 눈썰매 타던 날.

신혜주 : #현영쌤과 함께한 모든 순간.

유한나 : 집에 가려고 짐 싸던 그 모든 순간.

윤성현 : 전과했을 때.

이영채 : 1, 2학년 학술제. 귀신의 집, 노래, 댄스.

이예진 : 하늘고의 모든 귀가일.

이주현 : 3학년 3월에 석호보러 경포호 갔을 때.

이지호 : 자퇴각을 재던 날 붙잡아준 스페셜데이.

전소민 : 후배들이 챙겨줄 때.

정다은 : 수학여행 버스 노래방.

정영신 : 운서역을 마주하던 모든 순간.

조성현 : 하늘고의 숨겨진 '원석'을 찾았을 때.

조은진 : #미영쌤을 뵐 수 있었던 모든 순간.

표민주 :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이 끝난 날.

허건민 : #심주석 선생님 사랑합니다.



3학년 3반 김민희 선생님

1분전 ·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으로 태어나고 싶다.





하늘고님 외 658명 댓글 30개 공유 33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3학년 3반

고민정 : #남자 남자는 이제 지겹다.

고해인 : #고다인 언니라고 부르는 건 이제 지겹다.

김나강 : #이지현쌤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롭고 짜릿한 기분을 나도 느끼고 싶다.

김명화 : #왕잠자리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다.

김서연 :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노아린 "강지한 사랑해"

김승연 : #고양이 하는거라곤 먹고 자는 것 밖에 없다.

김예인 : #음치 솔직히 잘하는거 아는데 계속 시키는건 이제 지겹다.

김유진 : #파랑 사랑이 파랑이고 파랑이 사랑이고 파랑은 숨이고 언어고 음악이고 파랑은 온전함.

김윤지 : #뽕뽕이 몰래 뀌는 건 이제 지겹다.

김채현 : #음악 아름답고 강하고 상처 안 받고 누군가에게 꿈이자 희망이자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박나현 : #나 소중한 내 사람들과 다시 함께 하고 싶다.

박나선 : 그건말이지. 중요한게 쿡 아니야. 왜냐9? 난 ㄴr일뿐 2ㄴiㅠr...

박채린 : 안 태어나고 싶다. 이번 생이 너무 고달파서.

박현문 : #김원석쌤 아이 원트 투 겟 허.

손동아 : #평범한 사람 예쁜건 이제 지겹다.

송하영 : #위인 이번 생은 예뻤으니까. 다음생은 멋있게.

우상원 : #기린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다.

유재원 : 인생은 노빠꾸!

이가영 : #들판을 달리는 개 그 생각할 때 마다 행복해져서.

이수정 : #동양미인 서양 미인은 이제 지겹다.

이유진 : #나 나한테는 멋진 날들이 가득가득하니까.

이현주 : #도라에몽 불가능한 일이 존재할 수가 없다. 부럽다.

임연지 : #주인 잘만난 강아지 개팔자가 상팔자.

임채원 : #초능력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장혜린 : #서민 돈 쓰는 건 이제 지겹다.

최서임 : #그리스 바닷가마을의 고양이 가 되고 싶다. 이집저집 사랑받으며 오후엔 따스히 식빵을 굽는 자유로운 고양이.

최시몽 : #숏다리 다리긴건 이제 지겹다.

편수민 : #복숭아 이번생은 약간 복숭아였음.

한지희 : #사이다 너무 좋아서.

황유진 : #나 난 소중하니까.



3학년 4반 심주석 선생님

1분전 ·

2년간 느낀, 남녀합반의 장점과 단점은?





하늘고님 외 658명 댓글 22개 공유 34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3학년 4반

김대규 : 서로를 남자와 여자가 아닌 친구로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김보근 :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는 것. 그게 장점이다.

김사랑 : 모든 수업의 진도를 가장 빨리 뺄 수 있다.

김승준 : 2년이 지나도 서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자 단점의 전부이다.

김태훈 : 남녀 분반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남녀 분반이 아니라서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이무근 : 여자 친구는 안 생기고 여자 사람 친구가 생긴다.

이상민 : 이성의 사고구조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이영훈 : 체육대회 때 반대항전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살짝 노잼.

정우현 : 2년 동안 반끼리 축구를 못했다. 아직 조금 어색하다.

최동휘 : 어색했을 때는 많이 불편했지만, 힘든 시기 신경을 써주었던 친구들이다.

홍승민 : 장점이자 단점. 공부를 할 수 있다.

강지혜 :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김보선 : 남녀를 떠나, 배울점이 많은 친구들과 2년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김세연 :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 것 - 합반인지 잘 모르겠다.

김수연 : 2년동안 함께 하다보니 친구가 아닌 가족같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

문현아 : 남녀 할 것 없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어서 좋다. 사실 남녀구분이 없어졌다.

박지원 : 합반이라는 하늘고에서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박현비 : 여사친 같은 남사친과 남사친같은 여사친이 생겼다.



좋아요 · 답글 달기

윤예은 : 남녀사이에 친구는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되었다.

이해온 : 그냥 편하다.

전예은 : 남녀합반이 좋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좋다.

정재경 : 서로 더 의지하고 잘 뭉칠 수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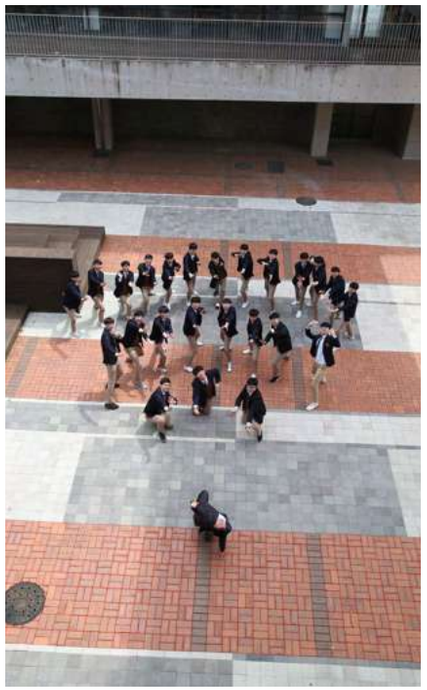


3학년 5반 김원석 선생님

1분전 ·

수능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고1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늘고님 외 658명 댓글 24개 공유 35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3학년 5반

권혁진 : 넌 머지 않아 예쁜 꽃이 될거야!

김기주 : 너무 조급해 하지마.

김기현 : 면학실에서 하늘나래 읽는거 개꿀잼.

김윤서 :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자.

김준영 : 열심히 살자.

김현진 : 파이팅!

박기철 :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3차전 한국대독일 2대0승리. 최대한 돈을 많이 걸어!



좋아요 · 답글 달기

박도영 :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박성우 : 일희일비 하지마.

박형빈 : 카트라이더를 하지 말걸.

배경민 : 너도 살찌더라. 20Kg정도.

서원규 : 공부든 공부가 아니든 열심히 하자.

안병현 : 지금의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안성민 : 공부를 할 때와 놀 때 구분 잘 하자. 절제력을 가져.

여동기 : 나는 어차피 이 글을 아무도 안 읽을 것을 안다.

이민수 : 여유를 가져.

이병국 : 정신차려 제발. 정시는 아닌 것 같아.

이은석 : 카트 레벨업 할 시간에 책이나 더 읽어둬라.

이정빈 : 내가 뭐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안 듣겠지?

이정후 : 너를 믿고 자신감있게 살자.

이현우 : 놀 수 있을 때, 마음껏 놀자.

임준하 : 자만하지 않기.

정유석 : 후회없는 삶을 살자.

한지원 : 하늘고 자소서에 쓴 서울대학교 수의예과에 입학하겠다는 말을 꼭 지키고 싶다.



3학년 6반 이현주 선생님

1분전 ·

하늘고 TMI





하늘고님 외 658명 댓글 25개 공유 36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3학년 6반

강석훈 : 주말에 시간나면 나가서 외부 컵라면 사서 비축하기.

강지혁 : 미스엣 파일경로 E:W들어가면 unprotlist라고 있음. 거기 파일 두면 초기화 안됨.

경 훈 : 미스 컴퓨터 부팅할 때 초기화시키면 게임 깔아놓은거 저장됨.

권종현 : 연애는 강당에서.

김강민 : 나 현주쌤 애제자임.

김민기 : 절권도는 단증 없음.

김조현 : 훈휘 물통으로 물 먹으면 맛있음.

박기혁 : 우리형 하늘고 2기다.

박단일 : 3학년 모의고사 보는 날 애들 늦게 일어나서 급식 7:30까지 줌.

양동석 : 외부음식 배달은 과학고에서 받기(수팽이골은 걸릴 위험있음).

우정민 : 스포아츠는 권투가 꿀.

유래형 : 도서관 구석에 보물찾기 만화책있음.

유병현 : 수돗물로 라면 먹으면 미디움 레어 됨.

유상혁 : 내 생일 6월 3일.

윤호상 :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디선가 떠돌다가 소문이 되어 퍼져버림. 소요시간 하루미만.

윤훈휘 : 화재 경보 울리면 옥상 문 열림(나가면 시원하고 좋음)

이두현 : IIP실 옆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 있음.

이민우 : 나 조현이랑 커플 팬티임.

이민재 : 우리 아빠 하늘고 지음.

이일규 : 현주쌤의 열정을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주헌 : 무용실 - 외부음식 먹기 좋은 장소.

전영익 : 윤훈휘 노트북 비번:양치석공포자체.

조현욱 : 나 공익이다.

하승찬 : 우리 형도 하늘고 2기임.

한민규 : 하늘고 홍길동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음.



좋아요 · 답글 달기



3학년 7반 최승주 선생님

1분전 ·

고3이 되어 비로소 알게 된 나의 새로운 모습은?





하늘고님 외 658명 댓글 26개 공유 37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3학년 7반

강윤서 : 수능 전 마지막 사설 탐구에서 10번 틀림.

김나연 :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김다미 :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잘 잘 수 있음.

김미성 : 수특 다 풀기 전에 수능 볼 듯.

김민서 : 강철멘탈. 시험 볼 때 옆에서 방구 뀌고 똥 싸도 괜찮음.

김민지 : 이렇게 똥을 잘 쌌던가.

김예린 : 생각이 없다.

김이제 : 평일 7시 40분 기상.

김정은 : 한국사 개꿀잼. 적성에 맞는 듯.

김태은 : 나는 욕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혜나 : 불가능이란 없다.

문채원 : 공부는 내 길이 아닌 듯.

송예슬 : 난 완벽한 수시파다.

심채현 : 급식으로 생선이 나오는 날이 좋아졌다. 김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안서현 : 하루의 시작은 핫식스.



좋아요 · 답글 달기

안진경 : 근의 공식 까먹음.

오예린 :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유지희 : 집에 너무 가고 싶다.

이나영 : 1학년 때도 안하던 일요일 12시 기상.

임채민 : 이렇게 멘탈이 강해질줄은.

정유진 : 수능 일주일 안 남았는데 아직도 똥줄이 안 탄다.

조서희 : 이런 대학도 있었어???

채지윤 : 생각보다 긴장을 안탐.

최보연 : 기출 아직도 다 안 돌림.

한서영 : 야구선수 덕질을 하고 있을 줄이야.

한서희 : 사설 모의고사 적당히 살걸..



3학년 8반 김창재 선생님

1분전 ·

초딩 땡 어땠게??





하늘고님 외 658명 댓글 26개 공유 38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3학년 8반

강나연 : 3년뒤면 나도 중학생. 엄마한테 노페 바막 사달라고 해야지

고다인 : 01년생.. 나만 뱀띠. 뉴뉴.

김나연 : 8살때가 좋았는데. 내가 벌써 5학년 이라니.

김민서 : 삼치구이 먹고싶다.

김소연 : 년소 - 이게 뭐게. 내 이름 거꾸로 해봥.

김주연 : 동전 받았당. 문방구가서 뽑기해야징.

김한나 : 안돼. 신발 주머니 두고와땅. 엄마한테 전화해야징.

문주윤 : 고딩되기 싫다.

박기빈 : 생선으로 문상받았다아. 크아 캐쉬충전 해야G.

박도영 : 했... 엄마한테 500원 받았다. 컵볶이 사먹어야징.

박소현 : 어제가 마지막 어린이날.. 내년엔 나도 중딩!

박지윤 : 동물농장. 크라라의 훈장 땀.

서연우 : 창 밖을 보라. 이번 클스마쑤 선물은 엔젤폰으롱.

유승민 : 회장 엄마가 사주신 콜팝 짱 맛있땅.

윤지완 : 때끼. 어디 5학년이 6학년한테 까불어.

이은결 : 한컴 타자 500타 넘음. 나님 쫌 짱인 듯.

이은지 : 명예 소방관. 넘 머시써.

이주미 : 도굥숭. 스릉흔드.

이지연 : 빠밤. 뀨요미 지요니 등장.

임서라 : 잠 안자는 人.

임혜민 : 없는 아이템이 없는 혜민이네 반짝반짝 파니룸.

전한결 : 이은결 등짝스매싱 하러갈 파티원 구함.

정아영 : 만나서 지옥 탈출할 사람? 3시까지 용놀이터로.

최해인 : 나도 훈냐생정 보면 연예인 되는거긔?

한동화 : 자 있는 사람? 있으면 나랑 4ear자 ㅋ

김예진 : 님들아 앞글자만 읽어보셈. ㅋ



좋아요 · 답글 달기



This is Haneul Connector.

STAFF

Haneul Connector 최상규 Manager

Hanuel Connector 엄유선 Editor

Haneul Connector 이은규 Photographer

Haneul Connector 이다영 Writer

Haneul Connector 함주헌 Photographer

Haneul Connector 장유리 Editor

Haneul Connector 최정은 Designer

Haneul Connector 김정환 Cooker

송제우
윤석영
서지민
노갑민
지상혁
천혜선
노희찬
김예은
박주이
최인아
김순호
유진우

김기림
서예진
박서현
정재영
이채연
전솔
박신애
이명륜
조국호
김수현
경성윤
이율민

안민영
조효리
김다인
김설지
박나민

Special Thanks to
김경훈 선생님
최진혁
한동엽
김순호

